붓을 들면서

저는 한생을 해외에서 살아오는 평범한 재중동포의 한사람입니다.

저의 짧지 않은 70평생에는 교육자의 길도 그려져있고 기업가의 세계도 새겨져있습니다.

저는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남들과 같은 유명한 교육자나 기업가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슴속에는 남다른것이 간직되여있습니다.

존엄높은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고 조국의 부강과 통일을 위해 한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그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는데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러한 요인들중에서도 넋은 인간이 인생길을 선택하고 한생을 참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넋이란 곧 사람이 지니고있는 정신이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넋을 지니고 한생을 사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행로와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넋이 인간에게 참다운 삶을 안겨주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넋이 참된 인생길을

그려주겠습니까.

영원히 정직한 사람이 되려거든 자기 일생을 조국에 바치라는 말도 있듯이 조국을 사랑하고 그의 륭성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정신과 마음, 바로 그런 넋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사람은 그가 어디에서 살든 조국과 민족이라는 큰집에 속해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설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조국과 민족이라는 큰집의 성원이 아닙니다.

조국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생활이며 미래입니다. 조국을 어머니조국이라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어머니조국의 숨결과 심장의 박동을 갈이하려는 그런 정신과 마음, 애국의 넋을 지니고 살 때 사람은 인생길을 보람있고 참되게 걸어나갈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싶은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이제는 한해두해 나이도 많아지는데 해외동포들 특히는 그 후대들이 인생길을 후회없이 걸어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만 한 글을 써보라는 권고를 종종 받군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내가 글을 쓴다는것이 뭇사람들의 웃음거리나 되지 않겠는지, 주제넘은 일이 아닌지 하는 생각으로 붓을 들념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좁은 소견임을 스스로 뉘우치고 용기를 내여 붓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재중동포후대들에게 꼭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상대성리론을 내놓아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을 떨친 아인슈타인의 한생을 서술한 책을 보고 크게 감동되였던바가 있었습니다.

도이췰란드출신의 미국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5살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 그 수준이 높았으며 옷을 매우 소박하게 입고 다녀서 이러저러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지만 저에게 감명을 준것은 그의 생의 마지막시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말년에 와서 영어를 쓰지 않고 모국어인 도이췰란드어로만 말을 해서 주변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한번은 그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모국어로만 말을 해서 간호원은 그가 영어를 모르는 도이췰란드사람인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제가 새삼스레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은 그의 이러한 작은 생활세부를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던 까닭입니다.

지금 개인주의적인생관에 물젖은 재중동포사회의 일부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 참된 삶인가에 대한 일체의 고민도 없이 《내 인생은 나의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어 어떤 청년들은 정상적인 생활의 궤도에서 리탈하여 방황하고있습니다.

이같은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오랜 세월 조국의 부강

번영과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온 한 사람으로서의 가책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동시에 동포사회의 후배들이 애국의 넋을 지니고 인생길을 참답게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하겠다는 선배로서의 의무감을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인생길을 참답게 그려나가도록 끊임없이 고무해준 넋, 애국의 그 넋을 따라 그려온 인생의 자욱자욱을 후대들에게 소박하게나마 전하고싶은 마음에서 틈나는대로 한자한자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저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며 애국의 한길로 변함없이 떠밀어준 어머니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거짓없이 진실만을 골라 엮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글쓰는 일이 힘들다는것을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장문을 써본적도 없었거니와 생각도 여물지 않아 붓방아를 찧으며 고심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바쁜 틈에 짬짬이 쓰다보니 엉성한 글이 되고말았습니다.

이 글이 우리 해외동포들과 그 후대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이 낳은 걸출한 령도자의 위인상과 존엄높은 조국을 알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애국의 넋을 지니고 인생길을 떳떳이 그려나가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차 례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 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러
살아서 너를 떠나간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 서정시 《나의 조국》중에서 —

1. 숫눈우에 새겨진 자욱처럼

□ 소중한 추억

무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군 합니다.

젊어서는 미래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고.

저는 이전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 옛사람들이 일러오던 인생70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 이르고보니 지나온 인생길에 자주 추억의 돛을 달아보게 됩니다.

제가 태여난 곳은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입니다.

저는 땅과 함께 살아오는 평범한 농사군의 집안에서 1950년 6월 21일(음력)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예로부터 대나무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에서 얼마간의 논과 대나무밭을 가꾸며 대대손손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할아버지의 일가는 한세기전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강도적으로 벌려놓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땅을 빼앗기게 되였습니다.

목숨처럼 여겨오던 땅, 제 살점처럼 가꿔오던 대나무밭을

하루아침에 떼우고나니 참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밤새껏 잠 못 들며 두드리는 할아버지의 대통소리와 어린 자식들을 재워놓고 막막한 살림살이를 탄식하는 할머니의 한숨섞인 목소리는 가난의 설음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요?!…》

바로 그즈음 《송풍락원설》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압록강너머 간도의 넓고 평평하고 기름진 땅은 송백이 바다처럼 설레이며 풍경이 수려하고 기후도 농사에 알맞춤한 무릉도원이라는것이였습니다.

원래 간도라는 말은 사이섬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 뜻이 옮겨져 대안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였습니다.

두만강하류지방의 농민들이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의 학정과 지주들의 등쌀에 못 견디여 피눈물을 뿌리며 하나, 둘 두만강을 건너가 황무지를 일구기 시작한것이 간도개척의 시작이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간 조선이주민들은 간도에 자기들의 첫 집결지역을 형성한 다음 로야령을 넘어 목단강을 따라 북만에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압록강을 건너가 중국 동북지방에 정착한 조선이주민들도 있었는데 그곳을 간도에 비겨 서간도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서간도에 비겨 본래의 간도땅을 북간도라고 불렀습

니다.

결국 간도라는 말은 북간도와 서간도 즉 압록강, 두만강대안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여 부르는 말로 되였습니다.

서간도일대는 조선이주민의 제2집결지역으로 되였습니다. 이곳을 출발계선으로 하여 북쪽으로 화전과 길림, 서쪽으로 해룡과 심양 등 남만의 넓은 지역으로 많은 조선이주민들이 정착하게 되였으며 그곳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10년당시에 벌써 훈춘, 왕청, 연길, 화룡지방의 조선이주민수가 5만여호에 30여만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후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밑에서 더는 살수 없게 된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계속 밀려들면서 그 수가 더욱 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동북3성으로 불리우는 길림성, 료녕성, 흑룡강성에 널려 살고있는 조선사람들의 대다수는 나라없던 그 세월 살길을 찾아 남부녀대하고 눈물의 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자손들, 반일의 기치를 들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입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새들마냥 고향땅을 등지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떼를 지어 흘러가는 사람들의 물결, 그것은 그대로 망국노의 신세로 굴러떨어진 우리 민족의 수난에 찬 운명의 축도가 아닐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도 그 민족수난의 희생양이 되여 고향을 등지고 조국을 하직하게 되였던것입니다.

려비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할아버지일가는 기차는커녕 우

차나 마차조차 탈념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안되는 살림도구들을 달아맨 보짐을 이고지고 배고파 칭얼대는 어린 자식들의 파리한 손목을 끄당기며 수천리길을 걸어 압록강가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에서는 철새들이 무리지어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마가을의 락엽이 처량하게 굴러다니는 나루터주변은 간도로 들어가는 이주민들로 편일 붐비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조선에서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다음해였습니다. 당시 돌이 갓 지났던 아버지는 할머니의 등에 업혀 압록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국의 낯선 땅을 밟지 않으면 안되였던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분들의 마음속에 옹이처럼 박힌 망국의 한과 슬픔을 어떻게 풀어드린단 말입니까.

우리 집안의 이국살이는 이렇게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간도땅은 결코 무릉도원이 아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될수록 압록강에서 심산오지로 한발자국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할머니와 어린 자식들의 발이 부르터 더 걸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할수없이 흥경현의 어느 한 조선인농가에 보따리를 내려놓는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집주인은 마음씨 무던한 농사군이였다고 합니다.

주인은 할아버지가 자기와 동성동본이라는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이 근방에도 조선이주민들이 살고있으니 여기서 함께 살아보자고 권하였답니다.

그러면서 봄철에 나가서 자기가 중국인의 땅을 얼마간 빌려주도록 알선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답니다.

며칠후 한 조선이주민이 좁쌀 몇되를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왔답니다. 또 얼마후에는 조선에서 이주민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동네의 조선이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좁쌀과 조선김치를 조금씩 펴가지고 와서 낯을 익히고 할아버지에게서 고국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러저러한 조언도 주었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고 성의껏 부조하는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 이역의 하늘밑에서는 더욱 눈물겹게 이어지고있었습니다.

후날 할아버지는 비록 미력일망정 그것이 이주민들을 단합시키고 그들의 삶을 개척하는 힘이 되고 기상으로 되였다고 자주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생소한 고장에서 삶을 위한 생활이 시작되였습니다.

온 집안이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겨울에는 산에 올라가 땔나무를 해가지고 장마당에 나가 팔았는데 그것으로 생계를 연명하였다고 합니다.

봄철이 되자 한씨는 약속대로 중국인의 밭을 빌리도록 해주었습니다.

넘겨받은 밭주변을 살펴본 할아버지는 옆으로 흐르는 시내물을 퍼올리면 얼마든지 논으로 풀것 같아 땅임자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손을 내두르며 만류하더랍니다. 조선사람들이 강을 건너와 벼를 심어 부자가 됐다는 말

을 듣기는 했는데 아직 이 일대에서는 벼농사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것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슬근슬근 물방아를 만들고 밭을 논으로 풀수 있도록 물길을 내고 뚝도 만들었습니다. 한편 밭주변의 황무지를 한뙈기한뙈기 일구어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아직 뼈대도 채 굳지 못한 어린 자식들까지 생사를 걸고 그냥 장작짐을 져서 돈을 벌고 농사에 달라붙었습니다.

모든 식솔의 두손은 항상 부르터있고 얼굴이 새까매서 돌아갔습니다.

린근의 중국사람들은 할아버지일가가 억척같이 일하는것을 보고 모두 감탄해마지 않았답니다. 특히 할머니까지 논밭을 뚜지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것을 보자 조선녀자들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며 부러워하였답니다. 당시의 중국녀자들은 전족을 하는 낡은 풍습때문에 바깥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일만 하고있었습니다.

이역땅에서의 첫해 농사는 풍성하였습니다.

땅임자는 조와 수수가 엉성하게 나던 밭에서 벼가 우거져 설레이고 잡관목이 들어찼던 황무지에 수수와 콩알이 알차게 여문것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조선농사군이 으뜸이라고 좋아하였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자들이 나타나 땅세를 내라고 을러멨기때문이였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수탈과 식민지화정책으로 조선이주민들이 갑자기 늘어나 압록강이북지역이 대대적으로 개척되자 중국 군벌당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파견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황무지주변에 말뚝을 박아 제땅이라고 선언하고는 땅임자가 되여 그 황무지를 개간하는 조선이주민들에게서 고률의 토지사용료를 받아가고 나중에는 지주로 둔갑하는 건달망나니들이였다고 합니다.

그자들은 할아버지가 자기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으니 저들이 부르는대로 땅세를 내야 한다고 그냥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그러면서 정 땅세를 물기 싫으면 관가에 일러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조선으로 쫓아보내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답니다.

할아버지는 하는수없이 그해 농사의 많은 몫을 그자들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홍역에 걸려 심하게 앓던 두 자식은 약 한첩 변변히 써보지 못하고 끝내 이역땅에 묻히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더이상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거느리고 여러곳으로 옮겨다녔습니다.

하지만 땅은 넓어도 할아버지네가 마음놓고 농사지을 곳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운명이 그 어디 간들 나아질리 있겠습니까.

여기저기를 떠다니던 할아버지네는 9.18사변(일명 만주사변)

이 일어나던 해 매하구주변의 어느 한 마을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사람이 촌장을 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고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조선사람들도 많았거니와 다른 지역보다 이곳의 중국사람들과 조선이주민들의 사이가 좋아보이더랍니다.

촌장은 할아버지로부터 지나온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같은 세월에 어디 간들 마음편히 살수 있겠나?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지 않겠나?》

《…》

《우리 마을이 잘살지는 못해도 인심만은 그리 박하지 않으이.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봅세.》

말 한마디에 천금이 오르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이 푹 묻어나는 촌장의 수더분한 그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곳에 뿌리내리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곳에서 태여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애국의 자양분을 섭취하며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우리 자손들에게 떠나온 고향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주군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의 귀전에는 할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듯 합니다.

매달 닷새마다 대나무로 만든 물건들을 팔고사는 장이 크게 서군 하였다는 이야기며 장날이 되면 밤새 만든 대나무제품들을 머리에 이고 장터로 향하는 행렬이 새벽부터 줄을 잇군 하였다는 이야기, 영산강의 상류인 담양천을 막아서 만든 관방제(官防堤)며 오랜 나이를 자랑하는 팽나무와 이팝나무, 갈참나무 등이 우거져있는 관방제림에 대한 이야기, 관방제에서는 《삿갓전》(조선봉건왕조 말기까지 삿갓이 크게 류행해서 하루에 3만개가 팔린적도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별칭)이라고도 불리운 대나무제품들을 팔고사는 장이 열리는 넓은 장터가 훤히 내려다보였다는 이야기…

이것을 어찌 일개 촌로의 고향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것만이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과거사를 잊지 말라는, 민족의 넋을 간직하길 바라는 당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대하여 자상히 서술하는것은 망국노불여상가구(亡國奴不如喪家狗: 망국노는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라고 조국과 민족이 수난을 당하면 매 개인, 매 가정도 수난을 겪기마련이라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년시절이라는 말이 나온김에 몇자 더 쓰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시절의 추억은 한생에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것으로 간직되여있을것입니다.

저의 가슴에도 이곳에서 흘려보낸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헤염치기를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나이 70을 바라보는 지금도 헤염이라면 그 누구에게 지고싶지 않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옆으로는 크지 않은 강이 흐르고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늦은봄부터 초가을까지 동네아이들과 함께 자맥질이며 물고기잡이 등으로 하루해를 보내군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아이들과 누가 물속에서 오래 견디는가를 내기하던 과정에 일어났던 소동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9살 나던 해 무더운 여름이였습니다.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강가로 나간 저는 누가 물속에서 오래 견디는가를 겨루자고 하였습니다. 내기에서 진 아이들은 이긴 아이에게 참외를 두근(1kg정도)씩 따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강기슭을 따라 좌우로 참외밭이 넓게 펼쳐져있었습니다. 참외가 노랗게 익어 향기를 풍기는 여름철이면 우리 같은 장난군들의 《습격》을 자주 받군 하였습니다.

이윽고 내기가 시작되였습니다. 한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은 기슭에서 셈을 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00을 세기도 전에 가쁜숨을 몰아쉬며 물밖으로 머리를 내밀군 하였습니다.

드디여 내 차례가 되였습니다.

그때 저는 물속에서의 숨쉬는 요령을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배숨쉬기의 요령을 말입니다. 때

문에 물에 들어가 몇분정도는 얼마든지 견딜수 있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리라 결심한 저는 여러번 숨을 크게 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속으로 셈을 세였습니다. 열을 셀 때마다 왼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손가락들의 접었다펴기를 10번이상 반복하였을 때였습니다.

누구인가가 내 팔을 움켜쥐고 물밖으로 끌어올리는것이였습니다.

《푸!…》

긴숨을 내쉬면서 물밖으로 나와보니 낯모를 젊은 사람이였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

질식되여 물속에 가라앉은줄 알았던 내가 먼저 입을 열자 그는 어마지두 놀란듯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일인즉 이렇게 된것이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간지 몇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애들은 내가 물속에서 질식된줄 알고 여기저기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살려요.》, 《창수가 물에 빠졌어요.》…

어떤 애는 우리 집에 알리려고 달려갔고 어떤 애는 무서워서 들고뛰였습니다.

애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그 젊은이가 강물

에 뛰여들어 나를 끌어올렸던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도 억이 막혀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저에게는 한창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별칭이 생겼습니다. 바로 《물귀신》이라는 별명이였습니다.

물론 이날 내기에서 이긴것으로 하여 30근이 넘는 참외를 받은것은 더 말할나위 없습니다.

조선학교에서 처음으로 우리 말과 글, 우리 민족의 력사를 배우며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숫눈우의 첫 자욱처럼 저의 마음속에 새겨지던 추억들도 소중히 간직되여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살던 마을에는 중국학교가 있었습니다. 린근에 하나뿐인 학교이다보니 일부 조선사람집들에서도 자식들을 이곳에 보내군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학교갈 나이가 되자 동네로인들과 상의하고 제또래의 아이들 여럿을 시내에 있는 조선인소학교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조선인소학교와 조선인중학교가 있는 시내까지는 퍼그나 먼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도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을 부디 그 먼데로 보내야겠는가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야 지난날 제 나라가 없었던탓에 까막눈이 되였지만 제 나라가 있는 지금에야 조선학교에서 자기 민족의

말과 글, 력사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학교로 오가는 길은 비록 멀었지만 저는 하나도 힘든줄 몰랐습니다. 우리 글을 배우기가 재미있었고 선생님들은 한사람같이 친절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비가 오거나 제가 장난에 정신팔려 학교에서 늦게 돌아올라치면 벼짚우장이나 등불을 들고 동구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군 하던 할아버지며 일손을 도우려고 하면 어서 들어가 글 한자라도 읽으라며 등을 떠밀군 하던 할머니, 자식의 공부에 방해가 될가보아 하던 다듬이질을 멈추고 전등불밑에서 우리 글을 소리내여 읽는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어머니.

그 모습들은 매일같이 저를 등교길로 떠밀어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되였으며 오늘도 소중한 추억으로 제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여있습니다.

너무도 철이 없었던, 그러면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이 간직되여있는 저의 유년시절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 어머니의 초상

스승은 누구에게나 전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것처럼 인생전환의 중요한 계기는 드물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생을 두고 회고할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을 그런 행복한 인간이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생을 두고 회고하는 스승이 있기때문입니다.

그 스승이 다름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나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살도록 이끌어준 훌륭한 선생이였습니다.

어머니는 1923년 6월 21일(음력) 함경북도 회령군 보을면(당시)의 가난한 품팔이군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어머니는 일찌기 량부모를 여읜탓에 어린 녀동생과 함께 오늘의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서 살고있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의 집에서 몇년동안 얹혀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후 그 집을 나와 이일저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철도공사장에서 식모로 일하던중 그곳에 부역으로 끌려나왔던 아버지를 알게 된것이 연분이 되여 서로

가정을 이루게 되였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의 《회령3미》라고 하면 중국은 물론 로씨야의 연해주와 멀리 일본에까지 그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회령에는 미모와 인덕, 재주를 겸비한 녀인들이 특별히 많은것으로 하여 녀미(女美)를 첫번째로 일러왔습니다.

하기에 언제인가 회령을 다녀간적이 있는 중국의 옛 사신도 《조선의 이목수려한 미녀들이 회령에 다 모인듯 하구나.》하고 회령녀인들의 아름다움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젊어서 미녀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살 나던 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중국 동북해방전투들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더운 피는 물론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쳤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의 아버지 역시 조선인부대의 한 성원으로 이 전투들에 참가하였다가 몸을 다쳤습니다. 그 후과로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났던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크고작은 일은 모두 어머니의 두어깨우에 지워지고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악하게 가정을 유지해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부모들을 봉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농사일을 하는 그 힘든 속에서 저와 누이동생을 키웠습니다.

원래 저의 우로는 세명의 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이 짧아서인지 아니면 세월탓인지 모두 태여난지 얼마

안되여 병으로 운명을 달리하고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남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남달리 각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해 밤낮을 잊고 살았습니다.

음식솜씨 또한 남달랐던 어머니는 농한기나 명절전날에는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인채 새벽부터 거리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팔아서는 닭알이나 오리알 등을 구해오군 하였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에, 그것도 젊은 녀인의 몸으로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식들을 키우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자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어주군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는 저를 더 사랑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팔러 갈 음식들을 먹으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떡 한짝정도였습니다.

가난했기에, 돈을 벌어 자식들을 내세워야 했기에 더 주고픈 마음을 강잉히 참고 고개를 돌려 눈굽을 찍군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시내에 있는 조선인중학교에 다니던 어느 겨울날이였습니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오니 어머니가 앓음소리를 내며 누워있었습니다.

옆집어머니가 하는 말이 음식을 이고 어느 한 집에 팔러 들어갔다가 그 집의 개에게 물리웠다는것이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분기가 욱 치밀어올랐습니다.

저는 무작정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낫을 찾아 들고 씩씩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부르며 맨발로 따라나왔습니다.

우둘렁거리는 저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개털을 조금 잘라오라고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할수없이 어머니가 말한대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지고 온 개털을 태워 물린 자리를 비벼대고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보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음식팔러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세상을 뜨신 후였습니다. 녀동생도 아직 어리다보니 집에는 밥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고파하는 동생의 정상을 보다못해 맞은켠에 있는 남의 집 뒤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큰 매지나무 한그루가 서있었습니다. 저는 매지나무에 올라가 매지를 한웅큼 따가지고 오다가 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였습니다.

배고파하는 동생을 위해 그랬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식의 결함을 감싸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그 집에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다시는 남의 집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은 지금도 저의 생활에서 철칙으로 되여있습니다.

어머니는 성미급한 아들이 남들과 또 싸움하지 않는가 하여 늘 걱정하였습니다.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는 저녁이면 될수록 집에 빨리 들어가군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집문밖을 나설 때면 이렇게 오금박군 하였습니다.

《저녁에 빨리 들어오너라. 내 문밖에서 너를 기다리마. 네가 들어올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저는 동무들과 함께 있다가도 어머니때문에 늘 먼저 일어서군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대바르게 키우기 위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겼을뿐아니라 자식들이 늘 우리 민족의 넋을 안고 살도록 말없이 보살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집에서 조선말만 하게 하였으며 음식도 조선음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루하다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적인것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민족적인것을 지켜나갈뿐아니라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교양한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어머니는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메주를 쑤군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메주쑤는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마도 장은 봄꽃보다 예쁘고 금보다 귀하며 딸보다 친한 벗이였던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조국을 알고 애국을 알게 해준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자모유패자》(慈母有敗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애심이 너무 많은 어머니밑에서는 오히려 도리를 모르는 불량한 자식이 나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운다는 말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나름인것 같습니다.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한생 농사일밖에 몰랐으며 남편을 일찍 여읜 다음부터는 가정의 모든 부담을 걸머지고 생활의 풍파를 헤쳐나가느라 고생도 많았던 저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는 말 하나하나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인의 말보다도 저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군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귀중히 여겨야 할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다. 일초일분이 모여 하루가 되고 일년이 되고 세월이 된다. 또한 가정이 모여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나라가 된다.

나라의 근본과 씨앗은 매 개인이다. 일초를 아껴 배우고 좋은 일을 하여야 값있는 세월을 만들수 있듯이 저저마다 자기자신을 애국의 정신으로 다스려야 나라를 잊지 않고 그에 힘을 보태줄수 있다.》

조선인소학교에 이어 조선인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통화에

있는 사범학교(당시)에 입학하게 되였습니다.

입학통지서를 받아쥐였을 때의 마음은 참으로 유별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입학통지서예요.》

어머니는 밭일을 하다가 허둥지둥 달려오셨는데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되여있었습니다. 줄줄이 흐르는 땀을 씻을 생각도 안하고 입학통지서를 받아쥔 어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창수야,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아들이 이젠 어엿한 사범학교 학생이 되였구나.》

《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속에 자란 제가 입학통지서를 받아쥐였으니 어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속에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대견함과 사랑이 넘쳐있었습니다.

사범학교 력사과에 입학한 저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세월은 류수와 갈다고 정말 지나고보면 세월이란 참으로 빠르기도 합니다.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였습니다.

그무렵 저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살길을 찾아 중국 동북지방으로 흘러든 조선이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력사적으로 고찰한 글을 학생들앞에서 발표하였던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발표한 글을 높이 평가하면서 학교의 교

원으로 남을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무릇 사람의 인생에는 갈림길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급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진출문제는 아마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것만큼 많은 젊은 청년들은 졸업후 취직문제를 놓고 희망의 꿈을 펼치기도 하고 좌절의 심연에 빠져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학창시절에 설계하였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원이 되여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후대교육에 한생을 바치는것이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어느 한 지구의 간부양성소 교원으로 갈수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간부들을 양성해내는 학교로서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배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실현되였더라면 아마 저의 인생은 궤도를 달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졸업배치와 관련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말을 듣더니 한참동안이나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더러 따라오라고 이르고는 먼저 밖으로 나가는것이였습니다.

때이르게 휘여든 허리에 손을 얹고 그늘진 산언덕길을 비척비척 걸어가는 어머니의 뒤모습,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들

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고달픈 모습을 보여주는 슬픈 조각상처럼 저의 가슴을 아프게 저미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 이른 곳은 다름아닌 할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그 무엇인가 쿵— 하고 울리는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학교도 마다하고 부디 먼곳에 있는 조선학교로 보내준 할아버지, 어쩌다 술 한잔 하신 날이면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떠나온 고향에 대하여 눈물이 글썽해서 이야기하군하시던 할아버지가 생전에 바란것이 과연 무엇이였겠습니까.

자손들이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넋을 지니고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라는것이 아니였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란대로 살아나가겠다는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인 조선인중학교의 교원으로 배치받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다년간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특히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왜 조국을 떠나 이역땅에까지 흘러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민족

의 넋,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그후에도 늘 자식들에게 제 나라를 잊으면 안된다고 당부하군 하였습니다.

저는 기업길에 나선 후 국적문제로 하여 이러저러한 제한을 받을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힘을 주군 하였습니다.

《창수야, 조국을 잊지 말아. 자기 조국이 제일이야.》

저는 현재도 어머니의 그 당부를 명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 당당히 살고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머니는 저와 생일이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한동안 생일을 쇠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란 어머니를 잊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언제인가 저는 어머니에게 왜 저와 같이 살게 되였는가고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웃으며 아들하고 사는거야 응당한거지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 웅심깊은 마음을 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알게 되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의 말년에 오래동안 로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어느날 의식을 잃었던 어머니는 저의 목소리를 가려듣고 정신을 차린 후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창수야, 내가 왜 너하고 살았는지 아니?》

《내가 좋아서겠지요.》

《아니다. 네가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였다.》

《?!…》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나무가 고요하려고 해도 바람이 자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하여도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아 효도를 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라는 말도 있듯이 저는 어머니를 위해 효도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가끔 지인들에게 《세상에는 효자가 있을수 없다.》고 말하군 합니다.

독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사랑에 천, 만분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저의 가정과 사무실에는 수예로 형상한 어머니의 초상이 걸려져있습니다.

늘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가려는 마음에서.

□ 나는 조선공민이다

제가 기업길에 나선지도 어언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저는 사업상관계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들에서 살고있는 적지 않은 해외교포기업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그들모두는 제가 중국국적을 가진 기업가인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다나니 종종 아래와 같은 대화가 진행되군 하였습니다.

《총경리선생도 이 나라 공민이겠지요?》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국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적문제는 생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는가에 따라 리득을 취할수도 있고 그와 정반대의 경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해외교포기업가들이기에 그들이 놀라와하는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국의 공민권을 지니던 일이며 조국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된 공민학습반의 보람찬 나날들 그리고 제가 장사길에 나선 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뿌듯이 느끼던 일들에 대하여 말해주군 합니다.

사범학교를 다닐 때 저는 공민권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하였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인생에서 또 한번의 갈림길에 서게 되였다고 할지.

털어놓고 말해서 공민권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조국과 직결된 문제에 귀착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분기점이였다고 말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과정에 가난의 고통도 일정하게 체험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과거사를 통하여, 아니 그보다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겪은 어머니의 고생을 목격하면서 조국의 귀중함을 더 절감한 사람입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더우기는 조국에서 친척방문차로 온 사람들이 조국의 들끓는 현실에 대하여서와 그곳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적시책들에 대하여 말해주는것을 들으며 저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을 품고있었습니다.

조국, 그것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조국이란 하늘중천에 비낀 무지개처럼 황홀하기만 한 허상이 아니라 실재하는 내 강산, 내 겨레, 내 민족인것입니다.

그런즉 조국의 의지는 다름아닌 내 겨레가 내 강토의 주인

이 되고 민족, 인민의 리익에 맞게 모든것이 진행되며 나라의 모든 재부가 오직 겨레에게 속하고 인민의것으로 되며 만백성이 복락을 누리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결국 애국의 진정한 륜리는 이러한 조국의 의지를 따르며 집행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거듭하던 저에게는 불현듯 어느 작가가 한 말이 생각키웠습니다.

《자기 조국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병사가 되여야 한다.》

개인이 자기 조국앞에 지닌 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 이 말은 저의 가슴속에 조국을 알고 민족을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해 공헌하는 애국의 참된 삶을 살고싶은 욕망이 솟구쳐오르게 하였습니다.

이전 쏘련의 작가였던 오스뜨롭스끼는 전신이 마비되고 두눈이 먼 어려운 속에서도 놀라운 의지력으로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를 써내여 사람들에게 참된 삶이란 무엇이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의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 한번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없이 산 지난날때문에 뼈저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비굴하고 너절한 과거때문에 치욕을 맛보지 않도록 그리고 죽으면서도 모든 생명과 모든 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고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마침내 저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사람이 자기 조국에 얼마나 참답게 이바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럴수록 조국을 알게 해주고 민족을 알게 해주었으며 애국의 마음을 키워준 할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조국의 숨결을 감각하며 조선인소학교와 조선인중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던 나날들이 못견디게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조선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참답게, 당당하게 살려는 강한 조국의식인가 봅니다.

이러한 의식의 작용은 저에게 조국의 해외공민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하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공민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이젠 나도 당당한 조선공민이다.)

그무렵 저처럼 조국의 해외공민증을 수여받은 동포들은 몇개월사이에만도 수천여명에 달하였습니다.

저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인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공민학습반에 망라되여 활동하였습니다.

공민학습반이란 말그대로 조선사람들의 학습단체로서 1958년 중국정부와의 합의하에 조직된 공민교양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조선공민들에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조국의 현실, 조선의 력사와 지리를 가르쳐주어 조국을 알게 하며 나아가서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욱 공고히 하는데로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을 지향시켜나가도록 합니다.

공민학습반에 망라되여 활동한 나날은 저로 하여금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한 나날이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참답게 살아야 한다는 애국의 진리를 체득하게 해준 공민학습반을 저는 사랑합니다.

공민학습반에 망라된 저는 학습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습반은 활기있게 운영되였습니다.

학습반의 모든 일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된것은 아니였습니다.

우리 학습반에는 나이와 직업, 성별과 지식수준이 각이한 10여명의 성원들이 망라되여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습반운영에서는 여러가지 애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합쳐가며 그러한 애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갔습니다.

학습반성원들의 리해를 돕기 위해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과 조선력사와 지리를 알기 쉽고 통속적인 말로, 때로는 지난날 나라없던탓에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생활과 결부하여 학습을 진행하군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습에 참가하지 못한 성원들이 있으면 그들의 집에 찾아가 학습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학습반을 한달에 두세번정도 운영하였는데 대체로 우

리 집에서 진행하군 하였습니다.

당시 어느 가정에서나 식량사정이 곤난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 팔아 살아가는 우리 집도 례외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저의 활동을 지지해주었으며 두팔 걷고 도와주었습니다.

학습반이 운영되는 날이면 학습반의 성원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수수쌀을 망에 갈아 지짐을 지지기도 하였으며 어떤 날에는 팔려고 만들어놓았던 떡을 통채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애국의 길로 저를 말없이 떠밀어준 어머니의 숨은 공로가 깃들어있는것입니다.

학습반에서 동포들과 함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동을 벌리는 과정은 저자신을 정신육체적으로 수양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동포들과 어울려 배구와 탁구, 수영경기도 하고 오락도 즐기면서 공민학습반운영을 활발히 벌려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곧 조국과 더불어 삶을 빛내이려는 우리의 애국적열성의 발현이였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공민학습반을 운영하던 나날중에서 조국의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동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뛰여다니던 일들이 제일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가 1972년 이전 체스

끄슬로벤스끄에서 진행된 제18차 까를로비와리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고있었습니다.

역시 《꽃파는 처녀》는 특별상을 받을만 한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녀주인공 꽃분이일가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자면 혁명을 해야 하고 혁명을 하려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천대받고 억압받는 근로대중이 살길은 오직 혁명이며 개인의 운명을 혁명위업과 결부시키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굴함없이 싸워야 한다는것,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진리를 강한 설득력으로 가르쳐주는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인식교양적의의가 매우 큰 영화였습니다.

물론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은 영화라는데도 있었지만 보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지도밑에 벌써 오래전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고 또 그것이 처음으로 공연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중국 동북지방이였으니만치 이 영화에 대한 동포대중의 감화력은 실로 대단하였습니다.

당시 이 작품을 보고 각성되여 반일전에 떨쳐나섰던 고장들에서 영화에 대한 반향은 말그대로 폭풍 그자체였습니다.

우리들을 찾아와 위대한 주석님께서 항일혁명의 나날에 친히 창작하여 공연하도록 하신 《꽃파는 처녀》를 오늘에 와

서 다시 영화화면을 통해 보게 되니 감회도 새롭고 가슴이 부풀어오른다고 주석님에 대한 경모심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시 우리 공민학습반 성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시로, 농촌으로 뛰여다니며 영화를 방영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힘겨웠지만 동포들이 있는 곳이라면 몇백리나 되는 곳도 주저없이 찾아가군 하였습니다. 숱한 동포들이 이 영화를 보겠다고 밀려왔는데 도무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애로가운데서도 운반수단을 내는 문제가 난문제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운수수단이 긴장한 중국의 지방들에서 자동차를 한번 빌리자면 상당한 돈을 지출해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어디를 려행하자고 해도 많은 품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느라면 우리의 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던 한 동포의 얼굴이 떠오르군 합니다.

이제는 저세상사람이 되였지만 그는 량심이 있고 조국을 극진히 사랑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속에서도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나섰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에는 그런대로 일없었지만 추운 겨울에는 정말 베찼습니다.

동북지방의 그 유명한 강추위속에서 뻐스도 아닌 자동차 적재함에 올라 몇시간동안이나 장거리를 가자니 온몸이 꽁꽁 얼어들군 하였습니다. 몸이 너무 얼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자리에서 일어난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로 된것은 영사기가 얼어드는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 집에서 이불을 들고나왔습니다. 이불에다 영사기와 필림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동포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 고생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동포들이 성의껏 도와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뛰여다니느라 고생은 했지만 일하는 보람을 그때처럼 느껴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어쨌든 성수가 났고 그럴수록 조선공민으로서 조국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진맛을 절감하였습니다.

후날 교원생활을 그만두고 나섰던 장사길에서도 제가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긴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곤명시에서 체험한 일이 그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 중엽의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저는 참대순장사로 돈을 벌어 앞으로 기업을 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운남성 곤명시로 갔습니다.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고급남새인 참대순은 봄철에 수확하군 하는데 기후가 온화한 운남성에서는 질좋은 참대순이

많이 생산되고있었습니다.

기차를 갈아타며 곤명시에 이른 저는 뻐스를 타고 주변의 어느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참대순을 전문적으로 내는 집들이 많았는데 그 질도 좋았고 값도 그만하면 괜찮았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로인내외가 사는 집에 자리를 잡고 며칠동안 마을을 돌면서 참대순을 모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목적했던바를 이룬 저는 떠나기 전에 신세를 많이 진 로인내외에게 인사도 하고 사례도 할겸 해서 소박하게나마 식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속에 서로 자기들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바깥주인은 자기가 한때 곤명시당에서 사업하였는데 이곳에 내려와 사는지 20년이 되여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조선공민이라는것을 알고는 《아, 조선! **김일성**동지!》라고 반색하더니 자기도 그이를 안다고, 20여년전에 곤명에 오셨던 그이를 뵈온적이 있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1965년 4월 어느날 인도네시아를 친선방문하기 위하여 가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태운 특별비행기가 곤명의 비행장에 내리였다.

이날 비행장으로부터 영빈관에 이르는 연도에는 수만명의

관명시민들이 명절옷차림을 하고 떨쳐나 북과 징을 울리며 그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때 시당에서 사업하고있던 나는 영빈관에 도착하신 그이를 가까이에서 뵈옵는 영광을 지니였다.

이미 중앙으로부터 그이에 대한 환영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체류하시는 동안 사소한 불편도 없이 편의를 최대로 보장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와있었다. 이런 지시는 류례없는 것이였다.

이날 저녁 시당과 시정부에서는 그이의 관명시 도착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려고 하였다.

원래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을 공식방문하시는것이 아니라 통과차로 들리신것만큼 이 연회에 참석하시지 않아도 외교의례상 실례될것이 없었다.

이로부터 모든 의례행사를 자기 수령의 건강을 잘 보호하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는 조선동지들이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일수 없는 딱한 사정을 알려왔다.

시당의 책임일군은 성의를 표하지 못하는것을 여간 아쉬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전에 우리 시에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들린적이 있습니다. 의례격식에 따라 연회에 꼭 참가시켜달라는 우리의 청원을 받고 보좌성원들은 대통령을 모셔왔습니다. 연회에 참가하여보니 대통령은 고열로 신고하고있었는데 우리의 마음도 괴로왔습니다. 정말 조선동지들은 자기 수령을 보위하는데서 모범입니다.》

…

그러면서 로인은 엄지손가락을 쳐들어보이며 그런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조선사람들이 정말 부럽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는 제가 조국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안고 이 길에 나섰다는 얘기를 듣더니 자기도 적극 돕겠다고,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계속 오라고 하였습니다.

중국땅 한끝에서 위대한 주석님을 열렬히 흠모하는 평범한 중국로인의 이야기를 듣는 그때의 제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저의 가슴속에는 세인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을 모시고있는 조선민족된 기쁨과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는 자부심, 영광스러운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결의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습니다.

하늘이여, 너는 오늘 어떠한 강토를
너의 넓은 품에 안았느냐
얼마나 풍요한 대지, 들끓는 생활
얼마나 높은 긍지와 자랑을
너는 푸른 날개로 품고있느냐

…

우리의 령토는 예나 다름없으련마는
위대하여라 우리 조국은!
나는 이제 나의 가슴에
우리 조국의 이 크기, 이 무게
이 약동과 전변을
다 안을수 없을것 같구나

— 서정시 《조선의 하늘》중에서 —

2. 조국의 하늘은 푸르다

□ 덕과 정이 넘치는 땅

남이 없는 집

저는 언제인가 《서방의 눈으로 본 이슬람교도》라는 책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씌여져있었습니다.

《천국을 찾아 헤매이다 돌아와보니 집이 천국이로다.》

가족이 사는 집, 여기에서는 피와 살을 나눈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삽니다. 이 아늑한 공간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도, 권력다툼도, 숨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심신이 가장 안정되고 편한 곳으로서의 집을 《천국》이라 하였던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들 누구나 그토록 소원했던, 제가 찾은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한 재일동포녀류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간 하겠습니다.

그는 몇해전 자기가 여러차례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 느낀 소감을 자기 인생과 가족이야기를 통해 담은 책을 남조

선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책이 출판되여 나가자 남조선의 각계층은 《6.25전쟁전후를 밝혀줬던 버체트로부터 그 이후의 루이저 린저가 증언해주었던 북의 실체가 분단의 렌즈가 아닌 통일과 민족의 실체로 새삼 다가온다. 그 조국이 마음에 뿌리내리고있음을 그녀는 자각한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녀류작가는 우리 조국의 체제나 사회주의사상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언론들이 보도했듯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좋은 느낌으로 와닿는 아름다운 국명, 내게는 환상의 조국이다.》

높은 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하늘의 높이를 모르고 깊은 못가에 가보지 않고서는 땅의 두터이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조국땅을 밟기 전까지는 그 위대함에 대하여, 그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하여 다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찾는 걸음이 잦아질수록 우리 조국이야말로 사회전체가 남이 없는 우리 집, 남의 아픔을 자기의것으로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끄는 하나의 대가정이라는것을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1997년 12월 저는 또다시 조국행렬차에 올랐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

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와 면식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조국에 대한 우려와 동정을 감추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조국을 찾는 저의 마음이 어찌 가벼웠겠습니까.

그러나 조국에서의 하루하루가 흘러갈수록 저의 근심이 괜한것이였음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의 얼굴들에서는 비관이나 절망의 그림자를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다 행복할 래일에 대한 확신이 력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이름할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보다 저에게 더 큰 힘을 안겨준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조국인민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때 조국에서 방문길을 이어가고있던 저는 부주의로 그만 손가방을 잃어버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안에는 거액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 쓰려 했던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루한시도 살아갈수 없고 밖에 나선다는것은 곧 자기가 걷는 한발자국한발자국에 돈을 뿌리는것이기도 한것이 바로 이국살이입니다.

그러고보면 들고다니는 돈가방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생명이고 명예이고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차례의 조국방문과정에 처음 당하는 《봉변》이다보니 어지간히 당황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평양에 와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친절히 맞아주고 참관시켜주고 봉사해주면서도 돈, 돈 하며 손을 내밀거나 돈때문에 큰소리를 치고 얼굴을 붉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쉬운대로 찾는것을 포기하고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저에게는 평양에서라고 어찌 돈을 노리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수 있으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모든것이 어려운 지금에야…

그러던 그 손가방이 불쑥 내앞에 나타날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안내를 맡아하던 조국의 한 녀성일군이 내미는 손가방을 보는 순간 저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연한 밤색이 나면서 거부기잔등처럼 얼기설기한 손가방은 첫눈에도 나의 손때가 묻은것이라는것이 확연하였습니다.

(이 가방이 어떻게 나졌는가?)

퀭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서 좀처럼 가방을 받으려 하지 않는 저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며 그 일군이 자초지종을 터놓았습니다.

전날 공원관리원이 청소를 하다가 그 돈가방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호텔에서 일찍 나와 앞에 있는 공원의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안내원이 나타나자 바삐 달려가면서 그만 가방을 잊고 갔던것입니다.

공원관리원은 돈가방을 그냥 놓아둔채로 임자가 나타나지

않을가 해서 한참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분명 호텔에서 숙식하는이들중에서 누가 실수한것 같은데 좀처럼 찾는 사람이 없었던것입니다.

(가방을 잃은것을 알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가.)

공원관리원녀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식경이 지나도록 손가방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것을 가지고 호텔의 해당 일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공원에서 가방을 얻게 된 경위를 말하고 그것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는가고, 어떻게 하든지 임자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답니다.

그렇게 되여 돈가방은 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였던것입니다.

《선생님, 가방을 열어보세요. 가방을 얻은 녀인과 호텔일군들이 혹시 가방안에 있는것이 정확한지 알아봐서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가방을 받아쥔 저의 손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아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조국에서는 얻은 물건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은 들어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당하고보니,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다시 찾게 되였으니 선듯 믿게 되지 않았던것입니다.

안내원은 나의 심정이 리해된다는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심정은 리해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선 이런

일이 놀랍거나 신기한것이 아니라 례사로운 미덕이랍니다.》

정말이지 남의 불행을 자기의것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자기와 남사이의 거리를 엄격히 두고 사는 존재들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였습니다.

남을 모르는 사회,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정과 사랑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소중한 체험이였습니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조국을 찾았던 저는 문수기능회복원에서 얼마동안 회복치료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10여년전에 차사고를 당했던 저는 그 후유증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써가며 여러 병원들도 찾아다녀보았고 특효가 있다는 귀한 약들도 적지 않게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였습니다.

그러던것을 그무렵 조국의 고려의학연구원에 와서 치료받고 언제 그랬던가싶이 완쾌될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고려의학연구원에 입원하여 조국에서 실시되고있는 무상치료제의 고마움에 대하여, 고려의학의 발전모습을 직접 목격하던 과정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의 은정속에 제가 고려의학연구원에 이어 문수기능회복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저는 삼륜차에 앉은채 사람들속에 둘러싸여 밝게 웃고있는

10대 초반의 한 소녀와 통성하게 되였습니다.

이름은 안정심,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의 어느 한 학원원아…

부모를 일찍 여읜 소녀, 게다가 하반신마비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합병으로 한때 생명이 마지막계선에 이르렀었다는 소녀.

인간의 정이 사막의 물처럼 깡그리 증발해버리고 모든것이 오직 돈에 의해서만 계산되는 랭혹한 사회였다면 최하층에서 버림받다가 이미전에 생을 마쳤을 그였습니다.

그러했을 소녀가 행복동이가 되여 뭇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속에 두번다시 태여날수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가 저에게 안겨준것은 감동 그 이상이였습니다.

그해 3월 어느날이였다고 합니다.

어느 한 학원을 찾았던 조국의 보건성 일군들은 이곳에 하반신마비로 고통을 겪는 한 원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가 바로 안정심소녀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그들은 한 원아의 운명을 놓고 자기 자식의 일처럼 가슴아파하면서 심중한 론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우리 원아들의 얼굴에는 한점의 그늘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모은 그들은 안정심소녀의 병치료를 스스로 맡아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소행은 《너》와 《나》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조국인민들의 깨끗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 원아의 소생을 예고하는 희망의 첫 싹으로 되였습니다.

정심소녀는 이렇게 되여 유능한 의사들의 검진을 받은데 이어 어느 한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게 되였습니다.

여러명이나 되는 보건일군들의 피가 생명의 젖줄기가 되여 정심소녀의 몸에 흘러든데 대하여서는 구태여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술후 한달만에 그는 드디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성이 깃들어있었습니다.

그의 몸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일이다싶이 밤을 밝히면서 누구보다 마음을 많이 썼고 명절이면 마치 친손녀가 입원한듯 온 가족을 데리고 호실에 찾아와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인정많은 원장선생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페를 끼치는것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음식을 잘 들지 않고 속태우는 정심이에게 친어머니처럼 따뜻한 정을 부어주며 정성껏 보살펴준 학원의 간호원, 정심이를 제살붙이처럼 꼭 붙안고 치료 전 과정에 온갖 정성을 바쳐온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원이며 어쩌다 맛좋은것이 생겨도 저마다 정심이를 생각하여 가져오고 그가 적적해할세라 늘 관심해주고 세심히 보살펴준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 귀한 약재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정심이를 기쁘게 하여주고 신심을 가지도록 고무해준

보건성의 일군들…

이들에게 있어서 정심소녀는 남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였습니다.

그해 6월 정심소녀는 평양의 어느 한 병원으로 옮겨와 계속 치료를 받게 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회복치료를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는 새로운 담당의사, 담당간호원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성의 일군들과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정심이, 정심이 하면서 그를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주려고 왼심을 썼습니다. 낯모를 사람들도 그를 찾아와 따뜻이 돌봐주었습니다.

정심소녀는 마침내 자기의 두발로 땅을 디디고 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수기능회복원에서 그의 운동회복치료를 맡아나섰습니다.

이렇듯 정심소녀는 남이 아닌 《우리》들의 사랑속에 기적적으로 소생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수기능회복원에서도 《우리》들의 보살핌속에 치료를 받고있었던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두달후 저는 조국에 다시 온 기회에 안정심소녀의 그간 형편에 대하여 안내원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며칠후 안내원은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주는것이였습니다.

한손으로 벽을 짚고 걸음을 뗄수 있게 되자 정심소녀는 또다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옮겨가 한달나마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지금은 지팽이나 보호자가 없이도 자

기 발로 대지를 활보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며칠 내에 퇴원한다는 소식까지 알려주는것이였습니다.

저는 병을 이기고 일어선 정심소녀가 보고싶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호실에는 그가 없었습니다.

함께 입원해있는 아이들의 말이 그가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해서부터는 호실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것이였습니다.

정심소녀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한달 남짓한 기간의 이야기에 대하여 저는 정심소녀와 그또래 아이들이 자기의 책에 또박또박 쓴 몇줄의 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저녁식사가 끝날무렵 보건성의 국장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왔다. 나는 정말 기뻤다.

우리 호실의 동무들은 이런 나를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치료를 다 마치고 학원에 가면 모든 과목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며 꼭 미술소조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온 한해동안 나에게 사랑을 기울여준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겠다.》

《내가 아침에 치료를 받고 호실에 들어오니 낯모를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은 정심언니의 면회를 왔던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바람이 쌩쌩 부는 날에 왜 면회를 왔을가 하고 간호원아지미에게 물었다. 간호원아지미는 우리는 모두 한

가정, 한식솔이기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있는 호실에는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은 정심이라는 동무가 있다. 나는 처음 나와 나이도 꼭같은 저 동무가 부모도 없이 얼마나 쓸쓸해할가 하는 생각에 솔직히 동정까지 갔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언제나 엄마같은 간호원아지미가 그를 돌봐주고있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그의 병문안을 오고있다. 병원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정심동무의 병을 하루빨리 완쾌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정말 친부모도 줄수 없는 혈육의 정이 정심동무에게 미쳐지고있다.》…

정심소녀에게는 이렇듯 어디서나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는 행복의 보금자리, 남이 없는 따뜻한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족과도 같은 많은 사람들의 진정어린 관심과 보살핌속에 그렇게도 다시 밟고싶던 이 땅을 마음껏 밟을수 있게 되였던것입니다.

2017년 12월 안정심소녀가 자기 발로 걸어서 다시 학원구내에 들어설 때까지 240여일간 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은 4개, 직접 치료에 참가한 의료일군들은 10여명, 치료를 조직해주고 친혈육의 정으로 보살펴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무려 수백여명…

정이란 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돈으로 팔고사는 것은 더우기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주는것이지 대가를 바라

는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이란 마음의 온기이고 미소이기때문입니다.

정녕 저의 눈에 비낀 조국은 사회전체가 사랑과 정으로 결합된 한가족, 남이 없는 하나의 대가정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국인민들에게는 례상사이고 외국인들이나 해외동포들의 눈에는 리해되기 어려운 현상들을 보면 왜 조국인민들이 자기 조국을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고 하는지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그들에게는 부족한것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적부를 기본적으로 념두에 둔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이상의것 즉 사회적관계속에서의 인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 어느 나라들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조국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갈피속에 깊숙이 자리잡은지 오랩니다.

부모없는 자식들을 스스로 데려다 키우는 《처녀어머니》들도 있고 두눈을 잃거나 팔다리가 없는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함께 하는 청년들과 자식없는 늙은이들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기에 돈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되는 사회에서는 흔히 있기마련인 악과 악의 싸움도, 힘있는자가 약자를 침해하는것과 같은 현상이란 찾아볼수조차 없는 사회가 바로 우리 조국입니다.

이런 사회가 개인주의에 물젖어 《너》 아니면 《나》라는 가치관이 판을 치는 사회와 대비조차 할수없이 고상하고 위대하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인가 저는 중국에 나와 사업하고있는 조국의 한 청년을 대련에서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귀국하면 인차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그에게 새 가정을 꾸리면 앞으로 무엇을 차려놓고싶은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이 인상적이였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한생 갖추고 살아야 할 가정재산항목을 부디 알려드린다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웃음이고 셋째는 화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만 되면 자기 부모들과 동네사람들이 제일 기뻐한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롭게 안겨오는것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순결한 정신세계를 지니고있는 청년들에 의해 하나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서로서로 마음을 잇대고 사랑하며 정을 나누기에 우리 조국이 남이 없는 집,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더욱 굳건해지고있다는것을.

아낌이 없는 사람들

일찌기 고대의 어느 한 시인은 《남을 위해 자기 생을 바친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더 오래 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뭇사람들의 기억에 아무런 자욱도 남기지 않지만 남을 위해 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랜 추억을 남긴다는 의미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인간은 오래전부터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친 사람들을 찬미해왔습니다.

저도 한때 크게 감동한바 있는 슈바이쳐의 생애와 활동이 하나의 례로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이췰란드태생인 슈바이쳐로 말하면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로서 철학가, 의사, 음악가이기도 한 열렬한 인간애의 소유자였고 또 그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십자가》, 《인간구제의 거성》으로 존경받을만큼 버림받고 병마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열대밀림속에 자선병원을 세워놓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말그대로 희생성을 발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성은 극상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의 몇몇 환자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자신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충정을 바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숭고한 정신의 체현자들이 바로 조국의 인민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국땅에서 직접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조국의 넓은 땅을 적시며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느라면 북창군이 나집니다. 읍에서 북쪽으로 40여리쯤 더 가면 회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높고낮은 산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지금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모네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이모는 이곳에 위치하고있는 탄광에서 수십여년을 성실하게 일해오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표창과 훈장, 메달을 받았습니다.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돼지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들을 길러 탄부들의 석탄생산을 물심량면으로 고무해주다가 몇해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20여년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를 부둥켜안고 눈물쏟던 이모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모와 헤여지면서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모에게 남긴 마지막말이 될줄이야…

저는 이모와 한 약속을 지키고싶은 마음에서 그후 조국으로 나온 기회에 이곳을 여러번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모사촌형제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그들에게서 이모가 걸어온 긍지높은 인생길에 대하여, 더우기는 이 땅에서 살고있는 인간

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어느날 저는 이곳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화전민들의 한숨소리만 들려오던 회안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것은 이곳에서 석탄이 발견되고 탄광이 들어서면서부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에는 석탄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모사촌형제들도 모두 이곳 탄광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탄광의 한 평범한 녀인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속에 접할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춘화, 직업은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회안청년탄광 로동보호물자공급과 부원, 근 30년세월 특류영예군인과 한가정을 이루고 그의 건강을 돌봐오는 녀인.

(아니, 한두해도 아니고 근 30년씩이나?!)

인간의 한생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작은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가정생활 30년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생의 모든것을 두눈과 두팔, 한다리를 잃은 특류영예군인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다니?!)

더우기 놀라운것은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보고 직장일을 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두 아들을 인민군대의 어엿한 군관으로 키워 내세웠을뿐아니라 탄광사람들모두가 존경하며 사랑하는 성실한 후방일군이라는것이였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충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이모사촌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았습

니다.

인사를 나누는 김춘화녀성은 조국땅 어디서나 만나볼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의 녀인이였습니다.

크지 않은 체구에 푸수한 얼굴, 녀인이 걸어온 삶의 자욱자욱을 말해주는듯 한 거쿨진 손…

찾아온 용건을 들은 춘화녀성은 이 땅의 녀인이라면 응당할 일을 한것뿐이라고, 남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용히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저의 눈에는 그의 이러한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안겨왔습니다.

여러번 간청하다싶이 해서야 춘화녀성은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에 대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고향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강선이며 처녀시절 어느 한 연구소 실험공으로 일하면서 지방에 시료채취작업을 나갔다가 그곳의 한 녀인으로부터 우연히 한 영예군인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는 이야기, 그로부터 북창군의 회안탄광(당시)지구에 사는 자기의 사촌동생인 그 영예군인의 집주소와 략도까지 받던 이야기, 선뜻 찾아갈 결심을 내리지 못하다가 전쟁로병이였던 아버지가 림종의 시각 자식들에게 남긴 말에서 고무를 받고 마침내 결심을 내린 이야기, 결혼초기 남편의 위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동네방네 다니면서 위병에 좋다는 약처방은 다 적어오고 삽주뿌리를 찾아 뒤산에도 오르고 해발 1 000m가 넘는 후선유봉의

가파로운 골짜기도 살살이 훑던 이야기…

춘화녀성은 비록 말하지 않았지만 특류영예군인인 남편을 위해 바치는 그의 육체적부담이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것이였음을 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단 한번도 볼수 없었을것입니다.

이른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안해의 온몸에 줄지어 흐른 땀방울을, 조국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련의 시기 자기 밥사발은 비여두고 남편과 어린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다 떠먹이며 당신은 식사를 안하는가고 물으면 빈숟가락소리를 내던 그 갸륵한 모습을, 신병으로 앓으면서도 앞 못 보는 남편이 눈치챌세라 터져나오는 신음을 애써 참으며 시중을 든 사실을.

물론 김춘화녀성의 소행은 범상한것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 결혼식을 한 때로부터 얼마 안되던 어느날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았다.

그때 나라의 방방곡곡에 사는 특류영예군인의 안해들이 나란히 당중앙위원회뜨락에 들어섰다.

그중에서 제일 애젊은 새각시, 여직껏 군당위원회마당에도 별로 들어서본적 없는 24살의 나는 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당중앙위원회 구내길을 꿈속인양 걸어갔다.

우리들을 마중한 사람은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특류영

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건강을 지성껏 돌보아주며 자식들도 잘 키우고있는 동무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은정어린 선물을 안겨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창문가로 흘러드는 눈부신 해살에 유난히 빛을 뿜는 록음기, 라지오가 달린 전축이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한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졌다.

정말 기특한 소행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의 명의로 사랑의 선물을 마련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 특류영예군인들가운데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텔레비죤보다 소리방송과 음악을 다 들을수 있는 전축이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영예군인가정들에 안겨줄 선물을 몸소 선정하여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수여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나를 비롯한 영예군인의 안해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

아직은 첫 자욱을 내디딘데 불과한 그에게 안겨진 나라의 믿음과 은정, 이것은 춘화녀성으로 하여금 인생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게 한 마음의 기둥으로 되였습니다.

조국에서는 특류영예군인의 안해라는 말자체가 직업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특류영예군인들을 돌보는 일이 하도 중하기에 국가에서는 안해들이 그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었던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은덕에 적으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스스로 일감을 찾아나섰습니다.

어뜩새벽에 일어나 터발김을 매고 빨래를 하며 약초를 달

이는 등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모두 찾아한 그는 남편에게 식사까지 시키고는 일터로 향하군 하였습니다.

탄광으로 출근한지 몇해후부터 그는 로동보호물자공급과에서 일하게 되였습니다. 탄부들의 건강증진에 돌려지는 국가의 배려가 크기때문에 그는 늘 바쁘게 뛰여다녔습니다. 그래도 즐겁고 보람차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그는 출퇴근길에 배낭을 지고 다니며 수집한 파비닐은 공장에 보내여 탄부들의 안전모를 마련하였고 낡은 천으로는 로동장갑을 만들었습니다. 영예군인을 돌보며 직장일을 하는 딸이 걱정스러워 강선에서 짐을 아예 싸가지고 회안땅으로 옮겨온 그의 어머니도 번갈아 가며 재봉기를 돌렸습니다. 자기의 지성이 슴배인 안전모와 로동장갑을 탄부들에게 나누어줄 때 춘화녀성은 삶의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발동하여 수십리 떨어진 곳의 돌밭을 일구고 축산토대를 강화하여 탄부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였으며 지난 수십년간 해마다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자신을 따라세울 높은 열의를 안고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대학공부도 하였습니다.

탄광마을의 한집에 부모를 잃은 2살, 6살짜리 오누이가 있다는것을 알고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들을 데려다 몸이 허약한 애들을 정성껏 구완하기도 하였고 자식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여러 건설장과 전력생산기지로 경제선동의 길을 이

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보답의 일념을 안고 일해나가는 그에게 조국에서는 더 큰 은정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의 두 아들이 혁명학원에서 공부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었으며 2010년 가을에는 김춘화녀성에게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을 안겨주었습니다. 탄광에서 오랜 기간 일한 공로자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 그의 가슴에 빛날 때 회안땅의 탄부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받은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 그것은 열화같은 조국애, 참된 공민의 백옥같은 량심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승용차안에서도 저는 김춘화녀성의 소행에서 받은 감동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때 승용차의 록음기에서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자기 기분에 심취되여있다보니 처음에는 그 노래를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온몸이 귀가 된듯이 노래를 빨아들였습니다.

…
그대를 지키는 성스런 이 길에
후대들 누려갈 행복도 있어라
값높이 바치는 오늘의 애국은
내 나라 번영의 초석이 되리라

(후렴)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한생을 바치자 위대한 내 조국에

곡도 마음에 들었지만 보다는 가사가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안내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자 록음기에서 나온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어느 노래말입니까?》

《어머니조국에 심장을 바치자는 그 노래말이요.》

《예— 알만 합니다. 선생님, 그 노래제목은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이랍니다.》

쿵—

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바로 이것이다. 자기 심장을 조국에 바치지 않고서는 사는 보람도 행복도 없기에 조국인민들은 부강조국건설에 자신들의 피와 땀, 생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것 아니겠는가.)

오늘 조국땅에서는 김춘화녀성처럼 특류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거나 한겨울에 물에 빠진 이름모를 아이들을 건져내고 위급한 순간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일상사로 되고있습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물과 멀리 떨어져있는 섬마을분교며 외진 산골마을의 학교

들에 자원진출한 교원, 대학졸업생들과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앞장서 달려가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부강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청년들…

저는 올해 5월 삼지연군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로 특색있게 꾸리는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저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가지고 삼지연군 읍지구건설현장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읍지구와 무봉지구에 새로 일떠선 근 2 000세대에 달하는 살림집들과 수십여동의 공공 및 생산건물이며 시설물들은 주변의 풍치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 모든 건물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는 사실자체도 놀라왔거니와 고층살림집과 봉사시설들을 비롯한 새로운 건설대상들의 공사와 살림집개건, 도로정리 등이 립체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건설장의 규모는 더욱 놀라운것이였습니다.

이곳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현장의 여러곳을 돌아본 저는 읍지구에 새로 건설된 어느 한 살림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 집은 세쌍둥이자매가 사는 가정이였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은 평양에서 나서자란 처녀들이였습니다. 말하자면 산골내기가 아닌 도시처녀들이였던것입니다.

(평양처녀들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살게 되였을가? 혹시 말 못할 그 무슨 사연이라도?…)

제가 살고있는 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들에서도 처녀들이 도시에서 사는것을 꿈으로, 희망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많은 처녀들이 도시로 밀려들고있는데 적지 않은 처

녀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각종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처녀들이 화려한 도시를 떠나 멀리 산골로 왔으니 어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쌍둥이자매들은 저의 의문을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 우리는 세상에 태여나자 한날한시에 금반지를 안겨주고 추울세라 아플세라 따뜻이 보살펴준 령도자의 품, 조국의 은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저 정든 수도를 떠나 백두대지로 달려왔다. 그리고 수년세월 백두의 눈보라, 칼바람과 싸우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도 참가하였으며 그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삼지연땅을 더 잘 꾸려갈 마음을 안고 이곳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였다. …

흔히 청춘시절을 인생의 가장 값높은 시절이라고 일러오고 있습니다.

키워주고 보살펴준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도 그것을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세쌍둥이자매들, 그 무엇을 바라고서가 아니라 보답의 일념 안고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 조국의 청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돈과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다른 나라의 청년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저를 보며 그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보답의 마음뿐인 저희들에게 더 큰 은정을 안겨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달전 저희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정말 기특하다고, 시대가 낳은 청년들의 미덕이고 본보기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자신께 꼭 편지를 쓰라고 하시며 우리들의 크지 않은 소행을 치하하시고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저에게는 자기 령도자의 은정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떨쳐나선 인민의 기세는 그 무엇으로 꺾을수도 막을수도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창밖으로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이 땅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참된 인간들의 대오가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그로 하여 부강번영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듯 소담한 구름송이들이 꽃주단처럼 가없이 펼쳐져있었습니다.

□ 놀라움과 경탄

옛날에 뽕밭을 가꾸며 살아가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자기의 뽕밭을 찾아가던 농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푸른 바다가 출렁이고있었던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해진 농부는 허둥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

니다.

아무리 보아도 전날까지 뽕잎이 푸르렀던 자기의 밭이 분명하였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뽕밭이 하루밤사이에 바다로 변했으니 농부의 놀라움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 고사로부터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성구가 유래되였다고 합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된다는 뜻의 이 성구는 자연이나 사회가 놀랍게 변화되는것 즉 천지개벽에 비겨 일러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조국에서는 불과 몇해사이에 이러한 성구에 걸맞는 새로운 선경들이 련이어 펼쳐져 세인을 놀래우고있습니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보금자리들이며 릉라인민유원지, 릉라곱등어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과 같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

저는 조국에 올 때마다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군 합니다. 말그대로 1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것이 조국의 현실입니다.

두해전 5월의 화창한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당시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저는 유럽과 아메리카주에서 온 동포들과 함께 새로 일떠선 려명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일행속에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70이 넘은 최녀사와 12살 난 그의 손녀도 있었습니다.

최녀사는 제가 사업상관계로 이미전부터 잘 알고지내는 동포기업가녀성입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벽성군인 그는 4살때 미군의 원자탄위협에 속은 부모들을 따라서 남으로 갔다가 1970년대초 미국으로 이민갔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공화국방문의사를 표명해오던 그는 생전에 기어이 고향땅을 밟아보겠다는 결심을 품고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도중에 카나다에서 살고있는 작은아들네 집에 들렸었는데 12살 난 손녀에게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은 마음에서 그애와 함께 공화국을 방문하였던것입니다.

려명거리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서로서로 키돋움하며 우아하고 황홀한 자태를 시위하는것만 같은 70층, 55층의 초고층건축군이며 병풍식, 탑식 등 특색있으면서도 아담한감을 주는 다층건축군, 각이한 록화기술이 도입된 지붕들, 특색있게 꾸려진 봉사망들이며 탁아소와 유치원, 세탁소, 체신소 등 공공건물들…

제각기 손전화기를 꺼내들고 거리의 모습을 찍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 동포가 공원에서 어린애의 손목을 잡고 산보하고있는 나

이지숙한 녀성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니 려명거리에서 사는가고 물었습니다.

그 녀성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동포가 나서며 직업이 무엇인가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이라고 대답하자 일행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이런 호화거리에서 교원들과 연구사들,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머리속에서는 동포들의 말이 떠날줄 몰랐습니다.

이런 호화거리에서 교원들이 산다!

이 세상에는 제나름의 특색과 고도문명을 자랑하는 번화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살고있는 나라들에도 특색있는 모양의 건축물들로 유명해진 거리, 첨단기술이 도입되여 화려함과 문명함을 자랑하는 거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서 이들이 웅장화려한 조국의 려명거리에서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과 근로자들이 살고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로 해석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나라들에 건설된 번화가들과 조국에서 려명거리를 비롯한 여러 거리들을 일떠세운 목적이 근본적으로 차이난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고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번화한 거리들은 하나같이 돈, 리윤을 목

적으로 하여 건설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겉으로는 장식등의 령롱한 빛이 번쩍이고 각종 광고판과 장식들로 요란하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모습에 있는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근로자들이 최상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조국의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

그러니 그들의 눈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려명거리가 어찌 희한한 거리로 안겨들지 않겠습니까.

그 녀성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구색에 맞게 꾸려진 살림방들과 아늑한 서재, 부엌이며 세면장…

아기자기하게 꾸려진 방에 들어서며 녀인은 손녀애의 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행속에서는 또다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6살밖에 안된 어린이도 당당히 한 방을 차지하고있으니.

《학술교류차로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 나라의 최고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저를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이 제가 이렇게 려명거리의 덩실한 새 집을 무상으로 받은줄 알면 놀랄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매 세대의 먹는물보장은 계단식양수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수질 또한 여간만 좋지 않다고, 한겨울에도 지열에 의해 방안온도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되

여있다고 하였습니다.

걸 볼 안이라고 안팎으로 멋쟁이인 이런 살림집에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입사를 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행복에 겨워하는 녀인의 얼굴을 바라보느라니 이전에 어머니가 하던 말이 돌이켜졌습니다.

《집은 가정생활의 요람이니라. 예로부터 이 설음, 저 설음 해도 집없는 설음을 제일 큰 설음이라고 일러오지 않느냐.》

저 하늘을 훨훨 나는 새에게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하거늘 제 집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의 서러운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생활의 보금자리도 없이 한지에서 살아야만 하는 불평등한 사회제도에서 평범한 근로대중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집을 받는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이 아니라 맨땅우에 몸을 웅송그려야 하고 나중에는 한지에 쓰러져 주검이 되여야 하는 랭혹한 사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인것입니다.

우리가 집주인인 녀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초인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반색을 하며 집안으로 한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소개를 하였습니다.

《저의 동생입니다. 우리 대학 력사학부 교원이예요. 동생도 이번에 70층초고층아빠트에 새 집을 받았답니다.》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저의 가슴속에도 긍지가 부풀

어올랐습니다.

(한날한시에 고급주택을 무상으로 받아안은 오누이, 이런 일은 나의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일행은 밝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흥겨운 마음안고 우리가 다달은 곳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황금노을상점앞이였습니다.

이름만 불러봐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상점에 들어서니 손님들이 흥성거렸습니다.

한 녀성은 밀차에 상품들을 실으며 판매원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상품들이 모두 우리것이로구만요. 〈철쭉〉양말, 〈봄향기〉화장품, 비단이불, 어린이옷, 가방… 정말 특색있습니다.》

한편 건재매대앞에서는 한 청년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갖가지 타일 등을 어루쓸며 그는 혼자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건재품들이 정말 괜찮아.》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식료품매대에서는 조국의 상표가 붙은 각종 식료품들을 판매하고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상품, 자기의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들이 다 조국의것이라고 생각하니 상점이름그대로 조국인민들이 누릴 행복의 황금빛노을이 물결쳐오는것만 같았습니다.

자기것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밝은 웃음을 짓는 사람들

의 모습을 보느라니 문득 저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렸던 《조선특유의 사회현상》이라는 글에서는 우리 조국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였었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태여나서부터 사회의 관심속에 인간의 권리를 누려가는 조선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크게 울려나올뿐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치료비, 집값, 세금 등 분노할 조건이 없기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지는 요소들이 조선에는 없으며 반대로 따사로운 해빛과도 같은 인민적시책들만이 실시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사회의 모든 활동에 구현되고있는 조선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사회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녀사와 동석식사를 하면서도 려명거리에서 받은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한창이던 때 식사에 같이 참가하였던 조국의 한 일군이 최녀사의 손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처음 보는 평양에 대한 감상이 어떠냐?》

소녀는 두눈을 깜빡이며 방긋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전 카나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북에는 거지가 많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내에는 낡은 건물이 태반이고 거리는 어둡고 침침해서 혼자 다니기조차 무서운 곳이라는 말도 들었고요.

근데 와서 보니 그와는 달라요. 거지도 없고 시내에는 새로 지은 높은 건물들이 많다는것을 제눈으로 똑바로 확인했거든요. 누구나 근심없이 밝은 얼굴로 명랑하고 친절했어요.

참, 별난 곳이예요. 뭐랄가, 북은 인정의 부자라고 해야할것 같애요.》

소녀의 대답은 소박했으나 의미심장한것이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기특한 말에 놀랐습니다.

《인정의 부자》라는 말은 저도 그때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표현이였습니다.

아직은 사진기와 같은 어린 두뇌에서 어쩌면 그리도 신통한 말이 나올수 있었을가.

더우기 그로 말하면 해외에서 나서자라는 소녀였지만 공화국의 현실을 보는품이 달랐습니다.

옛사람들이 아는것(知之)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것(不知)을 모른다고 하는것이 곧 지(知)라고 하였지만 가식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내는품이 어른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기는 바깥에 있던 사람이 방안의 공기를 더 잘 알수 있듯이 《인정의 빈곤》세상에서만 숨쉬며 살아온 순진한 동심

의 세계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이 신비의 세계로 투영되였을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국방문의 나날 특히 소녀에게 강한 충격을 준것은 학생소년들의 행복하고 부럼없는 생활이였습니다.

한없이 부푼 희망 이들의 웃음에 비꼈나
더없이 소중한 꿈 이들의 밝은 모습에 비꼈나
아름다운 웃음꽃이 만발한 나라
이곳이 바로 조선이여라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으로 더욱 밝던 이 땅에도
밤의 고요가 흘러넘치건만
사랑과 헌신으로 순결한 마음들은
잠들지 못하는 땅
여기가 바로 어머니 내 조국이여라

한잎두잎 엮은 향기론 꽃송이런듯
재능과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창창할 미래로 끝없이 달려가는 조선의 왕들
너희들의 웃음속에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

조국의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듯이 소년궁전무대들에

서 뛰여노는 그지없이 밝고 명랑한 소년소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녀는 자기또래 어린이들에 대한 동경심을 금할수 없었을것입니다.

무릇 세상에는 《까만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굶었어도 《우리는 많이 먹었으니 어서 너나 먹어라.》 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자식들을 더 위해주는 부모들의 말이 《하얀 거짓말》에 속한다면 《까만 거짓말》은 남을 속여 등쳐먹는자들의 언행으로서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폭거에 속한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까만 거짓말》이 많은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하얀 거짓말》이 많은 사회는 미래가 양양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위하는 부모와 같은 정으로 사람들모두가 마음을 나눈다면 엄동설한에도 춥지 않고 굶어도 배고프지 않는법입니다. 반대로 먹을것, 입을것이 많아도 권선징악이 뒤바뀐 세상, 정신적불모지속의 인간들의 삶은 죽음이상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인간의 정신적아름다움은 번쩍거리는 물질적부의 앞에서도 절대로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은 자기보다 남을 위해주는 덕과 정이 넘치는 사회인것으로 하여 남들보다 떳떳하고 긍지높은것이며 그로 하여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그날 숙소의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불밝은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본 새 거리의 문명, 새 생활의 음향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세상사람들이 왜 우리 조국을 부러워하는것인지.

그것은 바로 조국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사람들의 참된 삶의 보금자리이기때문입니다.

조국땅에서 펼쳐지고있는 새 생활은 저의 가슴속에 력사의 이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었습니다.

□ 꽃펴나는 민족성

빛을 뿌리는 력사유적유물

력사유적과 유물들은 해당 나라와 민족이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떤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를 보여주는 실물자료입니다.

거기에는 민족의 력사와 세태풍속 그리고 중요하게는 민족의 넋이 간직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와 민족은 조상전래의 문화유적유물들을 귀중한 유산으로, 후세에 길이 물려줄 국보로 소중히 간직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반만년을 살아오는 과정에 세상에 자랑할만 한 문화를 창조한 슬기로운 민족, 재능있는 민족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진주보석도 주인을 잘 만나야 제 빛을 낼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력사유적유물도 지켜주고 가꾸어주는 품이 있어야 빛을 뿌릴수 있다는것은 인류사가 남긴 교훈의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동네어른들이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국보급의 우리 나라 중요문화재들을 마구 파괴략탈한데 대하여 가슴아픈 얘기를 나누군 하던 모습들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상북도 대구지방에서 살다가 온 장씨성을 가진 로인이 자기가 살던 마을에 기여들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조선문화재를 략탈해간 일제의 만행에 대하여 격분에 차서 말하군 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되기 전부터 우리 마을에는 그 무슨 《측량》을 한답시고 일본놈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그런데 《측량》이란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놈들은 저마다 길이가 한발정도 되는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를 박아넣은 봉대를 들고 마을근처를 돌아치군 하였다. 특히 옛무덤들이 많은 마을뒤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였다.

또한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낡은 초대나 그릇들을 가져오

면 맛있는 사탕을 주겠다고 얼리군 하였다.

그때 철없던 나도 그놈들에게 얼리여 집에서 제사때마다 쓰군 하던 자기로 된 접시를 하나 가져다주었었다.

일본놈은 내가 가져온 접시를 한참이나 보더니 《요시!》하고는 알락달락한 사탕 2알을 집어주었다. 그러면서 집에 이런것이 더 있는가, 있으면 가져오라, 그럼 사탕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였다.

그것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졸경을 치르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후 마을에 수십명의 일본군대가 쓸어들어 마을뒤산에 주둔하였다. 그리고는 그 무슨 훈련중이라고 하면서 마을사람들을 산에 접근시키지도 않았다.

한동안 그곳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일본군대가 철수한 후 산에 올라가보니 옛무덤들은 하나도 성한것이 없이 몽땅 파헤쳐져있었다.

정말 일본놈들은 조상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야만들이였다.

…

언제인가 저는 사업차로 중국에 온 한 재일동포기업가를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저는 그가 우리 민족의 지나온 력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있는 동포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다나니 우리들은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에게 불법적으로 조선을 강점하였던 일제가 력

사유적유물강탈행위를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일본 도쿄에 있는 어느 한 박물관에 조선관계 유물들이 버젓이 진렬소장되여있는데 이것들은 1903년경부터 조선에 건너온 오꾸라라는 일본인기업가가 경상북도 대구지방에 거처하면서 도굴집단과 짜고들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략탈하여 비법적으로 일본으로 빼돌린 력사유물들의 일부라고 합니다.

또한 그 박물관에 진렬소장되여있는 조선관계 력사유물의 건수만 하여도 무려 1 000여점에 달하는데 그가운데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것은 8점, 중요미술품은 30여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제의 문화유물파괴략탈행위가 얼마나 극심하였으면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주임을 지낸 후지다 료사꾸까지도 《고분을 파괴하고 그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서 파는것과 같은 현상은 세계가 넓다 하더라도 조선땅이 유일한 례에 속한다.》고 실토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고 세계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제의 파렴치성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나라를 잃으면 력사유적유물들도 수난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어제날에는 나라를 빼앗겼던탓에 문화재마저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자기 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력사유적유물들도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한때 교단에서 력사를 가르쳤던 경력으로 민족사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있던 저는 이것을 조국방문의 나날에 직접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저는 1997년 12월 조국을 방문하였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국에서 전국문화보존부문 일군열성자회의를 크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였습니다.

다 아시다싶이 그때로 말하면 조국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저는 나라에 국난이 닥쳐오면 문화재보존관리 같은것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놓이기마련이기때문에 문화재가 파손되고 류실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부족하고 공장들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있던 때에 조국에서 경제부문회의도 아니고 문화보존부문 일군들의 회의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큰 규모의 회의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한편 어려운 속에서도 민족성이 체현되여있는 문화유적유물들을 귀중히 여기는 조국의 조치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후 진행한 조국방문의 기회들에 경치가 아름다운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오랜 문화유적들이 많은것으로 하여서도 이름난 구월산과 칠보산, 정방산을 비롯하여 여러 명승고적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

여놓은 문화유적유물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는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고 훌륭하게 꾸려놓은 명승고적지들이여서 그런지 산천초목 하나도 무심히 대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구월산의 월정사를 돌아보고 받은 감동은 류다른것이였습니다.

구월산에서 두번째로 높은 아사봉에 위치하고있는 월정사는 846년 월정대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절로서 1 000여년의 력사를 자랑하고있는 구월산 4대사찰의 하나입니다.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만세루와 명부전, 수월당과 기타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월정사는 중세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족건축유산의 하나입니다.

이 절의 관리원은 근 30년세월 월정사의 관리원으로 한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의 큰 공장에서 기사로 사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한생을 유적관리원으로 살 결심밑에 도시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와서 문화보존부문의 일군이 되였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장마비와 산사태로 건물이 상할세라, 겨울철에는 내려쌓인 눈에서 반사되는 해빛에 의해 절의 단청이 퇴색될세라 휴식날, 명절날이 따로없이 누가 보건말건 심산유곡에

서 묵묵히 일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생활을 택하게 하였겠습니까.

그의 이러한 소행은 그 누구의 부추김에 의한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것은 더우기 아니였습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조국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그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지켜가려는 애국심에 바탕을 두었기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1997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월정사를 찾아주시였을 때 그이께 절의 연혁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는 영광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해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월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월정사에 들리시여 극락보전과 명부전 등 월정사의 여러 유적들과 유물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고 합니다.

월정사를 돌아보시면서 력사문화유적보존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월정사관리원을 몸소 가까이 불러주시고 설명을 아주 잘하였다고, 동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깊은 산속에서 나라의 귀중한 재보인 월정사보존관리를 맡아안고 일을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을 더 많이 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을 잘하기 바란다는 믿음도 안겨주시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긴 그는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보인 월정사를 더 잘 관리하여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가려는 애국의 마음안고 문화유적보존관리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낡아 터지는 기와를 자체로 색갈도 같고 모양도 같은 기와로 교체하면서 절이 조금이라도 퇴색되거나 손색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더우기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식량난을 비롯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고이 간수해두었던 력사유물들을 나라에 바치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높은 정치적 신임과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었습니다.

그후 그는 전국문화보존부문 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하여 토론까지 하였습니다.

비단 이런 이야기는 월정사에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칠보산의 개심사, 박천의 심원사, 고원의 량천사, 금야의 안불사를 비롯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문화유적들마다에서도 애국의 마음이 어린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고 합니다.

조국에서는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민족문화유적들이 잘 보존관리되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의 발원지라는것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도 많이 발굴되였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바에 의하더라도 조국에서는 단군조선의 형성

과정과 그 국가의 사회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유적유물발굴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이미 1990년대 중엽에 노예소유자시기의 순장무덤이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에서 발굴되였습니다. 또한 신석기시대로부터 단군조선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대규모 부락터유적이 평안남도 덕천시에서 발굴되였으며 평양일대에서만도 고인돌무덤 500여기와 돌관무덤 150여기에 대한 발굴사업이 진행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화대군 석성리에서 화산용암속에 묻혀있는 상태로 발굴된 《화대사람》의 화석이며 평양시 삼석구역 표대유적의 신석기시대 대형집자리,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에서 나온 고구려벽화무덤, 평양시 순안구역 구서리에서 나온 고인돌무덤떼를 비롯하여 많은 력사유적들과 질그릇, 돌도끼, 로동도구들이 발굴되였습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화대사람》의 화석은 가장 이른시기에 속하는 고인단계의 인류화석으로서 조선사람이 이 땅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여왔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정립하는데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조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유적유물보존정책에 의하여 유물들이 잘 보존관리되고 적극 발굴되였을뿐아니라 문화유적들도 훌륭히 개건되였습니다.

제가 구월산에 갔을 때 월정사와 함께 돌아본 삼성사도 일제의 야만적인 문화재파괴략탈책동으로 하여 불타버렸던 건물이였는데 조국의 문화유물보존정책에 의하여 2000년 9월에

복원된 문화유적의 하나였습니다.

삼성사뿐이 아닙니다.

지난 전쟁시기 적들의 폭격으로 그 형체마저 없어졌던 황해남도 해주시의 《부용당》이 2003년 10월 련꽃과 같이 아름다운 옛 루정 모습그대로 복원되여 사람들속에서 《해주팔경》, 《해서팔경》의 하나로 전해져내려오던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성의 령통사며 18세기 실학자였던 박지원과 목화솜에서 처음으로 실을 뽑아낸 문래, 《송도3절》의 하나로 이름난 녀류시인 황진이의 묘 등도 개건되였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는 조국에서는 민족문화유산들이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10월 24일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발표하시여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습니다.

가치있는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국의 해당 기관과 일군들은 유적유물발굴사업을 적극 내밀어 최근에만도 적지 않은 력사유적들과 유물들을 새로 발굴고증하였습니다.

그가운데는 평양시 락랑구역과 삼석구역에서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들도 있으며 개성시 해선리에서 발굴된 고

려의 9대왕 덕종과 10대왕 정종의 무덤들인 숙릉과 주릉으로 추정되는 2개의 고려왕릉도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기의 절유적인 광복사터와 고려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한 여러점의 금속활자들과 꽃형청자접시, 원통형청자, 백두산천지호반에서 발굴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 등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묘인 단군릉에 대하여서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이 자주 찾군 하는 단군릉은 세계에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과시하고 우리 민족성원들모두에게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보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왕의 릉답게 웅장하게 꾸려진 단군릉은 1 994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9개의 단으로 올려쌓은 피라미드형의 돌무덤으로서 풍치수려한 강동군의 대박산기슭의 명당자리에 수십정보의 부지를 차지하고 거연히 솟아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에 받들려 솟아오른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유산입니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원시조와 반만년의 민족사를 바로잡아주신 민족의 은인이시고 어버이이십니다.》, 《단군이 고조선의 건국으로 우리 민족의 하늘을 열어 개천절이라 하지만 단군유골의 발굴과 단군릉개건으로 하여 우리 단군민족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단군릉에서 진행된 개천절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들이 남긴 글들중의 일부입니다.

그 어떤 정세의 변화에도 제 할바를 다하고 제 할 말을 다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성이 체현되여있는 문화유산을 고수하며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놓고 저는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정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조국에서 민족성을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우리 민족제일주의에 대하여 당당히 말하고있는것은 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정치의 덕택이 아니겠습니까.

조국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치가 구현되는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고 반만년의 력사를 슬기롭게 개척해오면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데로부터 가지는 긍지와 자부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면 민족적인것을 지켜낼수 없는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민족공동의 재부인 민족문화유산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서도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정치를 지지옹호해야 할것입니다.

민족의 자랑—평양문화어

지나온 인류력사를 돌이켜볼 때 민족의 흥망성쇠는 중요하게 언어의 흥망성쇠도 동반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수많은 언어들가운데서 지배주의, 제국주의의 언어침략과 민족어말살책동으로 하여 얼마나 많은 민족어들이 사멸되였습니까.

언어는 민족성의 뚜렷한 표징이며 민족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민족이 민족으로서 생존해나가자면 피줄의 공통성과 함께 자기의 언어, 민족어를 굳건히 고수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하게 되는 일인 동시에 지나온 민족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언어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하시였습니다.

《내가 그때 일본사람들의 행실가운데서 제일 고약하게 여긴것은 조선사람들더러 조선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하라고 강요하는것이였습니다. 민족이라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우리 말을 떠나서는 조선민족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선말대신 일본말을 쓰라고 한것은 조선민족을 이 세상에서 영영 없애자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어를 잃으면 민족이라는것도 사멸하고맙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회고록에서 쓰신바와 같이 언어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나누는 교제수단, 문화적인 표현수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여있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40여년간에 걸치는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식민지통치하에서도 자기의 말과 글을 지켜냈으며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도 자기의 말과 글, 풍습을 지켜가고있습니다.

설사 피줄이 같다 해도 언어가 다르면 이를 어찌 한동포, 한민족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력사에서 민족의 고유한 언어를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인 사람들이 애국자로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족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절감하며 살아온 해외공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서 생존하고 발전해나가려면 우리 말과 글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 사람들은 《세계화》를 운운하면서 《국제어, 공용어시대》에 민족어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싶습니다.

《지금 자기의 민족어를 <국제어, 공용어>로 만들려는 나라는 있어도 자기 민족어를 버리면서 <국제어, 공용어>를 끌

어들이는 나라는 없다. <세계화>라고 민족어를 버리고 <국제어, 공용어>사용을 론하는것은 오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어를 사멸시켜 민족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려는 반민족적행위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를 둘러봐도 이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잡지에 유럽동맹이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리유에 대해 해설한 글이 실린적이 있었습니다.

글에서는 유럽동맹이 공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리득을 얻게 될것이라는데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유럽동맹에서 해마다 문건을 번역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14억 5 000만US$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럽동맹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동원되는 통역원만 해도 수백명이나 됩니다. 유럽동맹본부에는 수많은 통역원이 있는데 그들은 대량의 문건들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느라 온종일 바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20년전에 성원국들의 민족화페를 대신하는 공동화페인 유로를 도입한 유럽동맹이 공용어를 사용할수 있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하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유럽동맹이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리유에 대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경제적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유럽동맹적으로 공용어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성원국들은 보다 심중한 문제를 고려하고있다. 즉 일단 공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적

측면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된다는것이다.

공용어를 쓰면 매 나라들의 력사가 끊기고 민족성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다원화된 문화들간의 마찰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과학문화의 혁신적인 활력이 상실될것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자기의 민족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언어의 사멸위기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언어를 고수하는 문제가 민족성을 지키고 자기 고유의 문화발전을 담보하는 문제와 직결되여있기때문입니다.

하기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1999년에 해마다 2월 21일을 국제모국어의 날로 정하였으며 2019년 2월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모국어의 날에 즈음한 행사에서 《언어의 다양성보호》라는 주제의 문건을 발표하여 세계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데서 공동인식을 이룩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민족어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은 언어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족어에 다른 나라 말이나 잡탕말이 흘러들면 민족어의 고유한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사멸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특히 력사적조건으로 보나 지정학적요인으로 보나 이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제가 언제인가 보았던 어느 한 출판물에 실린 자료에 의

하면 우리 말과 글은 배우기 쉽고 어휘가 풍부하며 표현이 섬세하고 억양이 부드러운데다가 못하는 말, 못 적는 글이 없을뿐아니라 소리가 류창하고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 사물현상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잘 나타낼수 있는 뛰여난 표현력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언어의 하나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실례로 일본의 가나문자는 300여개정도의 소리만을 표현할수 있지만 우리 글은 무려 1만여개의 소리를 표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글자는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하는데서도 한자에 비할바없이 우월합니다.

우리 말과 글이 이처럼 우수하기때문에 언제인가 프랑스에서 진행된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회의에서 영국의 이름있는 한 언어학자는 우리 글에 대해 발음기관을 형상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것도 독특하지만 기본글자에 획을 더하여 음성학적인 동일계렬의 글자를 파생해내는 방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과 글이 그처럼 훌륭하기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도 문맹퇴치사업에서 공적이 있는 나라들에 주는 상을 《훈민정음》을 창제한 우리 나라의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상》으로 정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 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의 대렬이 늘어나 현재 많은 나라의 대학들에서 우리 글을 정규학과목으로 지정하고 배워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말은 있으되 글을 가지고있지 못한 민족들도 수다하다는것을 헤아릴 때 가장 우수한 자기의 말과 글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실로 얼마나 긍지롭습니까.

오늘 조국에서는 옳바른 언어정책을 실시하여 예로부터 써오던 고유조선말이 순수하게 살아남아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되여나가고있습니다.

저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우리 민족어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직접 대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살 때도 여러차례 들군 하였지만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직접 와서 보니 듣던바 그대로 조국에서는 민족어의 순결성이 구현된 평양문화어가 민족의 재보로 널리 활용되고있었습니다.

평양문화어는 단순히 평양지방의 말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평양문화어는 고유한 민족어를 바탕으로 전국각지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좋은 민족어요소들을 다 포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적기호에 맞는 언어이며 우리의 민족성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참다운 언어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이 집대성되여있고 현대적으로 세련된 평양문화어가 있기에 조국에서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언어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는것을 자주 목

격할수 있었습니다.

여러해전 조국에 왔을 때 평양문화어에 우리 말과 글의 순결성이 고수되여있는데 대해 감탄하는 저에게 동행한 조국의 한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94년을 보내고 새해의 첫 사업을 펼쳐나가시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말에 다른 나라 말과 잡탕말이 끼여들지 못하게 하며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쓸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찾으신 어느 한 공장에서 부식물가격표에 외래어가 들어간것을 보시고 우리 말로 고쳐쓸데 대하여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느 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기업소일군이 평양문화어가 아닌 사투리를 쓰는것을 보시고는 문화어를 쓰도록 웃음으로 깨우쳐주기도 하시였답니다.

2008년 6월 어느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새로 개건된 청류관에 나오시여 이곳에서 봉사하는 여러가지 료리들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빨간무우김치라고 씌여진 김치명세표를 보시고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연한 잎줄기가 붙어있는 어린 무우로 만든 김치를 총각김치라고 불렀다고, 빨간무우로 만들었다고 하여도 예로부터 전해오는대로 총각김치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일깨워주시였다고 합니다.

비록 크지 않은 음식이라도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전해오는대로 음식이름을 써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

한 민족애에 저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오늘 조국에서는 리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외래어들이 고유어나 사람들이 알기 쉬운 말로 바뀌여지고있으며 민족적정서와 향취, 향토애가 진하게 풍기는 고유어들이 일상 언어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습니다. 또한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여있으며 민족성이 넘쳐나는 문화어활용수준이 그 사람이 지니고있는 문화수준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되고있습니다.

《말은 곧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품이 언어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용모가 눈으로 보는 초상이라면 말은 귀로 듣는 초상이라고 표현할수 있겠는지…

조국의 그 어디를 가보나 사람들은 남이 듣고도 모를 어렵고 까다로운 한자말이나 외래어대신에 고유한 조선말을 적극 살려쓰고 토배기사투리나 비문화적인 말대신에 평양문화어를 쓰고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도 자주 느끼는 바이지만 조국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있는 인사말과 부름말은 물론 영화나 가극을 하나 감상해도 그렇고 봉사기관들의 간판들이나 상업봉사성원들의 친절한 말들도 모두 평양문화어입니다.

오늘 조국에서는 언어이자 곧 민족이라는 관점밑에 언어의 발전이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도록

확고히 지향시켜나가고있습니다.

하기에 조국에서는 백두의 칼바람정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회주의바다향기, 선편리성, 선미학성, 황금해 등과 같이 새로운 시대어들이 생겨나 사람들에게 생의 활력을 안겨주고 경제건설전반에서 약동하는 기상이 넘치게 합니다.

언어분야에서 민족성이 고수되는것으로 하여 조국의 신문, 통신, 방송과 문학예술은 인민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체모에 맞게 평양문화어와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낡은 한문투의 말들을 고유한 우리 말로 다듬어쓰기 위한 사업뿐아니라 인민들의 요구와 사회주의생활의 요구에 맞게 언어규범화사업이 심화되고있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법과 표준발음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띄여쓰기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민족어를 더욱 세련되고 풍부하고 실효성있는 언어로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언어가 곧 민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평양문화어로 우리말과 글이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조국에 민족의 밝은 앞날이 기약되여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기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양문화어에 민족의 자주와 부흥의 기상이 넘쳐납니다.》

생활속에 넘쳐나는 민족의 향취

언제인가 조선을 다녀간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려행하였다. … 그러나 나는 아무데서도 조선사람들에게서와 같이 이렇게도 친절한 대접을 받아본적이 없다. 조선사람들은 려행자들이 머무르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친절하게 접대해줌으로써 려행자들을 반하게 한다. 세상에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특성을 가진 인민들을 발견하기는 힘들것이다.》

저는 이 말이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에서 오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창조하여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찬미하여 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고유의 아름다운 정신적풍모와 정서가 반영되여있는 례의범절을 비롯한 좋은 풍속들을 수많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한 좋은 풍속들가운데는 우리 민족 누구나가 좋아하는 민속놀이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로동을 사랑하고 언제나 부지런히 일해온 우리 민족은 명절날이나 로동의 쉴참에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하면서 로동의 피로도 풀었으며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군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즐겨한 민속놀이들가운데는 씨름이나 장기와 같이 남자들이 겨루던 민속놀이도 있고 그네뛰기와 널뛰

기와 같이 녀성들이 많이 한 민속놀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띄우기나 숨박곡질, 썰매타기, 팽이치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즐기는 민속놀이도 있고 윷놀이와 같이 남녀로소 가림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민속놀이도 있습니다.

민속놀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뭐니뭐니해도 어릴 때 즐기던 숨박곡질놀이가 제일먼저 떠오르군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범장군 나간다

어릴 때 동네아이들과 숨박곡질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이 노래를 생각하면 손자, 손녀들을 거느린 지금에도 마음은 동심세계에로 되돌아가는것만 같습니다.

오늘 조국에서는 민족체육이 널리 장려되고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향취가 물씬 풍기기때문입니다.

최근년간 조국에서는 해마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가 진행되군 합니다.

바줄당기기와 같은 민족체육경기들과 배구와 같은 구기종목경기들이 련일 성황을 이루며 사람들속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있습니다.

2013년 10월 평양에 체류하고있던 저에게 처음으로 진행되

는 전국도대항체육경기(당시)를 볼수 있는 기회가 차례졌습니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여러 종목들의 결승경기 관람초대장이 저에게 와닿았던것입니다.

《선생님의 일정이 바쁘신데 괜찮겠습니까?》

그 전날 안내녀성이 저의 의향을 물으며 한 말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저는 섭섭한감을 느끼였습니다.

비록 60이 넘었어도 내가 체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가, 그중에서도 씨름에 대하여 내가 전문가들 못지 않게 알고있다는것을 아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웨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자 안내녀성은 내가 대단한 체육애호가인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가벼운 탄성을 올리였습니다.

만일 제가 그 경기들을 관람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일생의 후회를 남길번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일에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102(2013)년 10월 10일 결승경기들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평양체육관에 나오시였던것입니다.

민족체육경기에 대한 저의 남다른 애착이 이런 행운을 가져다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것도 지척에서 뵈옵게 된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저는 선수들과 관람자들과 함

께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이께서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를 보시며 잘 왔다고, 이국살이에 고생이 많겠는데 제 집에서 푹 쉬라고 당부하시는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습니다.

그이께 보람찬 로동생활과정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기술을 익혀온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선수들의 긍지와 기쁨으로 하여 경기장은 마냥 설레였습니다.

이날 평안남도팀과 남포시팀사이의 녀자배구결승경기에 이어 씨름과 바줄당기기와 같은 민족체육경기들과 여러 오락경기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선수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체육기술과 다양한 전술,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날의 여러 경기들중에서도 제일 절정을 이룬것은 역시 씨름경기였습니다.

씨름결승경기에 나선 평안북도팀과 함경남도팀의 선수들은 재치있는 특기들로 치렬한 공방전을 펼쳐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하였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경기장안의 수만명 관중들이 살바를 팽팽히 조이고 배지기와 안걸이, 다리당기기 등 다양한 씨름수법들을 활용하면서 통쾌한 경기장면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응원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의 체질과 정서,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되고 발전되여온 조선씨름은 두사람이 다리에 낀 샅바를 서로 잡고 넘어뜨리기를 겨루는 민족체육종목의 하나입니다.

씨름이란 말은 《겨루다》, 《다투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말인 《힐후다》로부터 유래된것입니다. 즉 《힐후다》가 명사화된 《힐흠》이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과정에 《실흠》→《실음》→《시름》 등으로 말소리변화를 일으켜 지금의 《씨름》으로 고착되였다고 전해져오고있습니다.

건장한 체력과 투지, 슬기와 지혜를 키워주는 조선씨름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근면한 로동과정에 창조되고 발전되여왔습니다.

장천1호무덤과 씨름무덤 등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들에는 몸이 장대한 두 사나이가 샅바를 단단히 틀어잡고 치렬하게 승부를 겨루는 장면이 묘사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씨름이 세나라시기에 벌써 대중화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조선씨름의 오랜 전통을 말해주는 력사적증거입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왕의 호위무사도 씨름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으며 고려시기에는 어느 한 왕이 직접 씨름을 하는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옛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일을 하다가도 쉴참이면 밭머리나 잔디밭, 강가나 바다가의 모래터에서 씨름을 즐겨하였으며 추석을 비롯한 민속명절때에는 경치좋은 장소에 어른, 아이 할것없이 다같이 모여와 씨

름승부를 겨루어왔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의 그림 《씨름》에도 온 동네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즐거운 씨름장면이 마치 살아움직이는듯 한 화폭으로 그려져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씨름이 때와 장소,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진행된 대중적인 민족체육경기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기 위한 힘과 지혜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조선씨름은 일하다 쉴참에도 할수 있고 경기과정에 몸이 상하지 않을 장소이면 그 어디서나 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일단 몸의 한 부위라도 땅에 닿으면 경기의 승패가 즉시 결정되기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지루감을 주지 않습니다.

다리에 샅바를 매고 진행한다는데로부터 얼핏 보면 기술수법이 제한되여있을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 하여 보다 다양한 련결수법들이 적용되여 여러가지 통쾌한 장면들을 펼쳐보일수 있다는데 조선씨름의 우수성의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씨름과 같이 오랜 력사와 다양한 경기수법을 가지고있는 민족체육종목은 아마도 찾아보기가 드물것입니다.

경기를 보고있던 저는 무심결에 안내녀성에게 씨름경기의 상은 무엇인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내녀성은 씨름경기에서 이긴 도에는 예전의 씨름경기들과 같이 소가 차례지는데 거기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올해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만나시여 새로 개건한 평양체육관에서 전국도대항체육경기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 준비를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기종목에 씨름종목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씨름종목을?)

일군들이 생각지 않았던 종목이였다.

사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기 전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나라의 체육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도대항체육경기가 전례없는 규모로 의의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느라 애를 썼다.

경기종목선정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렸지만 씨름종목을 넣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있었다.

리유인즉 해마다 추석을 맞으며 각 도에서 선발된 씨름선수들의 시합이 평양에서 성황리에 벌어지고있었기때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듯 미소를 지으시며 씨름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체육종목이고 모든 도들에서 다하고있는것만큼 이번 경기종목에 포함시키면 여러모로 의의가 있을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씨름경기참가대상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나서 씨름경기에서 1등을 한 도에는 소를 한마리 시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감동은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도대항체육경기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에는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며 그 열풍속에서 우리 민족의 체육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시려는 숭고한 민족애가 흐르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전국도대항체육경기에는 씨름종목이 포함되게 되였으며 이 경기를 통하여 체육사업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높은 열의가 발휘되였다.

…

저는 안내녀성의 이야기를 듣고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가 어떻게 마련될수 있었으며 사람들이 랑만에 넘쳐 민족체육을 즐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후날 알게 되였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를 정례화하고 민족체육에 힘을 넣어 누구나 건장한 체력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날은 잊을수 없는, 아니 일생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을 날이였습니다.

조국을 찾아오는 해외동포들은 민속놀이나 민속명절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민족의 고유한 향취가 풍겨나고있는것을 체감할수 있습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선조들은 태고적부터 이 땅에서 살

아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기후조건과 생산활동방식, 민족적감정과 취미, 생활환경에 맞게 고유의 옷차림풍습을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의 민족옷은 그 형태와 무늬, 색갈 등이 모두 독특하고 우아하며 소박한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세상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조선치마저고리는 조국의 녀성들이 즐겨 입는 민족의상으로서 민족성의 상징으로 되여있습니다.

조국방문의 나날 저자신도 감동받은 일이지만 처녀들이 시집가는 첫날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전통화되여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오가느라면 명절날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날들에도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녀성들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조국에서 민족옷을 얼마나 장려하고있는가 하는것은 해마다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사실과 민족의상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고있는것, 도처에서 조선옷점들이 활발히 운영되고있는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나라없던 어제날에는 조선녀성들이 마음놓고 입을수 없었던 조선치마저고리를 오늘 우리 해외동포들도 민족적존엄과 긍지의 상징으로 너도나도 입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어린 처녀애들로부터 처녀들, 가정주부들,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계절에 맞는 치마저고리들을 갖추어두고있는데 모두가 입고 떨쳐나서면 마치 화려한 꽃바다를 련상

케 합니다.

북남통일행사에 참가하는 조국의 녀성들이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도 우리는 피줄도 하나, 력사도 문화도 하나인 같은 민족이라는 표시이며 통일에 대한 뚜렷한 지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민족체육경기, 민속놀이로 흥성이고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 살아숨쉬고 약동하는 땅, 민족고유의 음식문화가 활짝 꽃펴나고 민족적정서가 짙은 선률과 춤가락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여기에 조국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하기에 《민족과 나》라는 책에서 최덕신선생도 말했고 단군릉의 층계에 올라 재미녀류기자 문명자녀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에 민족의 얼이 살아숨쉰다!

저는 지금도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민족옷인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녀성들, 이름만 들어도 구미가 도는 여러 민족음식전문식당들, 곳곳에서 민속놀이를 즐기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합각지붕을 떠이고 거연히 서있는 인민대학습당을 배경으로 동포들과 기념사진을 찍던 때를 생각하면 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긍지로 가슴부풀어오릅니다.

어느 명인이 말했듯이 민족성을 잃고 민족의 넋을 잃은 민족은 기필코 망하는 법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퇴페적인 생활양식이 매개 나라와 민족의 전통을 좀먹고있지만 조국에서는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

가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풍습과 전통이 찬란히 꽃펴나고있는 것이며 존엄높은 조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인 저희들도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살아가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것을 놓고볼 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홰불과 같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조국은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전통이 더욱 개화만발하는 위대한 력사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장려되는 고려의학

우리 민족이 창조한 유산들가운데는 민족고유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도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이 강산에서, 이 땅에서 나는 약초와 같은 천연물들을 리용하여 병을 치료하고 몸을 튼튼히 해오는 과정에 나온 고려의학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B.C. 30세기초에 세워진 노예소유자국가였던 단군조선의 중앙관직인 8가의 하나에 병치료담당 벼슬인 로가가 있은것은 민족전통의학의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하여줍니다.

고려의학은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치료수준이 높은것으로 해서도 일찍부터 이웃나라들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례를 들어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책에는 《고조선지역의 산우에 옥돌이 많고 그밑에 침돌이 많다.》라는 글이, 《황제소문》이라는 책에는 《뽀두라지…에 대한 치료에는 돌침이 좋다. 돌침은 동방(즉 조선)에서 온것이다.》라고 쓴 글이 있는데 이는 고대시기부터 우리 민족의 치료방법들중의 하나인 돌침료법이 얼마나 유명하였는가를 짐작하게 하여줍니다.

조국에서는 오랜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고려의학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으로서 적극 장려되고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저는 10여년전에 당한 차사고의 후유증으로 하여 오래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환절기때마다 도지군 하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약도 많이 써보았고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고 병상태에서는 차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이 병을 고치기를 포기하고말았었습니다.

이렇듯 본인도 포기했던 병을 조국에 와서 완전히 고칠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조국에서는 제가 오래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고는 고려의학연구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충분히 받을수 있게 체류기일까지 연장해주었습니다.

저는 고려의학연구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서 조국의 고려의학수준을 직접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2001년 4월에 건설된 고려의학연구원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문수거리에 자리잡고있는 민족적형식의 3층짜리의 독특하고 현대적인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외과연구실을 비롯하여 소화기연구실, 소아연구실, 치과연구실, 부인병연구실, 침치료연구실, 회복치료연구실, 뜸치료연구실 등 많은 연구실들이 있어 환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다같이 원만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래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이 전개되여있는데 현대적인 진단 및 치료기구들이 갖추어져있고 과학연구 및 의료봉사활동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을 원만히 할수 있는 실험기구들과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체질을 분류하는 사업과 질병진단 등을 모두 콤퓨터로 하고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곳에는 고려치료를 하다가 제기되는 복부와 팔다리에 대한 크고작은 수술도 원만히 할수 있도록 꾸려진 수술장도 갖추어져있었습니다.

이렇듯 고려의학연구원은 전통적인 고려치료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기관인 동시에 고려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종합적인 고려의학연구기지이였습

니다.

저는 한때 의료기기사업에도 얼마간 관여한바 있어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설비들과 고급한 약재들의 값을 잘 알고있습니다.

조국에서 값비싼 약재들과 치료설비들이 평범한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것을 직접 보면서 저는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명실상부하게 실시되고있음을 두눈으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동안 의사선생들의 치료수준이 높은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자 선생들은 고려의학이 적극 장려되고있는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자상히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조국에서 고려의학을 얼마나 장려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그 어디에 가나 훌륭한 고려의료봉사설비들이 꾸려져있고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구역), 리의 인민병원은 물론 공장, 기업소의 산업병원과 진료소들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고려의학봉사체계가 세워져 사람들이 고려치료를 어디서나 받고있는것과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민족의 전통의학발전과 고려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도서 《고려림상의전》이 출판된것 그리고 고려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진하고있는것을 봐도 잘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고려의학연구원에서 자체의 힘으로 새로 개발하였다는 3대고려의학고전의 하나인 《향약집성방》열람프로그

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향약집성방》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로중례를 비롯한 유명한 고려의학자들이 조선의 약초연구와 그에 기초한 치료경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서술한 전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260여종의 고려의학서적들과 국내외의 의학서적들을 참고로 하여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병치료방법을 확립하고 고려약자원을 리용하여 민간에서도 병을 쉽게 치료할수 있도록 편찬되였습니다.

《향약집성방》은 오늘도 그 실용적 및 문화사적가치가 높아 《의방류취》,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 나라 3대고려의학고전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고려의학연구원의 연구사선생들은 민족의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향약집성방》에 기초하여 치료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람을 개발하는 연구에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그들은 《향약집성방》 원본그대로 된 1만 2 600여건의 화상자료들을 구축하고 원본과 번역문을 동시에 열람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향약집성방》의 959개 고려의학적병증에 해당한 1만 3 300여개의 치료법들을 병증, 고려약처방, 침뜸치료, 민간료법, 식사료법, 침혈, 개별고려약 등 필요한 항목에 따라 검색열람할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람이 전문가들속에서 《향약집성방》의 열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국내의 고려약자원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효능높은 치료법들과 건강약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발할수 있게 한다는 의사선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민족의 슬기로움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탄하였습니다.

선조들이 이룩한 민족문화유산의 보존뿐아니라 활용범위를 확대시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이 프로그람이 제28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을 한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 선생님들의 이야기에서 특히 깊이 느끼게 된것은 고려의학의 발전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로고였습니다.

일찌기 고려의학은 치료방법에서도 좋은 점이 많고 약의 성분구성에서도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좋은 점이 많다고, 고려의학은 신의학으로 고칠수 없는 질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할수 있게 한다고 하시며 고려의학을 장려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라의 고려약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고려약생산기술을 발전시키며 고려약이름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바로잡도록 해주시였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고려의학연구원건설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강력한 전문건설력량을 보내주어 건설을 보장하도록 해주시였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려의학연구원건설과 관련하여 수십여차례나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고려의학연구원의 옆에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치과병

원, 류경안과종합병원들을 련이어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병원건설현장들에 나오시여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병원들이 완공된 다음에는 또다시 병원들을 찾으시여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의사들에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이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병원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로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건강하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뉴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고 그로 하여 그이의 영상이 인민의 마음속에 친어버이의 모습으로 새겨져있는것이구나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새겨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병원들을 새로 일떠세워주시고 평양산원, 옥류아동병원 등 전문병원들의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새롭게 도입된데 맞게 주체105(2016)년 1월에는 고려의학과학원(당시)과 각 도 고려병원들사이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평양에 올라오지 않고도 고려의학연구원의 유능한 의료일군들과 직접 상담하는 과정

에 자기의 몸상태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그에 알맞는 고려의학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국가망이 도입된 모든 단위들에서 이 체계에 대한 리용이 가능한것으로 하여 누구나 자체로 시력과 청력을 판정하고 체질을 분류할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고려의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과 상식을 습득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중앙병원들과 나라의 도, 시, 군인민병원들사이의 먼거리의료봉사를 실시하고있는데 이어 고려의학부문에서도 먼거리의료봉사를 실시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새롭게 구축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보다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조국에서 민족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이 적극 장려되고있기에 저와 같은 해외동포들도 조국에 와서 돈 한푼 안 들이고 병을 완전히 고칠수 있은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난김에 제가 입원해있던 나날에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호실의 바로 옆호실에는 중구역 련화2동에서 산다는 한 녀성환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고려의학연구원에 입원할 당시 그 녀성의 근심은 참으로 컸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가 4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면서 이따금 심장부위의 아픔이 더해져 생활에서 지장을 받고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을 때 숨이 몹시 차 불편을 느낀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혈압내림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들을 먹었으나 그때뿐이지 상태는 의연히 개선되지 않았답니다.

비만증치료에 특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고려의학연구원에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고려의학적치료로 건강이 회복될수 있겠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지 두달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려의학연구원 내과연구소 물질대사연구실 실장선생의 처방에 따라 고려약을 먹으면서 침을 맞으니 입원전에 비해 몸무게가 7kg이나 줄었으며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숨차기 등의 증상들이 없어졌다는것이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몸무게를 줄이려면 식사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군 합니다.

하지만 그 녀성은 입원생활기간 먹고싶은 음식들을 다 맛보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제는 심장부위의 아픔을 모르고있다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곳 물질대사연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중에는 입원한지 40여일만에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면서 비만증으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호전되였다는 50대의 남성도 있었고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임신을 하여 평양산원에서 귀여운 자식을 낳았다는 30대의 녀성도 있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환자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고려약의 처방과 침치료를 위해 바쳐왔을 이곳 의료집단의 정성이 생각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더욱 많아지고있을뿐아니라 난치성질병으로 알려진 비만증을 고려의학적방법으로 치료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지혜와 정성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연구사선생들을 보면서 저는 조국에서의 고려의학발전의 밝은 앞날을 내다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동안 고생하면서도 고치지 못하였던 병을 조국에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돌아오자 동포들은 물론 가까운 중국사람들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행운아라고 하며 부러워하였습니다.

행운아, 사람들은 흔히 좋은 운수를 만난 사람을 가리켜 이 말을 쓰군 합니다.

어제날 조국을 빼앗겼던탓에 식민지불운아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던 우리 동포들이 오늘은 세계에 그 빛을 뿌리는 내 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뭇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대의 행운아로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군 합니다.

《저의 운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당한 내 조국이 있고 조국에서 적극 장려하는 고려의학이 있었기에 병을 고칠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행운아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

고마운 우리 조국이 제일이다.》

저는 오늘도 가슴을 쭉 펴고 애국사업에 헌신하는 우리 해외공민들이 즐겨 부르군 하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를 다시금 절절히 불러봅니다.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말해다오, 이 나라의
산이여 들이여, 강이여 바다여
인민의 만복을 위해 원수님
찬눈비를 맞으며 넘으신 준령은 어디
풍랑을 헤쳐 가고가신 곳은 그 어디

그저 인민밖에 모르시는분
그 인민을 위해 고생도 달게 여기시는분
그이는 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날과 달로
뜨는 해를 맞고 지는 별을 맞으시거니

— 장시 《그이와 인민》중에서 —

3. 매 혹

□ 숭고한 인민관에 접하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시작된 인류정치사의 갈피갈피를 헤쳐보면 실지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일러지는 실례가 별로 없는줄로 압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지난 시기의 국가정치는 문자그대로 백성을 다스리는것으로만 인식되여왔기때문입니다.

고대그리스의 철학가 플라톤은 자기의 《리상국가》론에서 《백성은 복종의 어진 륜리만을 가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세의 유럽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절대권능은 신성화되였습니다.

근세이래 《만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표방되기도 하고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고창되기도 하였지만 이 역시 다스리는 정치의 변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손문도 《국민을 황제로 삼아 전민정치》를 실현해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떠들어대는 나라들의 정

치를 들여다보아도 권력자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로 일관되여있으며 인민은 여전히 정치의 대상 즉 다스림의 대상으로만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정치,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하는 정치가 펼쳐지고있습니다.

락락장송도 근본은 종자이듯이 조국에서 이런 정치가 펼쳐지게 된 그 바탕에는 바로 절세위인들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로부터 세상에는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도 많았고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추구하는 령도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력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현실로 일구어낸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백성을 세상만물을 창조하는 하늘로 높이 내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에는 참으로 뜻깊은 명제가 있습니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라!

바로 여기에 주석님의 투철한 인민관이 함축되여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대한 주석님의 회고록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이의 인민적풍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사범학교시절의 어느 방학때였습니다.

당시 집에 돌아와있던 저는 시내에서 중학교시절의 지우를 우연히 만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였습니다.

마침 그의 집에는 조국에서 온 친척 몇분이 있었습니다.

이국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조국의 소식에 목말라하고 그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국의 소식을 들려줄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요구를 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변이 일어나 공장과 광산, 새 거리와 마을들이 일떠서고있는 소식, 학교갈 나이의 모든 어린이들을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무료교육을 주고있다는 소식…

그중에서도 위대한 주석님의 인민적풍모를 보여주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울려주었습니다.

…

나라가 해방되여 세번째로 맞이하는 위대한 주석님의 탄생일이였다고 한다.

그날 아침 몇몇 항일투사들은 생일을 맞으시는 주석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이의 저택으로 찾아갔다.

마침 그이께서는 아침상을 받고계시였다.

그런데 보통날과 다름없이 검소한 식상을 보는 순간 투사

들은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고 한다.

조국으로 돌아오시여 처음으로 맞으신 생신날은 물론 그 다음해의 생신날도 그냥 지나보내셨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한 투사가 지금은 유격전쟁을 하던 때도 아닌데 오늘은 생신상도 받으시고 하루 휴식하여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주석님께서는 동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나는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저녁에 모여앉아 같이 밥이나 나누자고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생신날의 하루를 더 긴장하게 보내시였다.

주석님께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조직준비위원회 일군을 부르시여 회의준비와 관련한 과업을 주시였고 며칠후에 열리게 되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서 하실 보고를 집필하시기 위해 집무실에서 하루를 보내시였다.

그날 저녁 항일투사들이 위대한 주석님의 저택을 찾아갔을 때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나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정말 고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내가 지난날에도 생일날에 찾아온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나는 원래 생일을 쇠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비하여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만족하다고 볼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일날이라고 하여 색다른 음식상을 차려놓고 마주앉을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이윽고 주석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가 차려놓으신 소박한 식탁에 일군들과 함께 앉으시여 사실 털어놓고 말하여 내가 생일날에 색다른 음식상을 차릴수도 있을것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벌써 인민들과 떨어지는것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이 먹는대로 먹고 인민들이 입는대로 입으며 인민들이 쓰고사는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인민들과 똑같이 살면 하늘에도 오를수 있지만 인민들과 다르게 살면 그들과 동떨어지고만다고 하시였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천지조화를 부리는 하늘을 가장 신성하고 숭고한 존재로 숭상하면서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 가지가지의 신화와 전설들을 지어내지 않았는가.

그런 하늘에 비겨 인민들과 똑같이 살면 하늘에도 오를수 있다고 하신 주석님의 교시에는 인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다 얻을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있었다.

이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나에게는 생일이요, 뭐요 하는 특별한 날이란 있을수 없다. 나는 광복된 새 조선의 한 평범한 공민으로서 인민들과 같이 생활하는 보통날이 더 좋다. 이것이 나의 생활신조이다.

…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위대한분이시구나!)

가슴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주석님에 대한 경모의 격랑이 일었습니다.

저는 공민학습반시기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조국의 영화들을 상영하기 위하여 동포들을 찾아다닐 때 나이지숙한 동포들로부터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의 인민적풍모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유격구가 해산될 때 적구로 떠나가는 인민들을 위해 예견하지 않았던 전투들을 조직하시고 식량과 돈을 마련하여 로자로 쓰도록 하신 이야기, 불의에 달려든 적《토벌대》와 마을에서 전투를 하면 인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하시며 마을밖으로 유인하여 전투를 벌리도록 하신 이야기, 추위에 떨고있는 산전막로인을 위해 자신의 털외투를 벗어주신 이야기,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어느 한 농가의 장작을 패주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가슴속에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흠모심이 더욱 깊이 자리잡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후날 제가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게 한 가장 큰 추동력으로 되였습니다.

그후 저는 어느 한 책자에서 그이께서 소학교시절에 지으셨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문 한토막을 읽게 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일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예로부터 전하는 말이 나라없는 백성은 금수보다도 못

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의무로 된다. …

이것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벌써 어린시절부터 나라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의무로, 최고의 륜리로 여기시였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례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을 위한 복무정신은 주석님께서 천품으로 타고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 일찌기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것도, 조국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것도 실은 그 위대한 천품으로부터 시원이 열려진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정치의 최고기준으로 삼으시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 지향을 존중하고 따르며 그것을 구현해나가는것, 이것이 주석님의 정치의 본령이였습니다.

이런데로부터 그이께서는 정권의 성격부터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민정권이라 규정하시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재여보시며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리익에 맞는것은 다 좋은것으로 인정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시였습니다.

이런 일은 말하기는 쉽지만 전대미문의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더우기 아닙니다.

오직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천품으로 체현하신, 숭고한 인

민관을 지니고계신 위대하신 주석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주석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길을 한평생 걸어오시였습니다.

무릇 사랑에 대한 견해는 천태만상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더없이 귀중하다는것은 누구나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란 무엇이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그것은 세계의 이름난 대백과사전들을 뒤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이에 대한 명답을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서 찾게 되였습니다.

언제인가 조국을 찾았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

어느날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보시면서 일일이 편향을 바로잡아주시다가 이런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애국도 나오고 혁명도

시작됩니다.

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습니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것이 수령님과 나의 목적이고 리념입니다. …

일군은 그이의 교시에서 인민을 사랑하는 바로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바로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민족애도 나오고 조국애도 나온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애국도 할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는것이다.

결국 인민에 대한 사랑은 수많은 숭고한 사랑을 낳는 모체라고 할수 있었다.

일군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인민관을 정립해보고싶은 마음에서 고심어린 노력끝에 제나름대로 아래와 같은 10대인민관을 묶었다.

1.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2.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3. 제일 힘있는 존재는 인민
4.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는 인민
5.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6.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락원건설
7.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8.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

9.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10. 제일 사랑하는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

제가 마음속으로 외우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존대하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운명도 같이하려는 숭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정립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령도자의 가장 고결한 천품으로서 천하를 얻는 힘으로 됩니다. 다시말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을 걸어오신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어려있지 않은 곳이란 없습니다.

평양의 대동강기슭에는 우리 해외동포들도 즐겨 찾는 옥류관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저도 자주 찾군 하는 옥류관이지만 그때마다 온 하루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젖군 합니다.

2008년 6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개건된 청류관과 대동문영화관을 돌아보신데 이어 옥류관을 찾으시였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학의 날개마냥 추녀를 건듯 쳐든 조선식합각지붕아래 옥류관은 그 외부부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부 또한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넓고 시원하면서도 밝은 해빛이 비쳐들어 더욱 산듯하게 안겨오는 옥류관의 내부는 흠잡을데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명한 인민의 봉사기지가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천정의 조각장식과 무리등도 눈여겨보시고 벽체도 만져보시며 그 질을 가늠해보시였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그야말로 백점, 만점짜리 봉사기지를 안겨주시려는 장군님께 있어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으시였습니다.

하기에 누구도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창문에 알릴듯말듯한 얼룩이 나있는것을 여겨보시고 창문에 새 유리를 바꾸어 끼우도록 이르시였고 연회장벽가까이에 놓은 고성기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세심히 이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식사칸에 꾸려놓은 불필요한 봉사시설에 대하여 지적하시고나서 이렇게 계속하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뻐스에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써붙였는데 봉사도 인민을 위하여 하여야 합니다. …

인민을 위한 복무!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모든 문제

는 봉사에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하는 단순한 문제이기에 앞서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였습니다.

칸막이를 없애고 대중식사칸으로 꾸린 호실에 들리시여 그처럼 만족해하신것도 그리고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대중봉사활동을 정상화하였다는 사실과 2층에 새 주방을 꾸리고 봉사를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정말 잘했다고 높이 평가하신것도 결국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복무관점에서가 아니였겠습니까.

하기에 그이께서는 잠시라도 쉬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일군들의 마음도 마다하시고 옥류관의 분관인 모란각에로 또다시 향하시였습니다.

그저 돌아보자고 해도 힘드시겠는데 청류관과 대동문영화관 그리고 옥류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시며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으니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가 얼마나 크시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피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란각에 손님들은 많이 오는가도 물어주시고 음식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이르시였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란각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는 소독문제였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식당들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위생을 잘 지키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음식그릇뿐아니라 수저 같은것들도 철저히 소독하여 인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수많은 날들중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인민사랑에 바쳐진 이런 날들이 모여 조국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일떠선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조국인민들이 합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은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목메여 노래하는것입니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정치!

세상에 전무후무한 정치가 펼쳐지고있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그대로 인민의 나라입니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있고 인민을 위해 바쳐지며 인민의 이름으로 내세워집니다.

국호에도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당당히 새겨져있고 인민대학습당이며 인민문화궁전, 인민병원, 인민군대, 인민배우, 인민예술가, 인민과학자, 인민교원, 인민체육인 등 얼마나 자랑스러운 호칭들입니까.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

누군가가 조국에서 펼쳐지고있는 정치를 한마디로 특징지으라고 한다면 저는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정치인 동시에 인민을 위해 베푸는 정치라고 주저없이 말하고싶습니다.

그럴만큼 조국에서는 매일 매 시각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가 베풀어지고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랑이란 받으려 하지 말고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나 덕을 받기는 쉬워도 그것을 남에게 베풀기는 헐치 않은 일입니다.

권력자들이란 력대로 백성들에게서 받아내고 빼앗아내고 억압하는것을 업으로 삼아왔음을 정치사는 보여주고있습니다.

인디아의 네루(1889-1964)는 정치란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정치가들이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덕을 베푼 정치가는 흔치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농민들은 《귤나무 석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들을 하여왔습니다.

봉건통치배들이 귤나무 한대당 바쳐야 할 공물량을 너무도 높이 정했던데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권력자들이 인민들로부터 피와 땀을 짜내는 현상은 오늘도 의연히 지속되고있습니다.

돈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되는 사회에서는 그 이름마저 모를 세금들이 수십수백여가지나 됩니다.

세금으로 인해 빚어지는 불상사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세금성화에 못이겨 야밤에 줄행랑을 치는 일이며 세금을 물지 못해 영업중지, 파산선고를 당하는가 하면 자살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습니다.

언제인가 저는 어느 한 나라에서 출판했다고 하는 어떤 달력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내는 날자들이 표시되여있었습니다.

하도 별난것이여서 사람들에게 물으니 《징수용달력》이라고 야유조로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얼마나 세금종류가 많고 또 그것을 중시했으면 세상에 없는 그런 달력까지 만들어냈겠는가싶어 허구픈 웃음을 지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내고 받아내는 정치의 부대낌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눈물과 원성이 가셔질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찌기 세금이라는 말자체가 사라져버린 우리 조국에서는 아직은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과 로고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십니다.

그 무수한 헌신의 자욱과 거기에 스민 로고를 다 적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에서 눈물겹게 체험한 몇가지 사실만은 꼭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6년 5월 어느날 저는 라선시를 또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1990년대 말엽부터 사업상의 일로 하여 거의 해마다 찾군 하는 낯익은 고장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라선행은 사업보다도 다른것을 목적하고 떠난 길이였습니다.

다 아시다싶이 2015년 8월 라선땅은 례년에 없는 폭우와 큰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겪는 자연재해중에서도 제일 참혹한것이 큰물피해라고 일러오고있습니다.

다른 재해는 지나간 뒤에 건질것이 있어도 대홍수가 휩쓴 뒤에는 아무것도 남는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라선땅에 닥쳐왔던 큰물도 모든것을 삼켜버렸고 휩쓸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피해를 가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30여일이라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큰물피해를 말끔

히 가신것은 물론 오히려 그전보다 더 훌륭한 인민의 요람이 일떠섰다는 소식이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저의 가슴속에서는 그것을 제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싶은 생각이 마가을의 들불마냥 일어번졌습니다. 그래서 라선길에 오르게 되였던것입니다.

라선땅에 발을 들여놓은 저는 해당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저슬령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저슬령은 함경북도 경흥군과 라선시사이에 있는 해발 350여㎙의 그리 높지 않은 령입니다.

이 령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발자취가 어려있습니다.

이러한 저슬령기슭에 옛적에는 영저마을로, 그후에는 밍크마을로 불리우며 오붓이 들어앉았던 살림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찾아간 곳에서는 이전의 마을풍경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자연의 광란은 이 삶의 터전을 지도에서 영영 없애버렸던것입니다.

불과 한해전만 해도 아담하게 안겨오던 마을이 송두리채 없어진것을 통해서도 라선시의 인민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겠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쓸쓸해지는 마음을 안고 서있는데 일군은 이번에는 백학산기슭으로 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곳에 이른 저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멋쟁이마을이 펼쳐져있었던것입니다.

저의 눈앞에는 저슬령기슭에 있었던 영저마을과 백학산의

양지바른 기슭에 멋들어지게 들어앉은 살림집들이 엇바뀌며 안겨들었습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저에게 일군은 불행의 주인공들을 만복의 주인공들로 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솟아난 만복동이라고 조용히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놀라워하는 저에게 그 일군이 해준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감동 그자체였습니다.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되였다고 합니다.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입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였다고 합니다.

그리시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살림집건설을 다그쳐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인민들을 꼭 입사시켜야 한다고, 다시한번 부탁하는데 정치사업을 잘하고 기본은 인민들을 안착시키며 뜨뜻한 집에서 겨울을 나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수재민들에게 많은 쌀과 부식물, 이불과 약품, 밥그릇과 수저, 신발과 내의, 아이들의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보내주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고 합니다.

인민의 운명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라선시피해복구문제는 순간도 미룰수 없는

최대의 중대사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중대사를 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정예부대들이 즉시에 현지에 전개되고 그뒤를 이어 온 나라가 라선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30여일 남짓한 기간에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멋쟁이마을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낼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늘길, 바다길, 렬길을 달려 머나먼 이곳 건설장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며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고 합니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본래 집들보다 좋은가,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시고 모든 살림집들이 훌륭한 보금자리로 건설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합니다.

영저마을과 만복동!

자연의 광란은 어제날의 영저마을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지만 수재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는 문제를 바로 국사중의 국사로 보시며 조국의 북변땅을 찾고 또 찾으시여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이 땅우에 만복동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마을을 일떠세울수 있은것 아니겠습니까.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대책을 취해주시면서 행불자들을 찾기 위한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사랑의 명령도 주시였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산도 지어 혈육까지도 깡그리 앗아가는것이 바로 자연의 광란입니다. 그런것으로 해서 행불자는 재해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다밑을 다 뒤져서라도 한명도 빠짐없이 찾도록 수산사업소의 잠수부들은 물론 인민군해병들까지 동원시켜주시였습니다.

하여 라선시에서는 큰물피해로 인한 행불자가 단 한명도 없이 모두가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더는 저희들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꼭 보고올려주십시오. 슬픔을 이겨내고 먼저 간 이들의 몫까지 다해 피해복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시는 볼수 없을것이라고 단정했던 혈육들을 붙안

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가족들 누구라 할것없이 한목소리로 터친 마음속 진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대자연의 횡포한 광란이 몰아온 큰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보기 드문 큰물피해는 입었어도 난민이 없고 불행의 주인공들이 오히려 만복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꿈같은 일은 오직 우리 조국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현실입니다.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 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여야 한다!
—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라!
—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듯 숭고한 인민사랑의 지론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그 자욱자욱에 의하여 마련되는 만복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람들속에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평범한 로동자들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삼지연군을 찾았던 저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공장을 찾았던 저는 태여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북변의

면 이 공장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사연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공장이기에 먼길을 헤치시며 몇차례나 찾아오시였는가?)

이 공장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감자가루도 맛보일 일념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일떠선 식료가공기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장의 설비 하나, 생산공정 하나도 무심히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수만㎡의 연건축면적을 자랑하는 이 공장은 원료투입으로부터 탈피, 세척, 선별, 절편, 더운물처리, 랭각, 익히기, 건조, 제분, 포장에 이르기까지 가루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었습니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곳을 돌아보던 저는 앉아서 감자를 선별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공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선별공정에서 로동자들이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시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도 누구도 관심하지 못한 그 문제를 그이께서만은 스치지 않으시였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한 관심속에 선별공정에 의

자들이 놓여지고 선별공들이 앉아서 일하는 새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2019년 4월 이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도 기쁘시여 몸소 선별공에게 다가가 의자가 낮지 않은가, 다시 앉아보라고 하시며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였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또다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로동자들이 앉아 일하는것이 아주 멋있다고 그토록 기뻐하시였다고 합니다.

(정녕 그이의 마음속에는 자나깨나 인민, 인민뿐이시구나!)

저는 마음속에서 격정이 일어번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어찌 라선시나 삼지연군의 인민들뿐이라 하겠습니까. 조국인민들모두가 그 사랑의 헌신속에서 마련되는 만복을 누려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1월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설한 어느 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면서도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하루에 먹일 물고기량과 년간수량까지 몸소 수첩에 계산해보시고나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사랑의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이 조국의 기록영화를 보면서 격동을 금할 수 없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례년에 없는 폭열이 쏟아지던 2018년 8월의 무더위속에서 온몸을 땀으로 화락하니 적시시며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정형을 료해하시고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를 보아주신데 이어 양덕군안의 온천지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삼지연군안의 건설장 등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은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로고를 바쳐가는 어머니의 참모습을 보았기때문입니다.

어느 한 시인은 세상에 어머니와 해빛만 있으면 인간은 산다고 했습니다.

조국의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이 어머니이고 당의 사랑은 해빛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헌신과 로고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인민들에게 천세만세의 행복을 주는 지상천국입니다. 누구나 본받아야 할 인류사회의 모델국입니다.

□ 일심일체

동서고금에 눈물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게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또 눈물이 강이 되고 못이 되였다는 이야기도 수다합니다.

우리 나라의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딸 심청을 잃은 심봉사의 눈물도 그러하거니와 황해남도 룡연군의 원소라는 깊은 못에도 봉건통치배들의 악착스러운 토색질로 하여 흘린 농민들의 눈물이 모여 이루어졌다는 전설이 깃들어있습니다.

윌리암 쉐익스피어(1564-1616)가 창작한 《로미오와 쥴리에트》 또한 청춘남녀간의 사랑이 빚어낸 비극적인 눈물을 기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에는 슬픔과 원한의 눈물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록족부인(鹿足婦人)에 대한 이야기만 놓고봐도 그렇습니다.

고구려시기 발이 사슴발처럼 생겨서 록족부인이라고 불리운 한 녀인이 살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 역시 발이 어머니를 닮아 어린시절부터 마을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을 만나 록족부인은

두 아들과 헤여지게 되였고 이때로부터 수십년간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여 홀로 살던 록족부인은 외적이 침노해오자 나라를 지키는 싸움길에 분연히 나섰습니다.

그는 적군속에 《록족장군》이라 불리우는 두 장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짚이는데가 있어 죽음을 무릅쓰고 홀몸으로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두 《록족장군》의 발을 보고 이들이 자기가 잃었던 아들임을 확인한 부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머니라는것과 사람은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자기를 낳아준 고국을 잊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엄하게 타일러주었습니다.

전장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자기의 고국이 고구려임을 알게 된 두 《록족장군》은 적군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고구려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로 하여 적의 전투서렬은 와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군은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외적들을 통쾌하게 전멸시키였습니다.

외적을 쳐부시고 름름한 장수가 된 두 아들을 만나게 된 부인의 기쁨은 이를데없었습니다.

세 모자가 손을 맞잡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눈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것들은 대다수 인간생활에서의 개별적인 관계, 사적감정의 충동에 의한 눈물이였습니다.

인류력사가 시작된이래 사람들은 한 나라의 령도자와 인민들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정으로 오가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국을 방문하면서 감동깊은 사실들을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10여년전 조국방문의 나날에 체험한 한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상관계로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은 지방참관을 가기로 계획되여있었기때문에 저는 일찌기 호텔로비에 내려와 안내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내원은 보이지 않고 해당 일군이 저에게로 다가오는것이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참관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혜경선생은 어데 갔는가요?》

혜경이란 저를 담당한 안내원의 이름이였습니다.

나이가 30대 초반이였던 그는 몇해째 제가 조국에 올 때마다 안내를 맡아해주는 친절한 녀성이였습니다.

《혜경동무 오늘 아침 비행장에 나갔습니다.》

《비행장에요? 무슨 손님들이 또 오는가요?》

저는 묻지 않을걸 묻는다는 자책을 느끼면서도 혹시나하

는 호기심이 들었던것입니다.
《혜경동문 동생마중을 나갔습니다.》
《동생마중이요? 동생이 외국에서 살고있는가요?》
《그런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완쾌되여 오늘 돌아온답니다.》
《동생이 무슨 병을 앓았게요?》
저는 혜경의 가정에 그런 그늘이 있는줄도 모르고 지낸것이 미안스러워 조국의 일군에게 한걸음 다가서기까지 하였습니다.
《병을 앓은것은 없고…》
일군은 방금전과는 달리 퍽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혜경동무에게 막내동생이 있는데 인민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녀성해안포병이지요.
한선생이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민군대에 감나무중대라고 불리우는 녀성해안포병중대가 있답니다.》
《감나무중대를 내가 왜 몰라요? **김정일**장군님께서 찾아가시여 이름지어주시고 녀병사들이 해풍에 얼굴이 튼다고 약크림까지 보내주셨다는 중대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일군은 놀라운 눈길로 나를 마주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에서도 소문이 짜하답니다.
그 중대에서 혜경의 동생이 군사복무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중대에서 복무하던 혜경동무의 동생이

뜻밖에도 군사임무수행중에 한쪽눈을 다쳤답니다.

이 사실을 아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치료대책을 세워주셨답니다.》

《아니, **김정일**장군님께서 말입니까?!》

《예. 그이께서는 이 세상에서 눈을 제일 잘 고친다는 병원을 알아보고 거기에 보내서라도 꼭 고쳐줄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달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여 오늘 돌아온답니다.》

《병사의 눈을 고쳐주려고 그를 다른 나라에까지 보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김정일**장군님과 혜경의 가정하고는 친척간이든지 무슨 연고관계가 있는가요?》

저는 일군이 하는 말이 리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까지 한것입니다.

《혜경동무의 자매는 평범한 로동자의 딸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가 다 장군님의 친혈육, 친자식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자기들은 장군님과 한식솔이라고 하는것이지요.》

일군은 례사롭게 말했으나 저에게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 일군과 함께 참관을 하면서도 한 평범한 녀병사, 안내를 맡은 혜경의 친동생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눈을 고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몇번이나 혼

자서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가 평범한 보통병사에게 그런 놀라운 은정까지 돌려주신단 말인가!)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보니 혜경안내원이 로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오늘 함께 다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량해를 구하는것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맑고 초롱초롱하던 눈이 붉어지고 눈등이 좀 부석부석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혹시 완쾌되여 돌아온다던 일군의 말과는 반대로 동생이 다친 눈을 그대로 가지고 온것이 아닐가.)

저는 비행장에 나갔던 일은 어떻게 되였는가고, 동생의 눈은 정말 고쳤는가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아픈 상처를 다쳐놓지 않나 해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은 않고 들고 온 손가방을 열고 그안에서 사진 두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동생이 부상당했을 때 찍은것이고 또 이 사진이 이번에 눈을 고친 다음 찍은거예요.》

저는 어정쩡해서 그저 두 사진을 받아 자꾸 번갈아 보았습니다.

부상당했을 때 찍은 사진속의 처녀는 한쪽눈이 험상궂게 되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후에 찍은 사진속에서는 고운 두눈을 가진 처녀가 미소를 짓고있었습니다.

이윽고 혜경안내원이 웃으면서도 손수건으로는 연방 눈굽을 찍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장군님의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가요?》

그는 참지 못하고 얼굴을 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아마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생을 만나는 시각부터 너무도 고맙고 격정이 커서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붓고…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령도자, 그 은정이 너무 고마워 령도자를 우러러 흘리는 눈물, 이 눈물속에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일체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생각조차 못할 이런 일들이 조국에서는 평범한 일로 되고있다는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에 저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조국방문회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일체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고있음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륭성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가슴아파하십니다.

그들속에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 따뜻한 정을 부어주신 사람들도 있고 이웃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하고 소박한 로동자, 농민들도 있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알게 되신 어느 한 수산사업소의 평범한 일군과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인민들이 겪고있는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를 보실 때 제일 가슴아파하시며 인민들이 행복에 겨워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인민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며 인민들이 기뻐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그이이시기에 산처럼 쌓여있는 물고기들을 보시고도, 례년에 없는 과일대풍을 마련하였을 때에도, 가방폭포, 이불폭포를 보시였을 때에도 그 모든것이 인민들에게 차례질것을 생각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신것 아니겠습니까.

그이께서 기뻐하실 때 언제나 보답의 일념에 불타는 인민의 눈물이 따릅니다.

령도자를 우러러 흘리는 인민의 눈물, 그것은 령도자가 베푸는 은덕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조국에서 령도자를 우러러 인민들이 흘리는 눈물은 인간생활에서 흔히 있는 눈물과는 달리 가장 숭고한 뜻과 정으로 인민을 보살피고 더 좋은 앞날로 이끄는 령도자에 대한 매혹의 분출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국에만 있는 일심일체의 참모습이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령도자와 인민이 가장 순결한 도덕의리로 화합된 뉴대 다시말하여 일심일체의 굳세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뜻깊게 기념하던 그날에 진행된 청년들의 홰불행진이 생생히 기억되여있습니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저는 2015년 10월 10일 저녁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홰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에 초대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홰불행진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홰불행진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그들을 축하하시였습니다.

홰불행진의 시작이 선언되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을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신 무개차가 활활 타오르는 홰불봉을 든 청년학생들의 옹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끓어넘치는 가운데 절세위인들의 존함글발이 광

장에 모셔지고 《창건자》, 《총비서》, 《70》 등의 글발들과 조선로동당 마크가 광장에 새겨졌습니다.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홰불에 담아 원수별모형, 《령도자》, 《영광》 등의 글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윽고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력사를 구가하는 노래선률들이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동지애》, 《백전백승》 등의 글발을 새기던 청년학생들은 기세차게 타오르는 홰불로 《일심단결》이라는 대형글발을 련이어 새기고 주석단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이 새긴 《일심단결》, 이 네 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인민의 통일단결의 의지와 우리 조국의 억센 기상을 대번에 읽을수 있었습니다.

일심단결(一心團結), 문자그대로 한마음으로 뭉친다는 뜻입니다.

말은 간단한것 같지만 그것은 인류정치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

한마음한뜻은 인간본연의 념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고의 원시림속에서 인간은 먹을것을 구하고 광란하는 자연의 재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왔습니다. 사회가 여러 계급, 계층으로 분화된 다음에도 목적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지도자와 인민이 뜻을 같이하여 싸운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령도자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루었던 사실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 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가 되여 함께 숨쉬고 행동하는 진정한 단합은 오로지 우리 조국에만 있는 특유의 현실입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조국의 으뜸가는 국풍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부강조국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령도자와 전체 인민이 사상과 뜻, 운명을 함께 하고있기때문입니다.

령도자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불같은 충정, 일심일체를 이룬 조국의 국풍은 령도자와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강렬하게 분출되는 더없이 고결하고 숭고한것입니다.

중국속담에 《닭알은 삶아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금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하신 외국방문의 나날에 발휘된 조국인민들의 풍모는 세계를 경탄시켰습니다.

조국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

에 오르신 경애하는 그이의 혁명활동보도에 접하고 그이께서 가시는 곳의 날씨상태를 알아보며 그이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조국에 돌아오실 그이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실적이 뛰여오르고 생산현장으로는 년로보장을 받은 사람들까지 달려나와 애국충정의 마음을 바쳤습니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뜨겁게 흐르는 혈연의 정,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조국의 일심일체의 혈맥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이 위대한 일심일체, 훌륭한 국풍이 있어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계속 창조해나갈것이며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자기 힘으로 일떠세울것입니다.

□ 《김정은열풍》

제 한생에 오늘처럼 해외조선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어오른적은 일찌기 없습니다.

그것은 온 세계가 우러러 경모하여마지 않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친근하신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이라 할것입니다.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자이시기 전에 온 나라 대가정의 친어버이로 절대적으로 흠모하며 따른다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는 이 지구상의 식견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주공간의 행성들이 거대한 인력에 끌리우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걸출한 인품과 뛰여난 자질, 비범특출한 정치실력과 세련된 령도예술에 탄복하면서 원수님을 멋있는 령도자, 리상형의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저는 이에 대하여 자주 느끼군 합니다.

저는 가까운 중국의 친구들로부터 한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었습니다.

《**김정은**령도자는 어떤분이신가?》

처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면 난감하였습니다.

글쎄 그이의 위인상을 어떻게 한두마디의 말로 대답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을 굴리던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김정은**원수님은 참으로 위대한분이시다. 인민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조국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분이시다.》

그후 저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체험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풍모에 대하여, 최근년간 북남수뇌회담과 조미수뇌회담 등을 마련하시여 조선반도에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낀바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군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시 뛰여난분이시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군 하였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국적도 다른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심을 표하는것을 보면서 저는 그이를 령도자로 모시고있는 존엄높은 조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뿌듯이 느끼군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여러가지 사업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저는 다급히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송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잡지사의 주필로 사업하다가 몇해전에 퇴직한 잘 아는 중국사람이였는데 좀 있으면 TV로 특별뉴스가 나가니 꼭 시청하라는것이였습니다.

무슨 내용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보면 알게 될것이라고만 하

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니 얼마후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국의 료녕성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습근평주석과 또다시 상봉하신 보도가 나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송원은 5월 7일 습근평주석이 대련에 와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친절하게 맞이한 소식이며 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상봉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신 소식, 습근평주석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한 소식, 이튿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해변가를 거니시며 흉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진행하신데 이어 습근평주석이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신 소식 등 원수님의 중국방문소식을 상세히 전하는것이였습니다.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대련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위대한 주석님께서 등소평과의 상봉과 회담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시 국무원 부총리 리극강과 만찬회담을 가지는 등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의 력사가 아로새겨져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뜻깊은 곳에서 조중수뇌분들이 40여일만에 또다시 상봉한것은 두 나라 수뇌분들사이의 뉴대가 세기와 세대를 넘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상봉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위풍당당하신 걸음걸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며 그를 존대하는 겸손하신 품성, 환하신 그 미소…

정녕 그이의 일거수일투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시였습니다.

제가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데 전화종소리들이 련이어 울렸습니다.

《한선생, 원수님의 련이은 방문으로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어깨가 쑥 올라가는것만 같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국사람들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쳐들어보이며 부러워합니다.》…

동포들만이 아니였습니다.

중국의 친지들도 보도를 본 소감에 대하여 말하면서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가슴속에 한껏 차오르던 절세위인을 모시고있는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저의 눈앞에는 10여일전 판문점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되였다고 마음속 진정을 토로하던 남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각계층의 모습들이 안겨왔습니다.

남조선의 여러 인사들은 **김정은**위원장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대범한 기상과 대단한 결단력을 느끼였다, 정말 감격적인 모습이였다고 격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뇌상봉을 취재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파견되였던 서방의 기자들은 **김정은**위원장이 연설도중 취재기자들에

게 감사를 표시하는데서 감동되였다, 자신을 낮추고 평화의 축배를 드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매혹적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판문점수뇌상봉의 력사적화폭을 지켜본 미국의 행정부관계자들과 전문가들까지도 판문점에서 보여준 **김정은**위원장의 말투와 롱담, 행동은 훌륭하고 완벽하였다, 당당함과 탁월한 재능이 안겨왔다, 거침없고 호방한 모습이였다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경탄의 목소리는 비단 그이의 중국방문이나 판문점수뇌상봉때에만 울려나온것이 아닙니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뿌찐은 2019년 4월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울라지보스또크시까지 장장 수천㎞를 비행기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담장소에 먼저 와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기다렸을뿐아니라 최상의 례의를 갖추어 그이를 맞이하고 방문 전 과정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특별조치를 취하였다는것은 그만큼 원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2018년 6월 력사상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때 보여준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언행은 그야말로 세계를 깜짝 놀래웠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30여분동안 단독회담을 진행하고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도 쓰지 않던 《평장

히 영광스럽다.》는 예상밖의 발언까지 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당하고 거침없으신 언행과 환하신 미소, 재치있는 롱담, 그이의 정중하고 례의바른 모습에 접하고나서 《환상적인 회담》이였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산책도중 관례를 깨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특급비밀인 대통령전용차의 내부를 보여준 사실과 공동성명서명식에서 먼저 자리를 권하는 등 극진히 배려한 사실, 공동성명서명식이후 **김정은**위원장은 위대한 인격을 갖춘 뛰여나고 훌륭한 협상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있으며 자기 조국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 등의 《폭풍칭찬》을 쏟아낸것은 절세위인께서 지니고계시는 고상한 인격에 대한 례찬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이 모든것은 애써 공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변하여 크게 이루어진다는 《무위이화》도 아니며 고대그리스신화에 나오는 12신의 조화나 알라딘의 《마술등잔》에 의해 하루밤새에 이루어진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정치가에게 있어서 사상이나 철학, 정치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간적인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인의 흠모와 존경을 자아내는 정치가는 정의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추앙되기마련이라는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위인칭송열기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보다 휘황할 민족의 앞날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존경과 흠모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울려나오는 위인칭송의 메아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 신뢰의 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령도풍모와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나라와 민족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존함을 마음속으로 부르면 새 힘이 용솟고 용기가 북받쳐오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의 창창한 앞날이 선히 안겨옵니다.

동포들이여, 생각하자 그날을, 위대한 통일의 날을
그것은 얼마나 눈물나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랴!
통일만 된다면야 무엇이 어려우랴, 무엇인들 못하랴
우리가 어느 민족보다 못하랴 뒤떨어지랴
우리는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를 세우리라
우리는 그지없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세계가 부러워할 지상의 락원을 건설하리라

…

용감하고 슬기롭고 강의한 민족
재능있고 자유를 사랑하는 근면한 인민
영광스러운 조선인민
나 또한 그대의 한 부분이거니
세계를 향하여 나는 큰소리로 자랑하노라
《우리는 조선민족이다.》라고!…
《나는 조선사람이다.》라고!…

— 련시 《불길과 폭풍에 대한 노래》중에서 —

4. 통일의 봄 그려보며

□ 환희의 메아리 들으며

평양에서 남쪽으로 160여km 떨어진 곳에 개성시가 자리잡고있습니다.

개성은 근 500년동안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 고려의 수도로 있은 력사가 오랜 도시입니다.

이러한 개성에서 남쪽으로 20여리정도 더 나가면 판문점이라는 곳이 나집니다.

그전에는 오가는 길손들을 위한 주막집을 비롯하여 몇채의 집들만 있는 한적한 곳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곳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정전담판이 진행되고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그때부터 판문점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분렬의 상징으로 되였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무겁게 흐르는 이곳을 돌아볼 때마다 제가 통렬히 느끼는것은 분렬된 민족의 아픔입니다.

무릇 마음의 상처란 남의 눈에 띄는 일은 없어도 결코 아물줄은 모릅니다. 그것은 언제나 아픔을 호소하고 남의 손

이 슬쩍 다치기만 하여도 피가 나며 언제나 변함없이 마음속 한구석에서 입을 벌리고있기때문입니다.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민족분렬의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분렬될 당시의 청장년들은 물론 10대의 어린 소년, 소녀들마저 이제는 거의 세상을 떠나고 그후에 태여난 사람들도 인생말년에 접어들었으니 참으로 민족의 분렬로 인한 아픔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20세기가 낳은 랭전의 시대도 물러가고 지난날 분렬되여있던 나라와 민족들이 다 통일되여 저마다 자기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시작되여 20년이 되여오는 지금까지 이 행성에서 유독 우리 민족만이, 그것도 수천년을 내려오며 한 하늘, 한지붕아래 동고동락해오던 우리 겨레만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으니 이보다 더한 민족적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운명인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조국통일이야말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뜻이였고 민족의 사활적요구라 할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사적대업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심혈을 쏟고계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

니다.

조국통일성업을 민족지상의 명령으로, 최고의 애국으로 내세우시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성취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세월을 두고 아물지 않는 민족분렬의 아픔을 가셔주실 웅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몇해전 제가 판문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와 동행하였던 해당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시여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실 의지를 다지신데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억하건대 2012년 3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소식을 TV를 통해 접하고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 숭엄하게 세워져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친필비의 글발을 한 글자, 한 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회고하시였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

습니다.

이날 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추억하시며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철석의 의지를 굳게 다지시였다고 합니다.

저는 판문점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자욱자욱을 따라걸으며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그이의 강렬한 애국의 의지를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조국방문의 기회에 일군들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실 투철한 립장을 변함없이 견지해오신데 대한 이야기들을 깊은 감동속에 듣군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주석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습니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연설내용

이 게재된 신문을 받아보면서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라는 확신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그후 발표하신 수많은 로작들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현시기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현실적인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민족의 분렬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라고 천명하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내외반통일세력이 조국통일의 앞길에 아무리 커다란 난관과 장애물을 가로놓는다 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기어이 통일위업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깃들어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서 가다듬으신 통일의지를 실천하시기 위하여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뜻과 대범한 결단으로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그이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2018년에 들어서면서 조국의 여러 대표단들이 남녘에 련이어 파견되여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장한 기상을 내

외에 과시하는 대단합의 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지역을 방문하였던 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여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신데 이어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을 만나시여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실 원칙적립장과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평양에 온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도 축하해주시면서 민족대단합의 새로운 화폭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그무렵 저는 중국에 온 남녘동포들을 만나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계시여 머지않아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올것입니다.》, 《위대한 령수가 위대한 단결을 낳는다.》라고 자기들의 마음속 진정을 터놓았습니다.

절세위인께서 지니고계시는 열렬한 민족애와 투철한 자주통일의지,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족대단결리념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겨레는 그처럼 고대하던 환희와 격정의 시각을 맞이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8년 4월 27일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시는 순간 온 민족과 세계는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성과 경탄으로 끓어번졌습니다.

특히 그이께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말씀하실 때 겨레의 환호성과 열광은 더욱 고조되였습니다.

시종일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상봉과 회담을 여유있게 주도해나가시는 그이의 위풍당당하고 소탈하신 인품은 만사람을 매혹시키였습니다.

뜻깊은 이날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입니다.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열정과 탁월한 정치실력, 천하를 품어안는 포옹력과 철석의 통일의지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판문점에서의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마련하시여 판문점을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만든데 이어 평양에서의 격동적인 사변을 련속적으로 안아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

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협의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절세위인의 확고한 통일애국의 의지와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은 남녘땅은 물론 온 세계를 커다란 충격과 환희, 경탄으로 또다시 끓어번지게 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에로 이어갈 실천적의지가 담긴 평양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은 8천만겨레에게 잊지 못할 화폭이며 선물이다.》라고 격찬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을 남녘민중을 비롯한 온 겨레가 함께 걸어갈것이라는 환희의 목소리들이 메아리되여 끊임없이 울려나왔습니다.

남녘의 인터네트들에는 《**김정은**위원장은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너무 멋있는분이다.》, 《강단있고 배짱있는 지도자이며 훌륭한 위인이다.》, 《**김정은**위원장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싶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지도자》,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는 위인》 등 흠모의 글들이 수없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상파방송들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왜 위인인가》라는 주제의 편집물이 제작방영되는 전례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녘땅을 변화시키시였다.》고 이야기하군 합니다.

□ 조약돌도 해변가를 장식한다

쎄르반떼스(1547-1616)의 장편소설 《돈끼호떼》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모든 창조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는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한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위업도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 때 이룩될수 있습니다.

저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로 인한 아픔을 겪고있는 수많은 민족성원들중의 한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정을 담아 말씀하시던 전라남도 담양땅, 죽기 전에 한번만이라도 가보면 편히 눈을 감겠다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고향땅을 나이 70이 다되여오는 오늘까지 밟지 못하고있는 저로서는 혈맥이 끊어진 민족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수가 없습니다.

애국에는 결코 높고낮음이나 크고작음이 있을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애국심도 금옥같이 소중합니다.

1990년 9월경이라고 기억됩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속에서는 곧 평양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쫙 퍼졌습니다.

조국이라는 말만 나오면 눈물부터 앞서는 사람들이 우리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제가 살고있던 곳의 동포들도 저저마다 이 음악회에 참가하고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게 되였습니다.

저는 그 음악회에 참가하고싶어 시험장소로 정해진 어느 한 중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전문음악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좋았으며 노래도 괜찮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잔치집에 불리워다니며 노래를 불러 흥을 돋구어준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여러명의 심사성원들이 앉아있는 앞에서 저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있게 불러 단번에 합격되였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일이란 자기 뜻대로 되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며칠후 저는 공교롭게도 이미전부터 앓던 만성충수염이 도져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하루빨리 조국으로 가고싶은 생각은 간절하였지만 수술결과가 시원치 않다보니 병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속타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쉬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몇달후에야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였던 가까운 친지를 통하여 음악회진행정형과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

그때 재중조선음악가대표단의 단장을 최영희선생이 맡았는데 그는 민족의 통일지향을 담은 노래를 창작할 결심밑에 많은 동포들과 토론을 거듭하여 가사와 곡을 창작하였다. 그는 동포음악가들을 찾아 여러곳을 다니기도 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각지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왔다. 우리들은 밤새워 노래들을 형상하였다.

마침내 대표단은 조국으로 향했다.

우리들은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남녁의 음악가들, 관록있는 해외동포음악가들과 함께 조국인민들앞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여러 통일관련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조국통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며 민족지상의 과제라는것을 점차 깨닫게 되였다.

1990년 10월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범민족통일음악회 개막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때 개막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는데 재중동포들을 대표하여 최은복선생이 연설을 하였다.

그는 주의주장과 신념, 신앙과 거주지역은 달라도 통일의 문을 열어가고저 모인 우리 음악가들이 민족앞에 지닌 임무는 자못 무겁고 자부심 또한 크다고 하면서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동포들을 조국통일성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다음날 진행된 범민족통일음악회 첫 공연에서 우리들은 하루빨리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온 겨레가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의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재중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 통일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특히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을 통일하자!》라고 쓴 프랑카드를 무대에 펼치고 우리들이 작사작곡한 가요 《분단장벽 허물고 조국통일 이룩하자》를 소합창으로 불러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통일위해 싸워나간다
콩크리트장벽은 분렬의 상징
콩크리트장벽은 민족의 수치
하루빨리 분단장벽 무너뜨리고
통일의 큰 대문을 열어제끼자

그때 우리가 무대에 올렸던 소합창의 선창을 맡았던 동포는 출발을 앞두고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게 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음악회에 참가하지 못할것으

로 생각하면서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는 비록 우리곁을 떠났으나 딸이 통일의 노래를 부르러 조국에 간다면 좋아했을것이다.》고 하면서 단연코 그의 등을 떠밀어 조국으로 떠나보냈다.

나는 민족의 통일애국운동사에 뚜렷이 한페지를 남긴 뜻깊은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부르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념원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민족음악과 조국통일토론회에서 재중조선음악가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동포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모두가 한피줄을 가진 하나의 겨레인 우리는 조국의 인공적인 분렬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분렬주의자들이 콩크리트장벽을 쌓고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있지만 해내외 7천만겨레의 달아오른 통일열망은 기어이 이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것이라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통일음악회가 진행되던 나날에 나는 남녘의 음악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그들은 이번에 북의 현실을 보고 듣는 과정에 느끼는바도 크다고 하면서 당국자들이 북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악예술전통과 유산을 없애고있다고 선전하고있는데 진작 와서 보니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에서 민족의 고유한 음악예술전통과 유산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현대적생활감정에 맞게 개화발전시

키고있다는것을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도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자주 모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는 협력과 교류를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겨레가 자주 모여앉으면 서로 의사가 소통되고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질것이며 이것이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에도 좋을것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조국체류기간 우리 대표단 성원들은 조국에서 민족의 통일열망을 담아 일떠세우는 통일거리건설장을 찾아 힘있는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건설자들에게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온 지원물자들도 넘겨주었다.

…

저는 친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족의 뜨거운 통일의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애국투쟁은 단순히 몇몇 사람만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 성원들의 거족적인 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루어질수 있다는 강렬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자기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에서 조국에서 진행된 통일대회들에 해외동포대표로 여러번 참가하였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여 대표들과 어깨겯고 통일의 노래도 함께 부르고 통일을 웨치는 함성에 저의 작은 목소리도 합치며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열망을 과시하는데 저의 자그마한 애국

의 마음도 더했습니다.

통일애국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발걸음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빨라졌습니다.

2001년 1월 조국방문의 기회에 저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장을 찾았습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에 통일을 열망하는 저의 마음도 바치고싶어 여러 건설자재들도 준비하였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한 현지의 일군들은 넓은 부지에 일떠서는 이 기념탑은 아치문모양의 탑신과 부주제군상들이 부각된 기단으로 구성되며 탑신은 천연화강석으로 두 녀인이 3대헌장마크를 높이 들어올리는 모습으로 형상된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그아래로 대통로가 지나게 된다는데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저는 금시라도 얼싸안고 통일만세를 부를듯 열정적으로 두 팔을 뻗치고 마주서있는 두 녀인의 형상을 그려보면서 조국통일이야말로 민족최대의 념원이라는것을 또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마음을 안고 건설자들의 일손을 도와 성수가 나서 로력적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향해가는 애국의 길에서 저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으리라 마음다졌습니다.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9돐이 되던 2016년 10월 4일 평양에서는 재중동포들이 참가하는 통일자전거행진이 진행되였습니다.

그무렵 조국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였었습니다.

우리 재중동포들은 조국통일에 도움이 될 이 제안에 적극 호응해나섰습니다.

우리들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분위기와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려는 일념에서 통일자전거행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일자전거행진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이 행진에 참가할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는 제 나이 60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전거행진에 참가한 사람들가운데서 나이많은 축에 들었습니다.

안해와 자식들은 물론 주변의 친지들도 저를 만류하였습니다. 그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것은 무리한 일이라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라의 통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수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사람이 살면 백년을 살겠는가 2백년을 살겠는가. 비록 오래 살았다고 해도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이 무슨 보람있는 생이겠는가.

바다가의 모래불에 써놓았던 글자는 파도에 가뭇없이 사라

지지만 조약돌은 비록 작아도 오랜 세월 파도와 비바람에 씻기면서도 해변가를 장식한다.

저는 인생의 저녁노을을 아침노을처럼 바라보며 젊었을 때의 그 기백으로 통일애국을 위한 행진길에 흔연히 나섰습니다.

노래 《반갑습니다》가 울리는 가운데 통일자전거행진에 참가할 성원들은 프랑카드와 통일기, 조국통일구호들을 쓴 손기발들을 들고 통일구호를 힘차게 웨치면서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속에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출정식에서는 여러 인사들의 연설들이 있었는데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하신 휘황한 진로따라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조선은 하나다》, 《통일 6.15》, 《통일아리랑》 등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속에 우리 행진단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출발하였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여러 지역을 통과하여 개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손에손에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들을 들고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의 구호를 힘차게 웨치는 개성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판문점을 향해 가는 저의 가슴에서는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데 미력이나마 다 바칠 결의가 넘쳐났습니다.

□ 민족의 성산에서 그려보는 하나된 조국

《백두산을 불상처럼 안아라! 백두산은 우리의 부처님이야. 한마디로 조선의 하늘이야.》

이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의 좌상어른이 외우던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특히 조국에 와서 여러차례 백두산에 오르면서 그 참뜻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예로부터 백두산은 우리 나라의 천만산악을 거머쥐고있는 조종의 산이며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그대로 어려있습니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백두밀림의 한그루 나무에도, 이름없는 바위며 풀 한포기에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국애족의 온넋과 심신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한생이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산이여서 오르면 오를수록,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참다운 애국애족의 진리를 심어주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깊은 뜻을 새겨주는 민족의 성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백두산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옵니다.

저는 2019년 5월에도 백두산에 올랐었습니다.

눈앞에 민족분렬사에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함께 올라 굳게 잡은 손을 높이 쳐드시던 그날의 화폭이 되새겨져 저는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 불멸의 화폭에서 저는 우리 겨레는 가를수 없는 하나이며 조국통일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이룩된다는 진리, 우리 민족이 그처럼 바라던 통일의 새 아침은 다름아닌 백두산에서 밝아온다는 진리를 새겨안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시원이 열린 조종의 산인 동시에 민족자주의 려명이 밝아온 성스러운 백두령봉들에 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발자취가 그 얼마나 진하게 새겨져있습니까.

민족의 말과 글을 빼앗기고 넋까지 잃을번 하였던 망국의 그 세월, 짓밟힌 겨레의 운명을 안으시고 백두의 밀림에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신분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강도 일제가 항일빨찌산을 《창해일속》이라고 떠벌이며 미친듯이 달려들 때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일의 기치아래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마침내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시였습니다.

눈보라치는 만주벌판에서 천만고생을 다하시며 피흘려 찾은 조국, 그 조국이 외세에 의해 또다시 둘로 갈라졌으니 주석님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였겠습니까.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백두산에서 조여매신 행전을 푸실 사

이없이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헌신분투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뜻깊은 탄생일에 축배잔을 받으시는 자리에서도 조국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시였다고 합니다.

조국에 개선하신 그때로부터 80고령에 이르는 긴긴 세월 어느 하루도 통일을 생각하지 않은적이 없으신 위대한 주석님이시였습니다.

그이의 성스러운 애국헌신의 길에는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을 만나시여 나라의 통일사를 의논하신 감동깊은 나날도 있고 한밤을 지새시며 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담아 집필하신 고전적로작들과 조국통일방략들도 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통일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력사의 친필을 남기신 조국통일문건도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하시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여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안겨주시고 가슴벅찬 6.15자주통일시대도 펼쳐주시였습니다.

조국방문나날에 들은 감동깊은 이야기에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 1월초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는 20세기초엽에 외세의 간섭과 사대매국노들의 외세의존으로 망했고 조국해방후에는 외세에 의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나라가 분렬되여 민족적비운을 겪고있다고 하시며 세계에는 우리 나라처럼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사는 민족이 없다고, 그러

므로 우리는 21세기의 문어구에 들어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자주이고 자주는 곧 통일이라는 사상을 더욱 강하게 들고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고 합니다.

그해 10월 장군님께서는 나는 그 어떤 큰 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늘 백두산에 가군 한다고,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온 나라에 떠받들려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생기군 한다고 하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이께서는 백두산발을 굽어보고 또 보시며 항일의 선렬들이 피흘리며 찾은 조국은 외세에 의해 동강난 조국이 아니라고 하시며 하나된 조선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주석님의 위대한 한생을 가슴뜨겁게 회억하시였을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굳게 손잡고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조국을 안아오실 애국의 의지를 굳히시였을것입니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뜨거운 통일의지에 떠받들려 분렬 55년만에 력사적인 첫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였으며 환희와 격동의 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길로 불러주시는 그이의 바다처럼 넓은 애국애족의 품으로 정치인, 경제인들도 오고 종교인, 언론인들도 찾아와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아도 이 땅에서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제일

이라는것을 페부로 절감한 우리 겨레였습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이 언제면 될수 있는가고 말씀올리는 남측 언론사대표단 성원들에게 그건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문제이라는 철의 론리로 즉석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여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진리도 깊이 새겨주시였습니다.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동포들이 금강산의 구룡연으로, 만폭동으로 구름처럼 오르고 개성공업지구의 동음소리가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려 수많은 남녘동포들이 평양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하늘땅을 진감하던 그 나날의 우렁찬 함성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스러운 백두의 정신을 우뢰로 터쳐 삼천리에 울려주신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었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남녘의 각계층속에서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있으니 통일은 반드시 온다, 백두산은 그대로 그분의 기상이고 빛발이

라는 민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하였습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백두산정에 오른 북과 남의 시인들이 《문학의 새벽》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백두산은 민족의 자존심! 백두산은 민족통일의 성산입니다!》라고 웨치던 격정의 함성이 들려오는듯 합니다.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삼천리에 온 겨레가 하나될 통일의 새아침을 불러오실 확고한 의지와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불타는 일념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짓부시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백두산은 기적과 번영을 창조하는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신념과 의지의 기둥으로 자리잡고있습니다.

그이께서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오르시였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우리 재중동포들속에서는 2018년에 큰 경사가 일어날것 같다, 삼천리강토에 통일바람이 불것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그 예상이 옳았습니다.

세계를 놀래우며 2018년에 일어난 하나하나의 특대사변들은 백두산의 칼바람과 같이 기세차고 백두산악과도 같이 강건하며 백두산의 천리수해와 같이 드넓은 그이의 확고한 자주통일의지와 대범한 결단, 숭고한 동포애와 한없는 도량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사실 2018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고 조선반도정세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기에 4월의 판문점선언도, 9월의 평양공동선언도 탄생할수 있은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뜨거운 동포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절세위인의 대해같은 사랑과 통큰 결단은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도 순간에 녹이는 뜨거운 열과 빛이였고 오늘의 력사적사변을 안아온 귀중한 원동력이였습니다.

백두의 넋과 정신이 나래치는 천지의 맑은 물에 민족자주의 붓, 애국애족의 붓을 적셔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래동안 기업에 관여해왔기때문에 공상 같은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성산 백두산정에서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절세위인의 모습을 우러르며 륭성번영할 민족의 래일을 내다보고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면 인구가 8천만에 달합니다. 이쯤되면 세계에서 손꼽힐수 있는 인구입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이 8천만겨레의 지혜와 힘이 모두 통일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해 합쳐지고 발양된다는것입니다.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재능있고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동방의 천년강국이였던 고구려사람들의 용맹은 더 말할것도 없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와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낸것도 우리 민족이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천문대를 가진것도 우리 민족입니다. 최치원의 문장, 박연의 음악, 담징과 김홍도의 그림, 김정희의 글씨, 을지문덕, 강감찬의 지략 등 등 우리 겨레의 재능과 슬기야말로 세계에 자랑할만 한것입니다.

자고로 산좋고 물맑아 금수강산이라 일러온 우리의 국토에는 금은보화 또한 가득차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재능과 슬기, 자원이 봉건의 질곡속에서 제대로 피여나지 못하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유린질식되였으니 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 《제일강산》에 서리고 맺힌 한도 여기에 있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의 응어리는 민족분렬로 인하여 아직도 풀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둘러보면 물질적부를 뽐내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통일되면 이러한 나라들을 빠른 시일안에 따라잡으리라는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자기의 절대적인 존엄과 권위를 온 누리에 더욱 높이 떨치게 될것이며 우리의 민족사는 창조와 혁신의 나래 펼치고 날과 달을 번영의 금문자로 수놓아지게 될것입니다.

이 어찌 실현될수 없는 희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모두의 버릴수 없는 삶이며 기필코 이루어야 할 래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 륭성번영할 민족의 미래를 믿어야 하며 그것을 쟁취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미래는 누가 그냥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민족의 자존심인것입니다.

반통일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백두의 담력과 배짱, 통큰 결단과 넓은 도량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기 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갈 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백두산의 눈부신 해돋이처럼 밝아올것입니다.

백두산에서 민족재생의 새 아침이 동터온것처럼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올것이며 겨레의 존엄이고 긍지인 백두산자락아래 삼천리는 세계가 우러르는 통일강국으로 우뚝 솟아 길이 빛날것입니다.

따뜻한 깃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처녀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

꿈많은 그 시절은 흘러갔어도
하나의 소원 안고 사는 이 마음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소중하여도
보람찬 이 길에서 행복 찾으리

— 가요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중에서 —

5. 내가 걷는 이 길은…

□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걷는 인생길에서 성공을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성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남먼저 성공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질주하다가 실패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결과만 중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체육이나 오락이라면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기회를 또 기다릴수도 있겠지만 인생길에서는 한번 지나놓고보면 다시 돌이킬수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할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의식하건 못하건간에 인생은 순간마다가 다 결론인것입니다.

이로부터 실패없는 인생길을 걷기 위해 인간에게는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어야 하는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에게는 인생길에서의 잊지 못할 선배,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묵묵히 애국의 길

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저로 하여금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도록 말없이 고무해준 선배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들가운데는 오가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대학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기업가는 더우기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걷도록 어려울 때마다 힘을 준 고마운 사람이였습니다.

고향이 평안남도 성천군인 그는 10살 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머니와 함께 외가집이 있던 우리 마을에 왔다가 어머니가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대로 눌러앉은 사람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데다가 목까지 쑥 들어가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불구자로 오해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친척되는 사람에게서 배워 무술과 권투를 잘하였습니다. 목이 쑥 들어간것도 무술과 권투의 기본자세가 굳어진탓이였습니다.

망나니 10여명정도는 쉽게 꺼꾸러뜨리군 하였는데 나중에는 시안의 불량배들까지 그가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슬슬 피해 달아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음내키는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했던 그는 조선사람들을 깔보고 약자들을 못살게 구는 심보나쁜자들에게만 징벌을 가하군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10살이나 아래였던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비록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찌

기 호미를 잡았지만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제가 사범학교에 다닐 때에도 저더러 조선사람임을 떳떳이 자랑하며 살라고 늘 강조하면서 사람을 잘 사귀라고 말해주군 하였습니다.

그는 공민학습반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데 그와 함께 조국의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동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뛰여다니던 때를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소한의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시내로부터 수백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보여줄것을 우리 공민학습반에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자고보니 운반수단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에 말발구를 타고 그 먼길을 갈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뻐스를 탐문해보았는데 그 값이 약차하였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아도 요구하는 값보다 어방없이 모자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것인가?)

날씨가 사납고 사정도 그러하니 후날로 미루자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 오가성을 가진 그 사람이 나서더니 오늘뒤에는 래일이 있지만 오늘뒤에는 오늘이 없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오늘에 가야

할 길이라고, 동포들을 위한 일이고 조국을 위한 길이 아닌가고 하였습니다.

그는 저더러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고있었습니다.

한참후 눈사람이 되여 방으로 들어선 그는 품안에서 수백웬의 돈을 꺼내놓았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액수도 액수였거니와 농사나 짓는 그에게 그 많은 돈이 있을수도, 날 곳도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는 영문을 묻는 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훔친것도 부정한것도 아니니 빨리 뻐스를 임대해서 가자고, 동포들이 기다린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후날 그 돈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중국 북방권법의 비법들을 기록한 책자가 두권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백년전에 만들어졌을 그 책들이 어떻게 그의 외가집에 있게 되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전해져오는 가보라는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그에게 북방권법과 관련한 오랜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숱한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길림은 물론 멀리 장춘과 심양, 할빈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들은 저저마다 《국가적립장》과 《무술발전》에 대하여

운운하기도 하였고 돈뭉치를 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 모든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생명을 내댈지언정 대대로 전해지는 가보만은 절대로 내놓을수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이토록 귀중히 여기던 책자를 동포들을 위해 서슴없이 내놓은 그의 모습에서 저는 조국을 위하려는 그의 깨끗한 마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경에 가족을 데리고 대련으로 옮겨가 살면서 시장에서 수산물장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와 헤여진 후에도 련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교편을 잡고있을 때는 물론 장사일로 대련을 지나갈 때면 꼭꼭 그를 찾아가군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 고향의 유명한 비단이며 성천밤,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꼽혀오던 강선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에 대한 노래도 부르며 저와 함께 밤을 지새군 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하려는 마음을 안고 장사길에 나섰던 제가 곡절을 겪을 때에도 저에게 힘을 준 잊지 못할 은인이였습니다.

어느해 겨울 저는 장사를 좀더 크게 하여 앞으로 기업을 운영할 밑천을 마련해보겠다는 생각을 안고서 사천성의 어느 현으로 갔었습니다.

사천성에는 참대순과 함께 고사리도 많이 났는데 다른 지방의 고사리들보다 실하면서도 만문할뿐아니라 그 값도 눅

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뜻밖의 일을 당할줄이야…

그때 현에 도착하니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뻐스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짧은 겨울해는 이미 서켠너머로 사라져 날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래일 아침 그곳으로 떠나는 뻐스를 타기로 작정하고 하루밤 묵을 숙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려관 같은데 들면 돈이 많이 들겠고 그렇다고 얼굴을 익힌 집도 없었습니다. 하는수없이 이곳을 지나다닐 때 한두번 들려보았던 려인숙을 찾아갔습니다.

방을 받아 들어가니 불그스레한 전등이 켜져있는 안에 여럿이 웅크리고도 있고 누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서는 저를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방의 한쪽구석에 앉은 저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에 띤 돈보자기에 손이 여러번 갔습니다. 그러자 방금전보다 더 많은 눈길들이 호기심을 띠고 저를 보는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몸에 돈을 띠고있다는것을 눈치챈것이 아닐가. 밤새 이것을 그러안고 앉아있을수도 없고… 먼길을 왔더니 벌써부터 온몸이 노그라지는데 어쩌면 좋담. 잠든 다음 누가 손을 뻗쳐 풀어가지고 달아나면…)

소름이 오싹 돋고 근심이 산같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자리에서 움쭉 일어

셨습니다.

려인숙주인에게 돈을 맡겼다가 아침에 찾자는것이였습니다. 물론 보관료는 물어야겠지만 통채로 돈을 도적맞힐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았습니다.

키가 작달막한 주인은 처음에는 마뜩지 않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소리가 나오자 눈알이 반들반들해지고 별로 삽삽해지는것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선 내뒤에 더 다른 사람이 없는가를 흘끔흘끔 살폈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일어나서 방금 제가 들어온 나들문을 빼써 열고 밖을 살핀 다음 다시 꼭 닫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주인의 이러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이왕 걸음을 한것이고 해서 배에서 돈보자기를 풀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앞에서 돈을 세여보였습니다. 정확히 3만웬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화씨벽》(和氏璧)이라는 말이 전해오고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초나라에 한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날 그는 산에서 옥돌을 주어 왕에게 바쳤는데 왕은 그것이 막돌이라고 하여 그의 왼다리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후 새 왕이 즉위하자 그는 왕에게 그 옥돌을 바쳤다가 오른다리마저 잘리웠습니다.

몇년후 또 다른 왕이 권좌에 오르자 그는 그 왕에게 옥돌을 바쳤습니다.

옥돌의 가치를 알아본 왕은 세공사에게 그것을 가공하여 둥근 고리 옥을 만들게 하고 이를 《화씨벽》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화씨의 옥은 값으로 따질수 없는 천하의 보배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지금은 3만웬이 그닥 큰돈이 아니지만 당시 저의 형편에서는 그 돈이 《화씨벽》에 비길만큼의 거금이였습니다.

그무렵 천진이나 대련과 같은 대도시의 2～3층짜리 독립가옥의 값이 수천웬정도 할 때이니 어느 정도 큰돈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래일 새벽 일찍 찾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참 생각을 잘했다고, 방안에서 쉬다 도적맞히면 자기네가 책임을 못 진다고 횡설수설하며 또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아침일찍 맡긴 돈을 찾으러 가자 주인은 마치 처음 보는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뜨부럭거리며 아닌보살을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시치미를 떼는통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방안이 떠나가게 싸우는 소리에 려인숙에 든 손님들이 쓸어나오고 나중에는 주인이 부른 경찰까지 달려왔습니다.

헌데 청청하늘에서 이런 날벼락이 어데 있겠습니까. 제가 주인과 단 둘이 한노릇이니 돈을 맡긴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줄 증인이 없었습니다.

려인숙주인은 바로 이것을 노렸던것입니다. 참으로 눈을 펀

히 뜨고 눈알을 뽑힌것입니다.

저는 그대로는 집으로 돌아갈수 없어 대련에서 살고있던 오가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을 쥐여뜯었습니다.

한동안 그의 집에서 몸져누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맥을 놓고있던 저에게 그가 해준 말은 나를 정신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각오가 부족해서 떠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것이다. 돈이란 없다가도 생기지만 조국을 위해 걷는 길은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이왕 애국의 뜻을 품고 떠난 길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초심대로 꿋꿋이 걸어가야 한다. …

며칠후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그에게 한달기한으로 3만웬을 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힘꼴이나 쓰는 동포청년을 한명 붙여달라는 부탁도 함께 하였습니다.

몸이 날래고 주먹이 센데다가 의협심도 강하다보니 시장에서는 물론 시내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저는 그가 내주는 돈을 전과 꼭같이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차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르다면 이목구비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팔과 주먹이 무쇠방망이같이 단단한 동포청년이 따라선것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가성을 가진 사람도 청년도 내가 어데 가서 어

떻게 하려는것인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달전에 들었던 그 려인숙으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마침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어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을 달고 려인숙주인을 찾아갔습니다.

한달전의 일을 전혀 모른척 하고 돈을 좀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과 청년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여보였습니다. 전번과 같이 3만웬이였습니다.

주인은 저를 보는 순간 좀 놀라는것 같더니 이내 덤덤한 표정을 짓는것이였습니다. 다만 뒤를 따라선 기골이 장대하고 무뚝뚝해보이는 젊은이에게 한두번 눈길을 주었을뿐입니다.

저는 래일 새벽차로 떠나야겠는데 돈을 좀 일찍 찾게 해달라는 말도 례사롭고 능청스럽게 하였습니다.

주인은 제가 좀 이상스럽기는 했지만 영문을 알수 없어 그 작은 키와 어깨까지 으쓱 솟구며 쾌히 응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저는 혼자서 주인을 찾아가 돈을 찾자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한달전에 내 돈을 옭아낸 일이 있는지라 이번에까지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군말없이 내주었습니다.

저는 들었던 방으로 다시 와서 조용히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가 주인에게 갔다온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이 활짝 밝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동포청년과 식사를 하고나서 저는 돈맡길 때와 꼭같이 젊은이를 뒤에 달고 주

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찾자고 시치미를 뻑 따고 들이댔습니다.

장부를 뒤적이며 수판알을 튕기던 주인은 그 말소리에 머리를 들더니 와뜰 놀래며 두눈을 뒤집었습니다.

《맡긴 돈을 찾으러 왔다는데 불에 덴 소처럼 놀래긴 왜 그리 놀래시우? 어서 돈이나 주시우.》

《아니, 돈을 찾아가지 않았소?》

《돈을 찾아갔다는건 또 무슨 소리요?》

주인은 몸까지 떨며 손가락으로 찌를듯이 오른손을 내 눈앞으로 내뻗쳤습니다.

한창 아웅다웅 싸우는 때에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포청년이 주인의 한쪽손목을 휘 틀어잡았습니다. 어떻게 한 것인지 주인은 죽는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주인장, 내 한가지 묻기요.》

《당… 당신은 누… 군데…》

《이 사람의 동생이요.》

《좋소, 좋소… 이 팔목을 좀 놓고…》

《날 똑똑히 보오. 옳게 처신하면 놔주겠소.》

동포청년이 눈을 뚝 부릅뜨고 쏘아보며 을러메는것이였습니다.

《예, 예.》

《어제 저녁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와서 돈을 맡겼소, 안 맡겼소?》

《그야… 그야 맡겼습지요.》

《그런데 방금 잠에서 깨나고 함께 식사까지 한 우리 형님이 언제 당신한테 와서 돈을 찾아갔단 말이요?》

《그건, 그건… 사… 사실입니다.》

동포청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인장, 듣소!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오. 우리 형님이 거짓말을 할것 같소? 뼉다귀를 싸가지고 물러앉기 전에 어서 순순히 돈을 내놓소!》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경찰들이 그전처럼 달려왔습니다.

그앞에서 저는 려인숙주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동포청년이 팔을 잡고있는 주인에게로 다가가 수갑을 보여주며 이걸 보구 돈을 돌려주든가 손목에 차든가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뻗대고 어째보아야 판은 글렀다고 생각했는지 주인은 잘못했노라고, 돈을 주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가 팔을 놓아주자 울상이 되여 손을 와들와들 떨며 맡겼다는 액수의 돈을 또 내주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어제 돈을 맡길 때 싸가지고 왔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몇번 툭툭 턴 다음 돈을 싸가지고 허리춤에 찼습니다.

제가 오가성을 가진 사람네 집으로 돌아와 그 집 내외와 함께 갔던 동포청년에게 사연을 다 말해주고 꿔갔던 돈을 돌려준것은 그후에 있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이미 저세상사람이 된 오가

성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조국을 위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고무해준 그의 남다른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군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가운데는 남조선의 전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하여 알고있은것이란 그가 소 판 돈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와 자수성가한 큰 기업가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에 대하여 존경심을 품게 된것은 그가 인생말년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선 때부터였습니다.

다 알려진바와 같이 그는 1998년 6월 판문점을 통해 소 500마리를 끌고 평양을 방문하여 금강산개발문제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경제협력문제를 합의하였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또다시 500마리의 소를 끌고 아들, 누이, 매부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을 올리였으며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당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여 북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김정일**장군님의 접견을 받았으니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였다고, 장군님께 말씀드린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남조선에 돌아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찍은 여러장의 사진을 펼쳐보이면서 흠모심을 표

시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밤늦게 친히 숙소에까지 찾아오시였을뿐아니라 자기를 남조선의 5대창업자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선생이라고 하시며 기념촬영때에는 가운데자리에 세워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당시 미국의 어느 한 방송도 《자본주의기업가 정주영이 **김정일**장군을 지성적이며 친절하고 례절바른 지도자라고 칭송한 발언은 그가 북조선지도자의 풍모에 완전히 매혹되여 진실로 우러나온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려던 생각을 취소하고 기업활동을 직접 맡아하는 한편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를 제일 신임하는 다섯째아들에게 맡기면서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는 북남체육교류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1999년 9월 롱구선수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을 올리고 또다시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체육관착공식과 함께 통일롱구경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대통령 클린톤(1998년 11월)과 미국 대북정책조정관 페리(1999년 1월과 3월)의 면담요청을 거절할만큼 미국에 대한 굴욕을 반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일신의 치부만을 위해 살아오던 그가 생의 말년에나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길에

나선것을 애국애족의 소행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몸소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화환도 보내주시였으며 그의 일가가 고인의 뜻을 이어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것이 복이 아닙니까. 하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성취되는것이겠습니까.

정주영명예회장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세상사람들한테 남기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애족의 마음!

그렇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것을 실천해나갈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수 있는 법입니다.

인간의 복, 그것은 정녕 애국애족의 길에 있는것입니다.

□ 나는 무엇으로 애국을 하는가

조국의 북창군에서 저의 이모가 살았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십여년을 성실히 일해오면서 많은 국가수훈을 받은 이모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년로보장을 받은 후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편히 쉰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이 없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륙이 성할 때까지 나라에 보탬을 주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돼지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들을 길러 탄부들의 석탄생산을 물심량면으로 고무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모를 만나본것은 한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행은 저에게 류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발전이나 방대한 규모의 건설사업 등에 크게 기여하는것만 애국이 아니라 조국의 힘을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하나하나의 작은 소행이 곧 애국이라는것이였습니다.

애국이란 말그대로 자기 조국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수려한 조국산천과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들, 대대손손 지켜가며 살아가는 땅과 함께 간직된 모든것이 그대로 조국이고 그에 대한 사랑이 다름아닌 애국인것입니다.

그후 해를 두고 이어지는 조국방문의 길에서도, 이모사촌형제들이 사는 북창군을 찾으면서도 이모에게서 받은 충격이 항상 돌이켜졌습니다.

그러나 짐 로져스, 죠지 쏘르스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가나 《알리바바》의 마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이름난 사람도 아닌 제가 조국의 힘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만 한 일을 찾는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첫출발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는 사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출발을 할 때 생긴 한치의 방향상편차가 종당에는 뜻하지 않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기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탬을 줄수 있을가?)

우리 조국에는 산이 많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다보니 어디에 가나 눈에 안겨오는것은 무연한 벌보다 높고낮은 산들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들을 심상하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모처럼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그 산발들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거듭하던 저의 머리속에는 가파로운 비탈도 잘 오르고 방목하는데도 유리한 염소를 키우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피뜩 들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조국방문의 나날 염소를 방목하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아온 기억이 살아올랐습니다.

자기의 착상이 그럴듯하다는 느낌에 저으기 흥분되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도 뒤따랐습니다.

(정주영명예회장은 소 1 000마리를 가져왔는데 나는 겨우 염소 몇마리를… 사람들이 웃지 않을가?)

망설이던 저는 이러한 생각을 조국의 일군들에게 조용히 비쳐보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조국에서 전군중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풀과 고기를 바꾸는 사업에 대하여 알기 쉽게 말해주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찌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농촌들에서 양, 염소, 토끼와 같은 풀먹는집짐승들을 많이 기르면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높일수 있고 두엄을 많이 내여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다고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고 합니다.

그이의 높은 뜻을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전체 인민을 이 사업에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에게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업활동을 하는 속에서도 염소에 대한 연구에 힘을 넣었습니다. 하여 염소와 관련한 많은 자료들을 알게 되였습니다.

염소는 알곡먹이를 쓰지 않고 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

를수 있습니다. 먹이에 대한 요구성이 적고 독이 있는 풀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풀과 나무잎, 말린풀, 낟알짚, 콩깍지, 남새찌끼 등 먹이를 잘 먹을뿐아니라 생활력과 활동력이 강하고 성질이 온순합니다.

또한 몸집에 비하여 젖을 많이 내는데 젖생산량이 높은 젖소인 경우 자기 몸질량의 10배에 해당한 젖을 내지만 염소는 20배의 젖을 냅니다. 염소젖에는 20여종의 아미노산과 45종의 광물질, 25종의 비타민이 들어있으며 염소젖 1kg은 닭알 10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염소는 연하고 부드러우며 단백질과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와 털가죽을 주는 유익한 집짐승입니다.

염소품종은 세계적으로 200여종이 있는데 품종들은 생기게 된 력사에 따라 고대종과 현대종으로, 지리적분포상태에 의하여 아시아종, 유럽종, 아프리카종으로 나눕니다. 또한 염소의 개량정도에 따라서 재래종과 개량종으로 나눕니다.

오늘날 염소는 그의 용도에 따라 품종분류하는것이 널리 적용되고있습니다.

즉 젖용품종(조선염소, 자넨염소, 독겐부르그염소, 알프스염소, 누비아염소 등), 털용품종(앙고라염소, 카슈미르염소 등), 젖 및 솜털겸용품종(솜털염소, 뿌리돈염소), 젖과 고기 및 털가죽겸용품종(몽골염소, 동염소 등), 고기용염소품종(검은벤갈염소) 등이 있습니다. 중국, 인디아, 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로씨야 등에서 기르고있는 재래종인 젖량이 적은 염소는 주로 고기를 생산하는데 리용합니다.

젖용염소로 많이 기르는 품종은 자넨종과 독겐부르그종입니다. 이 품종의 염소들은 새끼를 난 후 7～10달동안 젖을 짤수 있는데 보통 600～800kg, 최고 2 000～3 000kg의 젖을 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알게 된 저는 좋은 염소종자를 얻기 위해 해당 나라의 전문회사들과 연구소들에 전자우편을 보내는 한편 친지들에게 부탁도 하였습니다.

하루이틀이 지나도 염소와 관련하여 저에게 오는 전자우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곳들에 달려갈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후 마침내 전자우편들이 날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회답내용들을 보니 저마다 자기네것들을 사가라는것이였습니다.

거기에는 매 종류의 염소들의 생태학적특성과 젖 및 고기 생산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었고 사진들까지 첨부되여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국의 풍토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높은 염소들을 구입할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런 계획밑에 가격들을 모두 따져보니 그 액수가 약차하였습니다.

순간 주저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그만한 자금이 없은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하여 관광업의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있었습니다. 그러다나니 호텔과 식당을 경영하는 저의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출을 될수록 줄여야 할 형편이였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조국에 보탬을 주는 일에 결심품고 나선 저로 하여금 선듯 결단을 내릴수 없게 하였던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람이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각오가 부족해서 떠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것이라고, 돈이란 없다가도 생기지만 조국을 위해 걷는 길은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던 오가성을 가진 사람의 말이 저의 뇌리를 쳤습니다

이모의 얼굴도 떠오르면서 주저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습니다.

애국은 돈이나 재부보다도 조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는 마음으로 하는것이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애국을 못하는것이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애국을 할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한 나라, 한 민족의 범위에서 보면 물론 너무도 작은 일이다. 하지만 민족성원들모두가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만 보탬한다면 부강번영을 지향해나가는 내 조국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것이다.)

저는 끝내 자기를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1999년 10월 저는 여러 나라의 회사들로부터 운반

해온 젖과 고기생산량이 높은 우량종염소 수십마리와 젖짜는 기계 등을 조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염소들을 실은 자동차를 바래우는 저의 가슴에는 나도 무엇인가 조국에 보탬을 주었다는 기쁨과 자기를 이겨냈다는 기쁨이 그들먹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국에 보탬을 주기 위해 떠난 길에서 거둔 첫 성과였습니다.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우량종염소들과 젖짜는 기계, 사료가공설비를 비롯한 부대설비일식들, 염소기르기와 관련한 책자들과 각종 예방치료약들을 조국에 보내주었습니다.

염소들과 설비들을 반갑게 받았으며 효과있게 쓰고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저의 손을 놓을줄 모르며 기뻐하던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삶의 희열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계속 애국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조국방문의 나날에 받은 소감에 대하여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해 초겨울이였습니다.

그때 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저는 투자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부문 일군들을 만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저는 몸에 배인 습관대로 아침식사를 하기에 앞서 신문을 보고있었습니다.

이때 안내를 맡은 녀성이 호실에 들어서는것이였습니다. 손

에는 큼직큼직한 함박꽃무늬가 박힌 꽃보자기에 싸인 무엇인가가 정히 들려있었습니다.

보매 바쁜걸음을 걸은것 같았습니다. 입언저리와 코방울에 잔구슬같은 땀발까지 약간 돋아있었고 자분치 몇오리가 이마에 달라붙어있었습니다.

《안내선생이 어떻게 아침일찍?…》

저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좀더 빨리 온다는게… 선생님, 아침식사를 하셨어요?》

자기 묻는 말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것을 물었습니다.

《아직… 좀 있다 식사를 하려던 참인데…》

그 말에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럼 됐군요. 선생님, 호텔식사를 한끼 건느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식사를 건느라?》

저는 말뜻을 미처 몰라 이렇게 되받아외웠습니다.

《하긴 끼니까지 에울만 한 음식은 못되는거니까 맛이나 보시고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는 또 한번 생글 웃으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게 뭔데?!》

《선생님 맛보시라고 내 손으로 지진 록두지짐을 몇짝 가지고 왔어요. 좋아하시는지두 모르고 들고 왔는데 흉을 보지 않겠는지.》

그 녀성은 퍽 숫저어했습니다.

《?!…》

보자기안에 두툼한 모달리천 같은 싸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풀고 보온밥통을 여니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여올랐습니다. 식지 말라고 무척 윈심을 쓴것이 헨둥히 알리였습니다.

《선생님, 왜 지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지는족족 먹는거라구 해서 지짐이라구 한대요. 호호호…》

유모아도 재미있었습니다.

《따끈한것으로 잡수어야 제맛이 나는데…》

그는 그러며 집에서 가지고 온 접시에 지짐을 한짝만 올려놓았습니다.

《잡순 다음 또 꺼내놓을래요.》

그러는 목소리에 응석기가 섞여있었습니다.

연한 록색을 띠면서도 골고루 노릿노릿하게 익은 지짐짝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콕 찌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볼샘에서 군침이 스르르 돌았습니다. 무슨 흰 무늬같이 네모난것이 지짐짝 한가운데 잘 어울리게 박혀있었습니다.

보온밥통말고도 또 다른 작은 꽃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갓김치가 담겨져있었습니다. 마늘과 파를 다져넣고 겨자를 적당히 섞어만든 초간장그릇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서요.》

안내녀성은 저의 손에 준비해가지고 온 저가락까지 쥐여주었습니다.

순간 저의 눈앞에는 어머니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음식장사를 하는 그 힘든 속에서도 방금 지

져내여 김이 문문 나는 지짐이나 갓 빚은 말큰말큰한 떡을 저의 입에 넣어주군 하였습니다.

저는 목이 탁 메고 눈굽에 눈물이 핑 어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오래동안 이긴자만이 살아남을수 있다는 매정한 기업의 세계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도저히 영문을 알수 없었습니다.

저가락을 받아쥐기는 했으나 선뜻 접시에 손을 내밀수가 없었습니다.

《안내선생, 먹어도 알고나 먹어야지.》

그는 먼저 한짝을 들어야 사연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권하는 목소리가 하도 곡진해서 저는 접시의 지짐을 들어 한입 베였습니다.

그랬던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두번에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내녀성은 밥통뚜껑을 열고 또 한짝 꺼내놓으며 조용조용 말해주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 록두지짐을 무척 좋아한다는것,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잘 청하지만 자기 손으로 자주 지져 밥상에 놓군 한다는것, 어제 그가 내가 요즘 이국땅에서 온 동포선생님과 함께 다닌다는데 이 록두지짐을 좀 맛보이게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다는것, 그래서 자기가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지진 이런 록두지짐을 잡숫겠는가고 하자 남편이 우리 나라의 이 록두지짐이 어떻다구 그러는가고, 영양가나

광물질, 비타민 같은것이 골고루 함유되여있는 장수식품인데다가 맛 또한 독특하고 몸에 들어온 독성물질을 해독시키는 작용도 하기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 아닌가고,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록두지짐을 맛있게 지지는 방법까지도 몸소 알려주신것 아니겠는가고, 자기도 돕겠으니 래일 아침일찍 일어나 한번 솜씨를 보이라고 《령》을 내렸다는것 등등…

《그러니 오늘 아침 이 록두지짐은…》

안내녀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접시가 빌세라 놓아주는 록두지짐을 맛스레 들던 저는 놀라운 눈길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짐지지는 방법까지?》

《선생님, 그렇습니다.》

《!》

저는 안내녀성이 접시에 또 놓아주는 지짐을 이윽토록 바라보았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알아야 할 록두지짐을 맛있게 지지는 방법까지 손수 알려주시며 인민생활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였다니 그 정이 어머니사랑으로 닿아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의 록두지짐이 단순한 지짐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인민생활을 위해 마음쓰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의 힘을 키우는데 보탬을 주는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조국인민들의 절절한 당부로

받아안았습니다.

그 당부를 안고 저는 오늘까지 애국의 길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왔습니다.

라선땅이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피해지역 인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재민들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픈 마음에서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후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삼지연군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로 특색있게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적으나마 애국의 열의를 성의껏 보탰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많은 재중조선공민들이 조국의 숨결과 박동을 함께 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들을 합쳐가고있습니다.

오래동안 천진시 조선공민학습반의 책임자로 사업해온 한 해외조선공민은 여러권의 의학도서들과 수천여대의 침을 기증함으로써 조국의 의학과학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선공민들이 너도나도 떨쳐나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의 부강발전에 아낌없이 기여하고있습니다. 그러한것들중에는 조국의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조국의 산천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필요한 많은 도서들과 설비, 물자들과 묘목, 잔디 및 나무종자들도 들어있습니다.

《조국이 있고야 재부도 가치가 있고 지식이나 기술도 쓸

모가 있으며 기업도 빛이 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푼의 돈을 모아도 조국을 생각하고 한가지의 기술을 배워도 조국에 기여하는것이야말로 우리 해외동포들이 진실로 애국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에서 사는 조선공민들의 하나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갖은 어려움속에서 마련한 재부를 일신의 생업이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바친다는것은 누구나 쉽게 결심을 내릴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조국이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압살책동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자기의 힘과 기술로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때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조국이 걸머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동포들의 애국열의를 가까이에서 대할 때마다 저는 깊은 감명을 받군합니다. 동시에 저자신을 더더욱 채찍질하군 합니다.

□ 바치는것만이 아니다

흔히 옛사람들은 세월의 덧없음을 류수에 비겨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국을 위하는 길에서 맞고보낸 그 하루하루는 쓸모없이 흘러간 강물이나 사막에 떨어진 물방울과 같이 덧없는 세월이 아닙니다.

그 나날들은 모두가 새롭고 의의깊은 축복으로 이어진 나날들이여서 가슴후덥기만 합니다.

2012년 8월 8일은 제가 62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였습니다.

당시 조국방문의 나날을 보내고있던 저는 이날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의 해맞이식당에서 뜻밖의 생일상을 받게 되였습니다.

조국의 일군들은 제가 60번째 생일도 쇠지 못하였다는데 자기들의 성의로 알고 받아달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조국땅에서 생일상을 마주하고보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어머니와 생일(음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존해계실 때에는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며 생일상을 성의를 다해 차려드리군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생일을 쇠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란 어머니를 위한 날, 조국을 알게 해주고 조국을

위한 길로 변함없이 떠밀어준 고마운 스승을 잊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해왔기때문입니다.

그러다나니 저의 60번째 생일도, 그 다음번 생일도 그냥 지나가고말았습니다.

이것이 늘 가슴에 걸려있던 안해와 자식들은 이해의 제 생일이 가까워오자 은근히 저의 눈치를 살피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른척 하고 그냥 조국으로 나왔습니다. 조국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던 어머니의 몫까지 합쳐 마련한 많은 물자와 함께 말입니다.

막상 집을 떠나왔지만 생일날이 박두하니 자연히 안해와 자식들 생각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 와서 생일상을 마주하게 될줄이야…

일군들의 축복속에 축배를 받아들기는 했으나 저는 그저 목이 메여와 《감사합니다. …》라는 말외에 다른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생일상!

자고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여나 출생 일년이 되면 돌잔치를 그리고 년년이 생일날이 되게 되면 생일상이 마련되였으며 나이 60이 되면 60번째 생일축하연이 베풀어졌습니다.

아무튼 생일날이란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날의 하나로서 한가정, 친척, 친우들의 축복을 받는 인상적인 날인것입니다.

축배가 오가고 환담이 무르익어갈수록 저의 감회는 지난날의 추억들로 하여 한결 깊어만졌습니다.

영악하기 그지없는 중국 동북지방 특유의 돌파리며 모기, 깔따구를 쫓느라 마당가에 쑥불을 피워놓고 옛말을 해주던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나의 생일날이 며칠을 더 있어야 되는가고 총총히 묻던 일이며 때때옷차림에 손에손에 송편을 담아쥐고 자랑삼아 뛰노는 애들이 그리도 부러워 때아닌 때에 생일떡을 해달라고 조르던 일들 그리고 더우기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저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사로운 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잔을 비웠습니다.

뜻깊은 생일상을 마주하고보니 조국에 보탬을 주려는 마음을 안고 떠나온 길이며 그 길에서 조국으로부터 받아안은 은정들이 돌이켜졌습니다.

저는 이름난 기업가는 아니지만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조국에 진정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조국의 부강발전에 적으나마 이바지하는것은 공민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시련도 있었고 난관도 있었습니다. 주저앉고싶을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은 저에게 커다란 힘을 주고 난관을 이겨내는 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모든것을 이겨낸다.》는 말도 생겨난것 같습니다.

무릇 어머니들은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특히 그 자식이 장한 일을 할 때면 대견하여 더 내세워주고싶어하는것이 바로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어머니의 바로 이런 심정으로 조국은 저에게 크나큰 은정을 가슴넘치게 안겨주었습니다.

조국의 은정에 대한 말이 나온김에 저의 안해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언제인가부터 시름시름 앓던 안해는 2005년에 들어서면서 병이 더욱더 악화되여갔습니다.

배에 커다란 덩어리 같은것이 점점 커지면서 독을 쓰는것이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앓음소리를 내지 않는 그였지만 신음하며 몸져눕게까지 되였습니다.

베이징의 잘 아는 의사에게 문의한즉 복부의 종양 같은데 큰 병원에서 입원수술을 해야 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여 이런 병치료를 받자면 입원비,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는 물론 각종 약값까지 포함하여 약차한 돈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거액의 돈도 돈이거니와 병이 고쳐질수 있다는 담보도 없었습니다.

더우기 암이 아니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 은근히 겁부터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근심만 하고있던 때 조국에서 기별이 오기를 안해를 빨리 데

리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하라는것이였습니다.

참으로 가슴뜨거운 구원의 손길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내외는 조국으로 가는 렬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양역에 내리니 미리 대기하고있던 의사, 간호원들이 달려와서 곧장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안해를 조국의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생각에 안심은 되였으나 한편으로는 어떤 진단결과가 내려질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은 더욱 긴장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얼마후 의사선생이 와서 하는 말이 부인의 병은 얼마든지 고칠수 있으니 마음놓고 돌아가라는것이였습니다. 치료에 달라붙는 자세부터가 달랐습니다.

며칠후 수술을 하겠으니 곧 병원으로 와달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의사선생들로부터 이제 하게 될 수술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해당한 수속을 한 후 갈마드는 불안감을 애써 털어버리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수술장문이 열리였습니다.

저는 의사, 간호원들의 안색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의 얼굴에서도 그늘진 기색이란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잠시후 담당의사선생이 나오더니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수술결과가 아주 좋다는것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조국의 품이 아니였던들 안해는 저세상에 갔을지도 모를 사람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재생의 그 은정을 가슴속깊이에 새기고 숨이 질 때까지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하자고 결의다졌습니다.

조국의 은정은 이뿐이 아닙니다.

조국에서는 우리 온 가족이 평양과 지방의 여러 명승지들을 참관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도록 배려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돌아본 칠보산의 경치가 아주 장관이였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의 칠보산은 외칠보, 내칠보, 해칠보의 그 어느곳이나 절승경개를 뽐내고있었습니다.

칠보산에 갔을 때 이곳 주민들의 집에서 숙박을 한것이 또한 아주 인상적이였습니다.

이곳의 안내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칠보산을 찾아오시여 이곳을 인민의 유원지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칠보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날 묵으면서 이곳의 경치를 마음껏 부감할수 있게 숙박할수 있는 집들을 잘 꾸리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집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주기 위해 성의가 이만저만 아니였습니다.

칠보산의 명물인 송이버섯과 명천지방의 이름난 참미역으로 국과 찬을 해주었는데 그들의 성의와 음식의 진맛을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것 같습니다.

826년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는 개심사를 찾았을 때의 일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을 고쳐먹게 된다는 개심사를 돌아본 저의 머리속에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조국의 현실을 더 잘 알수 있게 머리를 정돈하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스님에게 제 생각을 말했더니 그는 웃으며 나의 청을 흔쾌히 수락하는것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만 허락한다면 한달이고 일년이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시간마다 변모되는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조국과 인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싶은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의 집에는 조국으로부터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으로 꽉 채워진 방이 있습니다.

수예로 형상한 어머니의 초상이 지켜보고있는 이 방에는 제가 조국으로부터 받은 훈장과 메달이 빛나고있습니다.

또한 벽장에는 조국에서 진행된 여러 중요국가행사들의 참

가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들과 애국표창장들이 정히 보관되여 있습니다.

저의 집을 찾아오는 친지들은 이 모든것을 보며 누구나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생각이 깊어지군 합니다.

과연 내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이런 영광과 행복이 차례졌단 말인가.

내가 한 일이란 누구나 마음먹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며 또 우리 민족성원이라면 너무도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조국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의 크기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에 무엇인가 보탬을 하려는 그 마음을 더 귀중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었습니다.

마치 자식들의 자그마한 아름다운 소행이 더없이 기쁘고 대견하여 다정한 품에 꼭 안아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볼수록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그것은 그대로 지칠줄 모르는 힘으로, 용기로 되였습니다.

이것을 어찌 저 하나만이 받아안은 사랑이고 은정이라 하겠습니까.

절세위인들께서는 조국을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국기훈장, 로력훈장을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수훈들, 위대한 주석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표창장, 영예상들도 안겨주시였습니다. 저의 안해와 같이 몸이 불편해하는 동포들을 조국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은정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이렇듯 고마운 조국의 품에 우리 재중동포들모두가 안겨살고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기쁨을 담아 그 이름도 정다운 해맞이식당.

저는 이런 의미있는 곳에서 뜻깊은 생일상을 마련해준 조국의 은정을 잊지 않고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마음을 담아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

꿈많은 그 시절은 흘러갔어도
하나의 소원 안고 사는 이 마음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소중하여도
보람찬 이 길에서 행복 찾으리

넋이 인생을 그린다

필　자　　한 창 수
편　집　　림 이 철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리 명 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9월 26일
발　행　　주체108(2019)년 9월 30일

ㄱ-1451ㄷ

DPR Korea
ISBN 978-9946-31-109-8